

100발100중이 만든 EBS 수능특강 분석서

2024년 학교시험·수능 대비

# 수능특강 문학 평가문제집

문학(하)

정답 및 해설

## PART 1 | 현대 소설

### 01 만세전

본문 010~017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1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의 사회상을 그리고 있다.
- 06 ‘나’와 갓 장수가 갈등을 벌이는 것도, 대화를 통해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아니다.
- 09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 12 ‘나’가 갓 장수에 대해 연민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 15 갓 장수의 생각은, 핍박당하는 것보다 천대받는 것이 낫다는 것인데, ‘나’는 이 생각을 이해하면서도 냉소하고 있다.
- 16 냉소적 태도를 보인다.
- 19 백 원을 동봉한 것에는 정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 1 ① 2 ② 3 ④ 4 ④ 5 ② 6 ② 7 표면적으로는 상대방의 호의에 대한 보답과 상대방에 대한 축하의 의도를 담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출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 1 서술자가 주인공인 ‘나’로 등장하여 자신의 행동과 심리를 서술하고 있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오답 해설** ② 서술자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③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전지적 시점’에서 서술하는 것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 해당한다. ④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⑤ 전지적 작가 시점 중 제한적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제한적 시점의 서술자는 특정 인물의 시각을 통해 서술 대상이 되는 인물들의 심리나 사건의 단면을 보여 준다.
- 2 ‘나’는 자신에 대한 ‘꼴자’의 궁금증(호감)에 대답하는 대신 판소리로 대응하면서 상대의 직업을 묻고 있다. 상대방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하면서 화제를 돌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가 ‘꼴자’에게 호감을 느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이 촌 청년도 부러운 눈으로 나를 자꾸 쳐다보며’에서 알 수 있다. ③ ‘꼴자’는 ‘나’와의 대화 후에도 ‘천대를 받아도 얻어맞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④ ‘학교에 들어가시게 되었다 하오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에서 알 수 있다. ⑤ ‘하도 못생겼으면 가엾다가도 화가 나고 미운증이 나는 법입니다.’에서 알 수 있다.
- 3 갓 장수는 “머리나 깎고 모자를 쓰고 개화장이나 짚고 다녀 보슈. ~ 유치장 구경을 한 달에 한두 번쯤은 할 테니!”라고 하며 외모를 신식으로 꾸미면 지식인으로 오해를 받아 지식인들이 당하는 일제의 감시와 압박을 그대로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즉 일제가 감시하고 압박하는 것은 지식인이기 때문이지 지식인 행세를

했기 때문은 아니며, 일제에게 당하는 것도 ‘천대’가 아니라 ‘핍박’이다.

**오답 해설** ① “세상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귀찮고 돈도 더 들지 않소?”에서 추리할 수 있다. ② “촌에서 머리를 깎으려면 ~ 깎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에서 추리할 수 있다. ③ “같은 조선 사람끼리라도 머리만 깎고 ~ 천대를 덜 받지 않소.”에서 알 수 있다. ⑤ “언제까지든지 함부로 흠뿌리는 대로 꺾적꺾적하고 요보란 소리만 들으려우?”로 보아 ‘나’는 천대받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갓 장수는 머리를 깎고 핍박을 당하는 것보다 머리를 깎지 않고 천대를 받는 것이 더 낫다고 보고 있다.

- 4 [B]에서는 서술자가 조선인의 삶과 현실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독백조로 서술하고 있다. [C]에서는 서술자가 정자에게 돈을 부친 자신의 행동에 담긴 의도를 직접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B]와 [C]는 모두 지난 삶을 요약하는 서술이 아니다. ② [B]에는 비판적 시각이 담겨 있지만, [C]에는 반성의 태도가 드러나지 않는다. ③ [B]에는 현실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드러나지만, [C]에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⑤ [B]에는 현재의 다짐이 담겨 있지 않고, [C]에도 과거에 대한 회한이 담겨 있지 않다.

- 5 ‘나’는 ‘생활 철학’이 ‘오랫동안 봉건적 성장과 관료 전제 밑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 철학’을 터득하려는 개개인의 의지를 옹호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나’는 생활 현실과 관련된 시속의 처세술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 현실에 근거한 문학이라는 작가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나’는 ‘지금의 우리 생활’을 봉건제와 관료제의 겹질 속으로 파고들어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삶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려는 작가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④ ‘나’는 ‘소학교 선생님이 사별(喪別)을 차는 것이 일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활을 기록하려는 작가의 노력을 살필 수 있다. ⑤ 일인칭 시점으로 개인의 내면을 드러낸 것에서 개성을 표현하려는 작가의 관심을 찾을 수 있다.

- 6 궁핍하고 암담하고 혼란스러운 조선의 현실을 ‘생활력을 잃은 백의(白衣)의 백성과, 백주에 횡행하는 이매망량(魑魅魍魎) 같은 존재가 뒤덮은’ 무덤에 비유하면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과거의 역경을 극복한 상대의 성취를 치하하고 있다. ③ 상대방의 말을 인용하여 상대방이 자신에게 보인 호의에 감사하고 있다. ④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자신이 처한 현실의 폭압성과 그로 인한 답답함을 부각하고 있다. ⑤ 상대방과 자신이 동일한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02 만무방

본문 018~024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1 전지적 작가 시점의 작품으로, 서술자는 작품 밖에서 인물과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06 응칠과 응오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며, 여러 인물들이 겪은 다양한 일화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10 응오의 눈이 위치한 공간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 있으나 이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 16 응칠은 도둑의 비명 소리를 듣고 그가 응오임을 알아차린다.
- 18 응오는 응칠의 제안을 거절하며 형을 뿌리치고 갈 뿐, 따로 돈을 벌 궁리를 하지는 않는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① 2 ③ 3 ③ 4 ⑤ 5 ③ 6 “내 것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7 응칠은 도둑질을 일삼으며 떠돈다는 점에서, 응오는 식민지 농촌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자신의 버를 훔친다는 점에서 염치가 없이 막된 사람을 뜻하는 ‘만무방’에 해당한다.

- 1 응칠은 응오의 눈의 버를 훔친 도둑이라는 의심은 받는 상황에서 잠복까지 하며 도둑을 잡는데, 그 도둑이 응오임을 알고 우두망찰한다. 이처럼 응칠의 행동과 심리를 따라가며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응칠과 응오의 경험 위주로 사건이 전개되므로 다양한 인물들의 경험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③ 인물의 심리나 상황에 대한 묘사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며 정황한 해설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④ 인물의 외양 묘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⑤ 회상은 드러나 있지 않으며 서정적 분위기와도 거리가 멀다.

- 2 응칠은 ‘선불리 서둘다간 낮의 횡액을 입읍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도둑이 버를 다 훔쳐 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오답 해설** ① ‘응칠이는 모든 사람이 저에게 그 어떤 경의를 갖고 대하는 것을 가끔 느끼고 어깨가 으쓱거린다.’에서 알 수 있다. ② ‘중략 부분 줄거리’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응칠은 처음에 도둑을 보고 “이 자식, 남우 버를 훔쳐 가니!”라고 고향을 치는데, 이를 통해 응칠이 도둑의 정체는 응오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응오는 횡소를 떠올리며 좋은 수가 있다는 응칠의 제안을 뿌리치면서 “명색이 성이라며?” 하고 반발한다.

- 3 응칠이 버를 훔친 도둑을 잡기 위해 응오의 눈으로 가는 것은 자신이 버 도둑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지, 치안이 부재했던 당시 사회의 참상을 고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응오는 자신의 눈의 버를 도둑질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당시 소작농들의 고충과 빈곤을 드러낸다. ② 응오의 눈에서 버를 훔친 도둑이 응오 자신이라는 비극적 상황에서 응칠이 응오에게 도움을 줄 생각으로 도둑질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비극적 현실을 경직성으로 드러내지 않고 해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⑤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면서 진탕 먹고사는 응칠을 부러워하는데, 이는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도 빛만 늘어나는 일제 강점기 농민들의 고충과 빈곤 때문이다.

- 4 C는 응칠이 응오에게 돈을 벌게 해 줄 요량으로 황소를 훔칠 생각을 하며 제안한 것으로, 응칠이 응오를 동업자로 생각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응칠이 응오의 눈에 와서 도둑을 잡으려 한 것은, 자신이 버 도둑이라는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② 응칠은 동생의 눈의 버를 훔친 도둑을 잡기 위해 눈에 가서 기다리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③ 응칠이 도둑을 잡기 위해 대포처럼 고향을 지르며 달려든 것을 통해 호락호락하지 않은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응칠 자신이 도둑질로 먹고살면서 버 도둑에게 대포처럼 고향을 지르며 달려들어 “이 자식, 남우 버를 훔쳐 가니!”라고 하는 장면은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한다.

- 5 ㉠은 응칠이 도둑의 정체가 응오임을 알고 나서 말을 잊지 못하는 상황으로, 응칠이나 응오 모두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은 막되게 살아가는 응칠이 배척이 아닌 존경의 대상이 되는 반어적인 상황에 해당한다. ② C에서 응칠은 응오의 눈에서 버를 훔쳐 간 자에게 분노를 느끼며 그를 응징하기 위해 몽둥이를 들고 가고 있다. ④ ㉠은 뜻밖에도 응오가 버를 훔친 도둑임을 알고 우두망찰하는 응칠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⑤ C에서 응칠은 도움을 주려는 마을에서 제안한 자신의 권유를 응오가 뿌리치자 분노를 느끼고 있다.

**03 명일**

본문 025~032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3 외양 묘사는 보이지 않는다.
- 05 인물 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다.
- 07 주인공이 탐욕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것을 풍자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 09 범수가 양복을 입을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서, 재취업에 대한 기대를 버렸음을 알 수 있다.
- 10 영주는 범수의 재취업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양복을 잡히려 하지 않는다.
- 13 범수는 아이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만 직접 가르치고 있다.
- 17 이 글에 드러나지 않는 내용이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⑤ 2 ③ 3 ③ 4 ④ 5 ③ 6 대화, 내면 서술 7 끼니 걱정을 하는(궁핍하게 사는 / 잘살지 못하는), 자식 교육

- 1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고뇌를 범수라는 인물을 통해 보여 주고 있다. 서술자는 작품 밖에 존재하는 전지적 서술자로, 범수를 중심으로 사건을 서술하여 그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외양을 묘사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② 전지적 작가 시점의 작품으로, 서술자는 교체되지 않는다.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④ 액자 구성과는 거리가 멀다.

- 2 ㉠은 여건이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즉 공부가 쓸모 있어지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일제 강점기 사회의 부조리(교육 제도의 기만성)가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단순히 경제적 궁핍을 탄탄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은 실업자라서 양복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는 양복이 필요한 상황, 즉 취업에 대한 기대를 버린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을 드러낸다. ② ㉡은 고등 교육이 삶의 풍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말로, 교육의 무용성, 무가치함에 대한 인식을 표현한 것이다. ④ ㉣은 지식의 무가치함을 한탄하는 것으로, 자신이 배운 지식이 현실적으로 전혀 쓸모가 없다는 인식을 통해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를 드러내고 있다. ⑤ ㉤은 윤리의식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지식인이 그 지식으로 잘살 수 없는, 즉 지식이 무가치한 식민지 현실의 모순으로 인해 야기된 모습이다.

**3** 공간 A와 공간 B에서의 갈등은 식민지 현실에서 지식인이 경험하는 무기력함이 바탕에 깔려 있다(㉠). 범수는 고등 교육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현실에 고뇌한다. 그리고 그러한 고뇌가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 금은상에서 도적질을 하려 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정체성의 회복으로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공간 A와 공간 B에서의 갈등은 식민지 현실에서 지식인이 경험하는 무기력함이 바탕에 깔려 있다. ② 공간 A에서는 '양복, 자녀 교육'이 범수와 영주의 갈등을 유발하고, 공간 B에서는 '도적질'이 범수의 내적 갈등을 유발한다. ④ 공간 A에서는 범수와 영주라는 서로 다른 인물들 간의 외적 갈등을 통해 범수의 고뇌를 드러내고 있으며, 공간 B에서는 범수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내적 갈등을 통해 그의 고뇌를 드러내고 있다. ⑤ 공간 A에서 갈등의 원인이 된 범수의 처지는 궁핍한 실업자로, 범수는 궁핍을 해결하기 위해 공간 B에서 도적질을 하고자 한다.

**4** “그건 우연이고 인제 세상은 갈수록 우리 같은 인간이 못살게 돼요……”, “그 두었다가가 문제여든…… 그 지갑에 돈이 또 생겨서 뵈게 될 세상은 우리는 구경도 못 해……”로 보아, 범수는 일제 강점기의 부조리한 사회의 모습은 개선되지 않는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주가 교육을 통해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영주는 교육을 통해 개인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볼 뿐, 사회 변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인지 알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자식들이 장래에 잘되어 잘살게 하자는 생각은 입자허구 꼭 같지만”에서 알 수 있다. ②, ③ ‘영주는 아이들을 공부해 시켜서 장래의 희망을 거다 불이자는 것이다. ~ 그것이 아이들 자신 장래에 불행하게 할 뿐 아니라, 따라서 부모의 기쁨도 되지 아니한다고 내내 우겨 왔던 것이다.’에서 알 수 있다. ⑤ “그거야 공부한 게 잘못이요? 당신 잘못이지…….”라는 영주의 말과 “세상 탓이야…….”라는 범수의 말에서 알 수 있다.

**5** ㉠은 범수가 비유로 제시한 행동이 불합리한 것임을 지적하는 반응이다. 범수의 비유가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했다고 비판한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그럼 저 양복이라도 접어 오구려.”라는 범수의 제안에 영주는 ㉡와 같이 말하며 그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② “세상 탓이야…….”라는 범수의 말에 영주는 ㉢와 같이 반대되는 사례가 있음을 들어 그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④ 영주가 자신의 유도에 따라 무심코 대꾸한 것에 대해 범수가 싱글벙글 웃으며 ㉣와 같이 말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⑤ ㉤은 금비녀의 무게를 아는 것이 목적인 질문이 아니라, 도적질을 하기 위해 점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목적으로 한 질문이다.

**04 해방 전후**

본문 033~040쪽

**기본 실력 다지기**

**04** 공간적 배경은 ‘강원도의 어느 산읍’인데, 주제와 관련된 상징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06** 현과 김 직원은 현재 갈등하지 않으며, 작품 전체적으로는 두 사람의 화해가 그려지지 않는다.

**11** 현이 순사 부장에게 질책을 받은 것은 아니다.

**12** 김 직원은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옳은 일을 했다고 정당해한다.

**14** 김 직원은 처음에 현에게 문인 궤기 대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참석하라고 조언한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 2 ㉡ 3 ㉢ 4 ㉣ 5 ㉤ 6 전보 7 김 직원의 조카가 매부 청년을 주재소에 넘긴 것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이 조대가 없음을 비판하고자 한 것이다.

**1** ‘현에게는 엽서 한 장이 와도 먼저 알고 있는 주재소에서 장문 전보가 온 것을 모를 리 없고’에서 현이 요주의 인물로 취급받고 있음을, 주재소와 우편국장까지도 현에게 흥미를 가진 것에서 현의 문인 궤기 대회 참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현이 집을 팔지 않고 서울을 떠난 것은 서울에 근거지를 남긴 것이다. ② 낚시는 현이 산읍으로 옮기면서 하고자 한 것이지, 낙담하여 선택한 것이 아니며, 낚시 역시 자신의 기대와 다른 것 중의 하나이다. ④ 현은 구식 노인인 김 직원에게 호감과 존경심을 느낀다. ⑤ 김 직원의 의도는 젊은이가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는 협조하는 척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훗날을 기약해야 한다는 것이다.

**2** [A]는 현이 강원도 산읍으로 온 이유(심리)와 경과를 요약적 서술을 통해 제시하고 있으며, [B]는 낚시를 하러 가다 순사 부장과 마주친 상황에서 현이 보인 행동을 통해 사건의 경과를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A]와 [B] 모두 작품 밖의 서술자가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 ② [A]에는 내적 갈등이 드러나 있지 않다. [B] 역시 순사 부장 등과의 갈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③ [A]는 현재의 상황과 관련된 과거의 기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B]에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A]에는 배경인 산읍에 대한 서술이 등장하지만 이를 통해 사회의 모순성을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B]도 인물의 이중성을 풍자하고 있지는 않다.

**3** 김 직원이 현에게 자신의 행동을 말하고는 있지만 그의 양해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김 직원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당당하게 생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낚시 도구를 들고 순사 부장과 맞닥뜨린 현은, 부장이 ‘눈까지 부릅뜨는 것으로’ 착각한다. 이는 질책을 받을까 봐 겁을 먹었기 때문으로, 현은 ㉠과 같이 말하며 상황을 모면하고자 한다. ② 아버지가 낚시질을 가지 않고 도로 돌아온 상황에 대한 아이들의 순수한 궁금증이 담긴 질문이다. ④ 현은 일제의 탄압이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카도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김 직원의 행동이 과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⑤ 김 직원은 자신의 행동이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예상되는 위협에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4** 현은 낚시 도구 때문에 낚시질, 즉 시국에 태만한 행동이 들킬까 염려하고 있지만, 자신의 행위가 떳떳하지 못하다며 자책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현은 낚시질을 하며 '세월을 기다'리려 했었다. 따라서 낚시 도구는 '세월을 기다'리는 행위의 도구에 해당한다. ② 현은 낚시 도구 때문에 낚시질, 즉 시국에 태만한 행동을 하는 자신의 행위가 들킬까 봐 놀라고 있다. ③ 현은 낚시 도구가 들킬까 봐 가던 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온다. ④ 엄중한 시국에 낚시질이나 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낚시 도구는 '시국에 태만한 증거물'로 간주될 수 있다.

**5** 현이 '살고 싶다'라는 비명을 하며 서울로 올라간 것은 해방 전의 일로, 이를 통해 현이 변모해 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현이 징용을 면하기 위해 산음으로 옮기는 것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 살길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② 현이 '부장님이나 순사 나라의 눈을 피하려' 하는 것은 애꿎은 피해를 입지 않으려는 것으로, 일제의 통제와 탄압이 최고조에 달한 일제 강점 말기의 상황이 반영된 행동이다. ③ 징용과 도망, 무자비한 체포 등은 일제 강점 말기에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④ 현에게 꼬치꼬치 캐어묻는 가네무라 순사의 태도는 사실상 문인 쫓기 대회 참석을 강요하는 것으로, 선택을 강요당하는 지식인의 처지를 보여 준다.

**05 단독 강화**

본문 041~047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4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 07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으며 과거 회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 13 장이 양의 가슴을 때린 것은 악몽을 꾸다 잠결에 그런 것이다.
- 14 양은 자신이 장의 행동을 오해했음을 알고 미안해한다.
- 16 장과 양은 모두 헤어짐을 아쉬워한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① 2 ② 3 ① 4 ⑤ 5 ① 6 탄환 7 양과 장이 인간적인 정을 나누며 공존하는 공간이다. / 양과 장이 군인이 아닌 한 인간(개인)으로서 대화하며 서로를 인정하는 공간이다.

- 1** 작중 인물이 서술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1인칭 시점에 해당한다.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되고 있다. ③ 동굴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통해 이념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화해와 공존이라는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④ 두 인물의 대화를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⑤ 두 인물 간의 긴장과 이완이 드러나는 사건 전개가 나타나 있다.
- 2** 장과 양은 모두 헤어짐을 아쉬워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양은 장이 자신의 가슴을 때린 것이 잠결에 악몽을 꾸었기 때문이었음을 안 뒤 오해하여 그를 때린 것을 미안해한다. ⑤ 양은 장과 헤어지면서 "잘 가라니 못 가라니 인사를 말기로 해. 자네는 저리로 가고 난 이리로 갈 뿐이야, 뒤도 돌아보지 마."라고 하는데, 이는 다음에 만나면 적군으로서 서로를 적대해야 하므로 인간적인 정을 털어 버리게 하기 위해서이다.

**3** 장이 양의 가슴을 때린 것은 악몽 때문이었으며, 양이 자신의 가슴을 때린 장의 얼굴을 친 것은 장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오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과 장이 서로를 때린 것을 동족상잔의 비극이 갖는 참혹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답 해설** ② 양과 장은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보기>에서 말한 이념 대립으로 인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해당한다. ③ 양과 장이 함께 아침을 먹는 것은 서로를 적군으로 인식하지 않고 한 인간으로서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④ 양이 악몽 때문에 잠결에 자신을 때렸다는 장의 말을 듣고 가슴에서 뭉클하고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는 것은, 전쟁으로 인해 악몽을 꾸는 장에 대한 연민이 포함된 것이다. 이는 <보기>에서 말한 민족애를 확인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⑤ 양이 장의 커피를 뒤야 주고 모닥불 가까이 다가갔으라고 하는 것은 장에 대한 미안함과 배려가 담긴 것이다. 이는 <보기>에서 말한 '단독 강화'의 의미인 단독으로 상대국과 강화하는 일이 개별적 인물인 양에게 적용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4** 양이 가는 것을 바라보는 장의 모습은 양에 대한 고마움과 아쉬움이 담긴 행동이다. 양이 가는 곳을 확인하여 몰래 그를 따라가려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은 장이 악몽을 꾸고 잠결에 양을 때려서 양이 느끼는 충격이다. ② 양은 자신이 지는 동안 장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여겨 ㉡과 같이 말한 것이다. ③ 양은 장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 오해였음을 알고 그에게 미안함을 느껴 ㉢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이다. ④ 장은 자신을 때린 양의 입장을 이해하여 ㉣과 같이 말한다.

**5** 양이 전쟁을 일으킨 자들을 죽이고 싶다고 하는 것은 전쟁으로 인해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전쟁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② 양이 전쟁 때문에 장과 만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다. ③ 양이 전쟁을 일으킨 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무책임한 태도 때문은 아니다. ④ 양이 자신의 무력함이나 이에 대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⑤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분석하거나 장이 자신의 의견에 동조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다.

**06 서울 1964년 겨울**

본문 048~054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4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으며,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고 있지 않다.
- 06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는 않다.
- 10 안은 부잣집 장남이지만 '나'가 그에 대해 질투를 느끼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 15 사내는 죽은 아내의 시체를 판 것에 죄책감을 느끼며 괴로워하고 있다.
- 16 죽은 아내의 시체를 판 돈을 오늘 다 써 버릴 것이라고 한 것은 사내이다.

**내신 수능 대비 문제**

1 ③ 2 ② 3 ④ 4 ① 5 ② 6 의존 7 개인적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하는 사내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소통을 거부하는 '나'와 안의 모습을 통해,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냉정한 현대인의 개인주의적 모습을 알 수 있다.

1 '나'와 안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내를 만난 후 세 사람이 함께 밤거리를 돌아다닐 때까지의 내용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소주 광고는 부지런히, 약 광고는 게으름을 피우며 반짝이고 있었고,'와 같은 감각적인 문장을 구사하고 있으며, '식민지의 거리처럼 춥고 한산했고,' 등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이 나타나 있다. ② 작중 인물인 '나'의 입을 통해 사건이 전달되고 있다. ④ 주로 인물들의 대화와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이 서술되고 있다. ⑤ '얼어붙은 거리', '차가운 바람', '영화 광고에서 본 식민지의 거리처럼 춥고 한산'한 거리 등의 배경 묘사를 통해 작중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2 사내는 "뭘 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까?"라는 '나'의 질문에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나'의 질문을 한심하게 여기며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다는 말을 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안은 오늘 낮에 아내가 죽었다는 사내의 말에 형식적으로 조의를 표하고, 아내의 시체를 판 돈을 오늘 다 쓰고 싶다는 사내의 말에도 형식적으로 대답하고 있다. ③ '나'와 안은 죽은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내를 불편해하여 그와 거리를 두며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다. ④ 사내는 '나'와 안에게 함께 있어 달라고 하는데, 이는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고 싶기 때문이다. ⑤ 사내가 아내의 시체를 판 돈을 다 써 버리고 싶어 하는 데서 알 수 있다.

3 사내가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판 것은 아내의 친정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장례를 치를 돈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가족 공동체의 해체를 암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인물의 이름이 익명으로 설정된 것은 깊이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피상적이며 형식적인 관계만을 맺는 현대 사회의 인간관계를 상징하는 것이다. ② '나'가 안과 아무 의미 없는 대화를 주고받는 것은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상실한 세태를 보여 주는 것이다. ③ '나'가 사내의 정체에 관심이 없는 것은 타인에게 무관심하며 인간적 연대감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다. ⑤ '나'와 안은 죽은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내와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하며 그로부터 도망갈 궁리를 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인정이 메마른 개인주의적 세태를 보여 준다.

4 선술집은 '차가운 바람이 필릭거리게 하는 포장을 들치고 안으로 들어서게 되어 있'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한잔하고 싶은 생각이 든 사람이나 들어올 데지, 마시면서 곁에 선 사람과 무슨 얘기를 주고받을 만한 데는 되지 못하는 곳'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로 볼 때 '나'와 안이 만난 선술집을 허름한 포장마차로 만드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새카맣게 구워진 군침새'는 '나'와 안의 대화의 소재인 파리를 연상하게 하는 소품일 뿐, 극적 반전을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③ 중국집 내부가 사내의 성격과 역할을 드러내는 곳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내의 성격이 깔끔하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아내가 죽었다는 사내의 말에 '나'와 안은 "네 어에.", "그거 안되셨군요"라며 형식적인 조의를 표하고 있으므로, 숙연한 목소리로 슬픔이 잘 드러나도록 연기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마지막 장면의 밤거리는 '영화 광고에서 본 식민지의 거리처럼 춥고 한산했'다고 하였으므로, 근대화된 도시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5 1960년대는 경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근대화가 이루어

진 시기로, 빈부 격차가 사라지던 시기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안이라는 대학원생이 부잣집 장남이라는 것과, 사내가 돈이 없어서 아내의 시체를 판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07 날개 또는 수갑**

본문 055~062쪽

**기본 실력 다지기**

03 권 씨가 등장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앞선 갈등인 제복 착용과 관련된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는 않다.

05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품이 전개될 뿐, 역순행적 구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10 장상태가 전달한 기획 실장의 말과 행동으로 보아, 기획 실장이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들고자 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14 권 씨는 눈자위를 하얗게 부릅뜨고 자리를 비켜 달라는 무언의 협박을 했다.

**내신 수능 대비 문제**

1 ① 2 ② 3 ④ 4 ② 5 ② 6 날개, 수갑 7 민도식은 권 씨의 팔 문제 가 자신들의 옷 문제보다 절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장실에서 물러난 것이다.

1 회사 제복 제정을 둘러싸고 장상태, 민도식, 우기환 간의 대화와, 장상태와 권 씨의 대화가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새로운 인물인 권 씨가 등장하지만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되고 있지는 않다. ③ 과거 회상이나 인물의 성격의 변화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④ 공간적 배경은 회사로 추정되나, 사실적인 묘사가 드러나 있지는 않다. ⑤ 동시에 일어난 사건의 병치는 나타나 있지 않다.

2 장상태는 권 씨의 옷을 보고 자신과 같은 회사 소속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장상태는 권 씨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이지, 안도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전 사원의 제복 착용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 마련을 위해 회의를 열었음에도 사원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 회사 측의 모습을 보여 준다. ③ 권 씨는 팔이 잘리는 산업 재해나 이로 인한 생계 곤란이 아니라 옷 때문에 불만을 품는 이들의 모습에 의아함을 표현하고 있다. ④ 아내가 장상태가 제복을 입고 출근했음을 민도식에게 알린 까닭은, 남편인 민도식이 회사의 방침인 제복을 착용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⑤ 민도식은 제1공장에서 열린 창업 기념일 행사에서 자신과 달리 모두 검정 끈색의 제복을 입은 사원들을 보며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3 회사가 사원에게 제복을 입도록 강제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고, 이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바람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꿈을 이루지 못하는 좌절과는 관련이 없다. ② 제복을 입지 않는 것을 개인적인 가치라고 보더라도 이 글의 주제를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조화에

대한 길망으로 보기는 어렵다. ㉓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은 드러나지 않는다. ㉔ 자유에 대한 지나친 갈구는 이 글의 주제와 거리가 멀다.

**4** 장상태가 권 씨를 보고 분노한 것은 그가 제복을 입은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 아니라, 권 씨가 연이를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비웃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장상태가 회의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은 ㉔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권 씨가 사장실에 들어서는 까닭은 공원의 필이 잘린 것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㉔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④ 아내가 민도식을 재촉하는 까닭은 ㉔의 양상으로 볼 수 있다. ⑤ 민도식이 제복 착용에 불만을 품으면서도 저항하는 대신 창업 기념일 행사 장소로 가는 것은 ㉔와 ㉔가 공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흰 새 떼’는 자유롭게 날아가는 부러움의 대상이므로, 원하지도 않는 제복을 입고 있는 회사원의 모습을 연상하는 것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창업 기념 행사에서 제복을 입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과 일제히 애국가를 경청하는 모습은 획일적이고 억압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③ 회사에서 제복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이 세상 밖’은 억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곳으로, 제복을 강요하지 않는 곳을 연상할 수 있다. ⑤ ‘주저않는다’는 것은 주어진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포기한다는 것으로, 제복을 억지로 입은 이들에게도 현 상황은 이와 유사한 심정을 갖게 한다고 볼 수 있다.

**08** 개는 왜 짓는가

본문 063~070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1 인물 간의 갈등을 통해 군사 독재 정권 사회의 어두운 면을 비판하고 있을 뿐, 공간적 배경 묘사나 이를 통한 분위기의 형성은 확 인할 수 없다.
- 07 사건이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로 회귀하는 역순행적 구성은 찾을 수 없다.
- 10 줍쌀영감은 나쁜 사람들의 이름을 자신이 기르는 개에게 붙이고 있으며, ‘또철’이라는 이름 역시 사내가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일부러 그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 14 영하는 분재를 자연의 질서와 조화에 어긋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화분 속에서 궁색스럽게 비틀리고 얽혀서 뻗어 가는 존재로 보고 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① 2 ③ 3 ④ 4 ④ 5 ① 6 신문 7 ‘오동나무’는 거침없이 뻗어 자란 것으로 자기 할 말을 다 하는 통새입거리 노인들을 상징하며, ‘분재’는 인위적으로 억압되고 억눌린 존재로 신문 기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영하를 상징한다.

**1**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으나, 서술자가 모든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영하의 시선에서 인물과 사건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로 이루어진 액자식 구성과는 관련이 없다. ③ 통새입거리 노인들과 사내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나, 인물 간의 갈등은 더 심화되어 가고 있을 뿐 오해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④ 요약적 진술이 드러나지 않으며, 특정 인물이 살아온 내력에 대한 정보도 찾을 수 없다. ⑤ 오동나무, 분재, 매미 등의 상징적 소재가 등장하지만, 이들이 인물 간의 갈등 해결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2** 사내가 순경에게 자신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 호소하는 장면일 뿐,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발언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신문은 나팔을 불라고 있는 것’이라는 발언은 신문이 제 역할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② ‘개는 짖을 놈만 봐서 꼭 짖을 때만 짖’기 때문에 못된 사람들도 더 나은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 ④ 영하는 뒤틀린 분재를 바라보며 자신이 억압된 사회에서 신문 기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을 성찰하며 반성하고 있다. ⑤ 영하는 매미 소리에서 절실한 의지를 느끼고, 자신도 매미처럼 거창한 소리는 아니지만 기사를 써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3** <보기>에서 원님은 진짜 옹고집과 가짜 옹고집을 판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A]의 순경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사건을 지켜보기만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A]의 사내와 <보기>의 옹고집은 모두 악행을 저지르는 인물로, 이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다. ② <보기>에서 옹고집이 노모를 돌보지 않는 것은 [A]에서 사내가 불효하는 모습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보기>에서 도술은 옹고집의 잘못을 깨닫게 해 주는 도구로, [A]에서 신문에 사내의 기사를 내는 것과 그 목적이 같다고 할 수 있다. ⑤ <보기>에서 옹고집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도술을 부린 도사는, [A]에서 사내와 언쟁을 하는 동네 어르신들의 역할과 견줄 수 있다.

**4** 사내는 ‘잡것’, ‘배때기’ 등의 비속어를 쓰며, 기사를 쓸 경우 가만 있지 않겠다면서 영하를 위협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줍쌀영감이 개에게 ‘또철’이라는 사내의 이름을 붙인 것은 사내를 조롱하기 위한 행동이다. ② 영하는 ‘소한테 물린 것처럼 험하게 웃고만’ 있으며 사내와 노인들의 싸움에 끼어들지 않고 있다. ③ “그리고 박 기자, 어쩔소 ~ 뭇을 신문에 낸단 말이요?”라는 월보 영감의 말로 볼 때, 노인들은 사내와의 갈등에 영하를 끌어들이려 함을 알 수 있다. ⑤ 사내가 노인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따지는 모습이나 순경에게 하소연하는 것을 볼 때, 자신의 이름과 개 이름이 같은 것에 매우 원통해함을 알 수 있다.

**5** 영하가 다시 기사를 쓸 의욕을 갖게 된 것은, 매미의 소리를 들은 이후이다. 분재를 바라보면서 영하는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자로서의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이 글의 상황과 <보기>의 ‘중략 부분 줄거리’로 볼 때 영하는 사내의 패륜과 줍쌀영감이 개에 ‘또철’이란 이름을 지어 붙인 상황에 대해 기사를 썼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③ 영하가 자신이 쓴 기사를 버린 것은 탄압적인 상황에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언론의 모습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④, ⑤ 매미가 실에 묶여 억압당한 채 죽고 만 것을 본 영하는, 억압에 짓눌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언론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되었다.

**09**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본문 071~078쪽

기본 실력 다지기

**01** ‘그’는 임 씨의 정직한 태도를 보고 임 씨를 의심한 자신을 반성하고 있을 뿐, 과거를 회상하고 있지는 않다.

- 04 임 씨와 스웨터 공장 사장 간의 갈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나, 외부 요소의 개입으로 인해 갈등이 해소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 07 ‘가리봉동’, ‘곰국’ 등의 상징적인 소재가 활용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인물의 의식 성장을 확인할 수는 없다.
- 10 임 씨는 처음에 밀천이 드는 일을 했다가 밀천을 모두 까먹은 후 밀천이 들지 않는 노가다 일을 주로 했다.
- 12 ‘그’는 임 씨가 공사를 맡아서 집주인을 속여 돈을 남기는 인물일 것이라고 의심했을 뿐, 실제로 그에게 그러한 충고를 한 것은 아니다.
- 16 ‘그’는 현실 사회의 모순된 구조에서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잘살게 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선불리 위로의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③ 2 ④ 3 ② 4 ⑤ 5 ④ 6 두터운 벽 7 도시 노동자의 고단한 삶에 대한 연민

- 1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그’라는 특정 인물에 초점을 두어 사건을 전개하면서 상세한 내면 심리까지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관찰한 내용만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주로 ‘그’와 임 씨가 서로 주고받는 대화와 행동을 통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② ‘머시’, ‘걱정이당가요’ 등의 방언과 ‘제기랄’, ‘취일 놈’, ‘상판’, ‘이 지랄’ 등의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다. ④ 집수리라는 일상적 사건과 계산서 등의 소재를 통해 당시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⑤ 임 씨에 대한 ‘그’의 심리와 태도에 변화가 나타난다.
- 2 ‘그’가 스웨터 공장 사장의 모습을 ‘빤질빤질한 상판에 배는 툭 볼 거져 나왔’다고 묘사한 것은 임 씨의 말을 듣고 그에 공감하며 추측한 것일 뿐, 실제로 ‘그’가 사장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그’는 계산서를 받아 보기 전까지 임 씨가 공사비를 부풀려서 청구할까 봐 불안해했다. ② “형씨, 형씨는 집이 있으니 걱정할 것 없소. 토끼띠면 어쩔 거여. 집이 있는데, 어디 집값이 내리겠소?”로 미루어 임 씨가 집을 가진 ‘그’를 부러워함을 알 수 있다. ③ 임 씨는 비가 와서 공사를 하지 않아 일이 없는 날에만 개인 돈을 받으려 가리봉동에 간다. ⑤ 임 씨는 갈수록 술이 취하는 데 비해, ‘그’는 ‘술기운이 확 달아나 버’림을 느끼고 있다.
- 3 가난한 소시민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 작가는 진솔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였기에 그곳에서 희망을 느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의 임 씨와 같은 인물에게서 작가가 희망을 얻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오답 해설** ① 스웨터 공장 사장은 임 씨의 연탄값을 때먹은 자로, 임 씨가 현실에 배반당한 원인을 제공하는 인물이다. ③ 임 씨와 밥을 먹는 동안 ‘그’가 가진 심리는 의심과 불만으로, 작가가 이해한 멀고 아름다운 동네의 의미와는 관련이 없다. ④ 작가가 처음에 원미동에 대해 낭만적인 몽상이 없었던 이유는, 출신이 임박한 상황에서 촉박한 이사를 해야 하는 현실적 상황 때문이지, 임 씨처럼 현실에 배반 당해서가 아니다. ⑤ ‘그’가 임 씨에게서 느낀 감정은 미안함과 자기반성이며, 작

가가 동네 이름에서 느낀 것은 소시민적인 삶의 희망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다. 따라서 이들을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4 ‘그’는 임 씨가 울분을 토로하는 장면에서 위로를 하려 했으나 그의 기세에 눌려 말을 잊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가 임 씨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㉔에서 임 씨의 말을 통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힘겹게 살아온 임 씨의 내력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② ㉓에는 ‘주인 속여 남긴 돈은 다 뭇하누’와 같이 임 씨에 대해 편견을 지닌 ‘그’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③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④ ㉔에서 ‘그’는 임 씨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스웨터 공장 사장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상상하는데, 이를 통해 임 씨에게 공감하게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5 ㉔(지하실 방)은 임 씨가 정직하게 일해도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현실적 모순이 반영된 공간이며, ㉓(맨션아파트)은 연탄값을 때먹은 스웨터 공장 사장이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여 잘살고 있는 공간이다.
 

**오답 해설** ① ㉔은 정직하게 일해도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현실적 모순이 반영된 공간이 맞지만, ㉓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 공간은 아니다. ㉔ 또한 부당한 부의 축적이라는 현실적 모순이 반영되어 있다. ② ㉓과 ㉔ 모두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는 공간이다. ③ ㉓은 임 씨의 현실적 한계와 문제를 담은 공간이지만, 임 씨가 ㉔에서 살고자 하는 지향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⑤ ㉓은 임 씨의 처지를 부각하는 공간이지만, ㉔에서 인물 간의 공감과 이해를 찾을 수는 없다. 오히려 ㉓과 ㉔의 비교를 통해서 임 씨의 울분이 강조되고 있다.

**10 마당 깊은 집**

본문 079~086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3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로, 아이의 시점(과거)과 어른의 시점(현재)이 혼용되어 나타날 뿐 서로 다른 인물이 서술자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 07 집의 위치와 아래채의 계층 간 구조가 나타나 있으나, 이들의 대립적 관계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 11 위치에 사는 사람들은 주인집으로, 전후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
- 13 어머니가 ‘나’에게 신문을 팔라고 한 것은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가 세상살이를 몸으로 겪어 경험을 쌓기를 바라서이다.
- 16 안 씨가 ‘쥐가 소쿠리를 벗기고 밥그릇을 뒤졌다’고 종알거렸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나’가 음식을 훔쳐 먹은 것을 처음부터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③ 3 ② 4 ⑤ 5 ④ 6 ㉔: 평양댁 정민이 학생, ㉓: 준호 아버지 7 집주인과 피란민 가족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전후의 삶의 모습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당대 사회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다.



1 '나'와 어머니, 안 씨 간의 뚜렷한 갈등 관계는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나'가 어릴 적 자신이 겪었던 일들에 대한 회고와 현재 시점에서의 판단 등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② '나'가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어린 시절에 겪었던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③ '나', 어머니, 안 씨 등 인물들은 경상 지역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④ 6·25 전쟁 이후 피해해진 국민들의 삶, 특히 집을 잃고 먹을 것이 없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의 이야기를 잘 보여 주고 있다.

2 어머니는 '나'가 경험을 쌓을 수 있게끔 밑천을 제공하고 살아야 할 길을 알려 주는 존재이며, 안 씨는 '나'가 밥을 훔쳐 먹는 것을 알고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존재이다.

오답 해설 ① '나'가 경험을 통해 돈의 소중함을 배우도록 엄격히 가르쳐 준 사람은 어머니이다. ② '나'에게 돈 80원을 준 사람은 어머니이다. ④ '나'가 밥을 훔쳐 먹은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 경우의 곤란한 입장을 고려하여 배려를 베풀어 준 사람은 안 씨이다. ⑤ '나'에게 평양댁 정민이 학생이나 준호 아버지 등에 대해 알려 주면서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본받도록 이야기한 사람은 어머니이다.

3 어머니는 위체와 아래체의 상황은 많이 다르므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위체를 올려다보며 꿈을 그린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어머니가 재봉틀 서랍에서 꺼내어 '나'에게 80원을 준 것은, 바느질 일로 형제들을 키운 실제 이야기의 반영임을 알 수 있다. ③ "세상이 쓴맛을 알라 카모 그런 경험이 좋은 약이 될 테이께."와 같이 어머니가 '나'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 하는 말들을 통해 엄한 훈육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나'가 주인집의 남은 밥을 훔쳐 먹는 것은 전쟁 이후 하루 세끼 밥 먹기도 힘들었던 당시 서민들의 삶을 반영한 것이다. ⑤ 작가는 비록 가난했지만 이웃들을 떠올리며 절망이 아닌 희망을 그리고 싶었으므로, '나'가 안 씨의 타이름을 들은 이후 올바른 삶을 살게 된 것으로 표현하였다.

4 안 씨가 '나'에게 말하는 내용을 보면, '나'의 잘못을 감싸 주며 '나'를 배려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안 씨의 답답한 심리가 드러나도록 한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다. 오히려 해당 장면에서는 '나'를 화면의 중심으로 잡아 반성과 고마움의 마음이 드러나도록 촬영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어머니가 '나'에게 80원을 주며 신문을 팔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강하게 키우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에서 '아직 마흔 살도 안 된 나이에' '노인 티를 내고 있'다고 했으므로, 삶의 고단함이 느껴지도록 분장할 필요가 있다. ③ '길거리나 어슬렁거리다 ~ 내뿜을지도 몰랐다.'에 따라 '나'가 어머니의 말을 따르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는 장면을 담아볼 수 있다. ④ '나'가 위체 부엌에서 밥을 훔쳐 먹는 장면에서는 누군가에게 들릴까 봐 긴장하는 얼굴을 화면에 잘 담기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5 '술집 증노미'나 '장들뱅이'는 '나'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의 나쁜 상황을 가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나'가 어머니의 뜻을 따라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강조하며 한 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나'의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농사꾼이 하늘만 본다고 해서 양식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위체만 부럽다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② 마흔도 안 된 어머니가 노인 티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고생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③ 세상 파도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서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로 볼 때, 어머니는 '나'가 몸으로 경험을 쌓기를 바랄 수 있다. ⑤ 안 씨가 '나'의 잘못을 타이르는 것은 '나'가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안 씨의 배려이다.

11 속삭임, 속삭임

본문 087~094쪽

기본 실력 다지기

03 주로 '나'의 고백에 의해 심리가 드러나고 있으며, 인물 간의 대화는 제시되지 않았다.

05 분단된 현실로 인해 공산주의자였던 아재비가 아버지의 과수원에 숨어 살았지만, 인물 간의 갈등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12 '나'의 가족이 과수원을 팔게 된 것은 인력도 달렸을 뿐더러, 아버지의 투병으로 진 빚을 감당하기 위해서였다.

16 '나'는 아재비가 도망자였다는 사실을 그의 장례를 치르러 가서야 알게 된다.

내신 수능 대비 문제

1 ③ 2 ① 3 ⑤ 4 ② 5 ① 6 과수원 7 아재비가 '나'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던 사물로, 아재비와 '나'의 유대감을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1 1인칭 서술자인 '나'가 자신이 어린 시절에 겪은 일들에 대한 기억을 고백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나는 그럴 때의 그들이 제일 아름다웠다고 생각한다.',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 '안온한 미소' 등과 같이 과거의 기억에 부여한 의미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늑연하게 푸른 하늘에 미세한 실타래를 그리고 있는' 과수원의 나무들이나, '집 앞에 내놓은 평상 위와 과수원의 좁은 길들, 아산 밑에 파여진 호수 주변' 등에서 공간을 묘사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인물의 태도가 변화하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인물 간의 대화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과거 사건이 비현실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도 아니다. ④ 서술자는 '나'로, 시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가 달라지지 않는다. ⑤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의 시선을 취할 수 있는 서술자는 전지적 서술자이다. 이 글의 '나'는 1인칭 서술자이다.

2 '나'는 어린 시절에 과수원에 있던 호수를 자랑거리로 생각했다.

오답 해설 ② 남편은 '과수원지기 아저씨(아재비)의 존재에 대해 들을 만큼 들었'으나, '나'가 남편을 통해 위로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③ '나'는 아재비가 도망자였다는 사실을 안 후 그에 대한 미움마저 느꼈는데 그 미움은 오래 가지 않았다고 했으며, 아재비를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④ 아버지와 아재비는 서로 이념이 달랐지만 의형제처럼 잘 지냈다고 하였다. ⑤ 채송화 화분은 '나'에 대한 아재비의 애정이 표현된 사물이다. 그가 가진 의지가 무엇인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3 아재비는 사고가 변하지 않은 채로 일생을 살았고 그것을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그다지 숨기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는 '나'가 ㉠에 적혀 있는 것을 통해 아재비가 과수원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그의 신념에 변화가 없었다고 짐작했음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나'는 아재비의 편지 심부름을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어투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는 ㉠도 마찬가지이다. ② ㉠에는 자연을 읊은 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했다. ③ 아재비가 일생 동안 붙잡고 있었던 생각들이 ㉠에 두서없이 채워져 있었으므로, 어린 '나'가 아재비의 생각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④ 아버지와 아재비는 매우 친밀하게 지냈지만 ㉠에 아버지와 아재비의 관계가 적혀 있었던 것은 아니다.

4 아버지는 아재비의 불안한 신원을 알고도 그의 바람막이가 되어 준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아버지가 아재비의 어깨에 팔을 얹어 기대고 불편한 몸을 움직이며 짧은 산책을 하는 모습과, 의형제처럼 지내는 아버지와 아재비의 모습에서 알 수 있다. ③ ‘나’는 호숫가에 앉아서 볼 수 있는 풍경들에 애정 어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④ ‘나’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과수원은 인력이 부족하고 아버지의 오랜 투병으로 인한 빛 때문에 보전되지 못했다. ⑤ 어린 시절 ‘나’는 자신이 다니는 국민학교에서 아버지가 반공 강연을 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어깨를 으쓱했다.

**5** ‘나’가 딸에게 ‘자꾸 수다를 떨고 싶’다고 하는 것은 딸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미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 즉 이념이 서로 달랐던 아버지와 아재비가 대립하지 않고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딸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에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을 이해하려는 ‘나’의 소망이 투영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③ ‘나’는 ‘황폐’한 과수원을 보며 ‘평화’를 느끼는데, 이는 ‘나’가 어린 시절 과수원에서 아버지와 아재비가 ‘단둘이서’ 속삭이며 조화와 화해를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과수원의 ‘낮익은 풍경들 하나하나’에 애정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화와 화해는 과수원의 ‘평화’와 어울려 대립을 초월하는 화해와 공존에 대한 지향이라는 주제 의식을 형성한다. ④ 아재비와 아버지의 속삭임은 과수원의 ‘평상 위’, ‘좁은 길’, ‘호수 주변’ 등 사방에서 귀만 기울이면 들을 수 있는 것이었다. 이는 그들의 속삭임이 공간과 연계되어 과수원을 가득 채우는 것이었음을 나타낸다. ‘바람 소리 같은 그들의 속삭임’은 이처럼 과수원의 여러 공간과 연계되었기에 ‘나’는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그 속삭임을 잊지 못하는 것이다. ⑤ ‘그늘에 쉬고 있던 먼지 덮인 자전거의 바퀴가 동글동글 소리 없이 홀로 돌기 시작’하는 것과 ‘세상의 모든 속삭임이 물이 되어 흐’르는 것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환기하는 것으로, ‘나’가 딸에게 하는 속삭임에 해당한다. <보기>에서 ‘나’가 딸에게 하는 속삭임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환기하는 내용을 통해 주제 의식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 PART 2 | 극·수필

### 01 살아 있는 이중생 각하

본문 096~102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2** 인물의 내적 갈등보다는 이중생의 가짜 죽음이라는 사건에 대한 인물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05** 이중생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모습을 통해 당시의 사회상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지 가족의 해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 10** “영감, 왜 노망이슈. 누가 당신 서사구 머슴인 줄 아슈. 누구에게 욕설이구 누구에게 패담이야!”라는 최 변호사의 대사를 통해 모멸감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2** 송달지는 이중생의 뜻에 따르지 않고 그가 지키려던 재산을 무료 병원을 설립하는 데 쓰고자 하였다. 이중생과 하주가 그런 송달지의 행동을 탓하자 “난 의견두 없구 생각두 없는 천치 짐승이란 말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므로 죄책감을 느낀다고 할 수 없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③ 3 ④ 4 ③ 5 ④ 6 구차스러운 수의 7 비판의 대상인 이중생에게 특정한 고급 관료에 대한 경칭인 ‘각하’를 붙이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주인공에 대한 조롱과 아유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1** 이중생에 의해 강제로 징용을 갔던 아들 하식이 등장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마지막 부분에서 이중생의 독백을 통해 지키려 했던 재산도 잃고 자식에게도 부정당해 진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② 결국 국 재산을 지키지 못하게 된 이중생이 가짜 죽음을 함께 모의한 최 변호사에게 욕설을 하며 대립하고 있다. ③ 이 글의 지시문은 주로 인물들의 행동에 대해 서술하여 그 배역을 연기할 배우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⑤ 이중생이 무대에 홀로 남았을 때 들리는 독경 소리는 이중생의 비참하고 쓸쓸한 처지를 더욱 부각시킨다.

**2** 박 씨는 이중생이 진짜 죽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중생의 장사 전에 아들 하식이 돌아온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형님은 참 유복두 허시지.”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반어적 표현을 통해 이중생을 비꼬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최 변호사와 모의하여 자살한 것으로 꾸미기까지 하였지만 결국 재산을 지키지 못하게 된 이중생이 최 변호사의 탓을 하자, 밥을 들먹이며 수수료를 받으려 하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송달지가 이중생의 유산으로 무료 병원을 짓겠다고 한 일에 대해 아내인 하주가 “뭣이 잘났다구 쟁건했”냐고 탓하는 부분에서 하주가 이중생과 같은 입장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송달지가 이중생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남겨진 재산을 무료 병원 설립에 쓰겠다고 함으로써 가짜 죽음으로 재산을 지키려던 이중생의 계획이 좌절되었다. ⑤ 하식이 이중생에게 “구차스러운 수의를 벗으”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그의 어리석은 탐욕을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마지막에 홀로 남은 이중생이 면도칼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잃고

‘벗지 못할 수의밖에’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또한 <보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작가가 정의롭고 건강한 새로운 세대로 전환하기를 바라는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작가가 당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전망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오답 해설** ① 자신이 죽은 것처럼 꾸미면서까지 재산을 지키려는 모습은 이중생의 탐욕스러움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② 이중생은 일제 강점기에 아들이나 하식을 술선해서 징용에 내보내면서까지 치부를 한 전형적인 친일파이다. 따라서 하식의 말은 일제 강점기에 친일 세력들이 저지른 반민족적 행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③ 이중생이 재물의 획득과 유지에 위해서는 사기, 횡령, 탈세 등 그 어떠한 일도 서슴치 않았음을 드러낸다. ⑤ 이중생은 부패한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이러한 인물이 몰락하는 결말을 통해 낡은 기성세대로부터 정의롭고 건강한 새로운 세대로 전환하기를 바라는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4** [A]는 이중생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쓴 유서가 오히려 재산을 빼앗기는 빌미가 된 상황에 대해 최 변호사를 비난하며 따지는 상황이고, [B]는 이중생이 재산을 보전하려고 죽음을 위장하다가 ‘소송할 데 두 없구 말 한마디 할 수도 없게’ 된 억울한 처지에 놓였음을 하식에게 장황하게 토로하는 상황이다.

**오답 해설** ① [A]에서 이중생은 최 변호사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을 뿐 그의 이기적인 생각을 비판한다고 볼 수 없으며, [B]에서 이중생이 하식에게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그의 도움을 얻어내고자 한다고 볼 수 없다. ② [A]에서 이중생이 최 변호사를 비난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며, [B]에서 이중생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일반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이중생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B]이며, [A], [B] 모두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A]와 [B] 모두 논리적 근거를 들어 상대를 공격하고 있지 않다.

**5** 이중생은 하식이 징용에서 십 년 만에 돌아왔음에도 재산에만 관심을 보이고 하식이 “제 이야긴 왜 하나도 묻지 않으십니까?”라고 말하자 그제야 “오 참! 그래 얼마나 고생했니?”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차분하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이중생의 가짜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므로 초상집임을 나타내는 소품이 필요하다. ② 하식이 퇴색하고 낯익은 사람처럼 서 있는 이중생의 비참한 모습을 부각하는 방법으로 독경 소리를 키우는 것은 적절하다. ③ 육식 아버지가 총총히 등장하면서 하식이 왔다는 소식을 경사로운 일이라며 전하는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모든 것을 잃은 이중생이 무대 위에 홀로 남은 상황이므로 이를 표현하는 배우에게 조명을 비추는 것은 적절하다.

**6** 이중생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탐욕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위장하고 수의를 입는다. 그런데 하식은 그런 이중생의 모습을 보고 창피하지도 않느냐며 ‘구차스러운 수의’를 벗으라고 말한다. 따라서 살아 있는 이중생이 죽은 자의 행세를 하기 위해 입고 있는 수의는 탐욕을 상징하며, 이를 구차스럽다고 한 하식의 말을 통해 그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

**02** **한시 연대기**

본문 103~110쪽

**기본 실력 다지기**

**02** 한영덕과 박가와와의 외적 갈등은 짐작할 수 있지만, 이러한 외적 갈등의 해결 과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05** 한영덕과 한영숙의 대화에서 한영덕은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 이는 한영덕이 고문으로 인해 피폐해진 상태를 드러내는 것으로,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킨다고 할 수 있다.

**06** 지시문을 통해 인물의 행동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를 통해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10** 한영덕은 고문을 받아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어서 한영숙을 몰라보고 있는 것이지, 일부러 한영숙을 모른 채한 것은 아니다.

**14** 한혜자는 한영덕이 이전에 의사였는지 모르고 있었다.

**17** 한영덕은 염을 잘하는 이유를 묻는 강 노인에게 말을 하려다 말고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린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③ 2 ④ 3 ③ 4 ⑤ 5 ⑤ 6 ② 7 관객에게 한영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설자 역할을 한다.

**1** 강 노인은 한영덕이 염을 잘하는 것을 보고 그가 예전에 사람 몸을 다루었을 것이라 짐작하고 있다. 그러나 강 노인이 한영덕이 의사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박가, 아놈의 새끼 무고죄로 고소하겠시오.”, “그놈의 새끼 ~ 출출 뿌리겠시오.”라는 말을 통해, 한영숙이 박가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② “난, 아버지가 의사였는지도 몰랐으니까요.”를 통해, 한혜자가 한영덕의 과거 이력을 몰랐음을 알 수 있다. ④ 한영덕은 강 노인에게 자신의 편을 짜 달라고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한영덕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난 그가 살았던 시대를 새롭게 실감했기 때문이죠.”를 통해, 한혜자가 한영덕의 삶을 그가 살았던 시기와 결부하여 이해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지시문에서 강 노인은 ‘허름한 옷차림’을 했다고 하였으므로 깔끄한 모시 적삼을 입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한영덕과 한영숙, 한영덕과 윤미경, 한영덕과 강 노인은 서로 대사를 주고받는 반면에 한혜자는 관객을 대상으로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으므로 해설하듯이 대사를 해야 한다. ② ‘차트 14’에 ‘1972년 서울’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지시라 할 수 있다. ③ 마지막 장면에서 한영덕이 관 앞에 쓰러져 누우면서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는데, 그 직전에 한혜자가 한영덕의 죽음을 알리고 있으므로 어두운 느낌의 배경 음악을 깔아 달라는 지시는 적절하다. ⑤ 한영덕은 고문으로 인해 동생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고 있으며 겁에 질려 있으므로 적절한 지시라 할 수 있다.

**3** [A]에서 한영덕은 한영숙을 몰라보며 ‘기겁을 하고 몸을 사’리면서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한영덕의 모습은 간첩이라는 죄목으로 잡혀가서 고문을 받아 정신적으로 피폐해졌기 때문이지, 자신의 본심을 숨기기 위해서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한영숙이 “오라바니, 저야요, 영숙이야요.”, “나 영숙이야요.”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무조건 빨갱이라고 몰아세우면 ~ 가서 실란 말이야요?”라는 한영숙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한영숙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한영덕의 모습을 보면서 한영덕을 고발한 박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⑤ 한영덕은 한영숙을 알아보지 못한 채 한영숙과의 면회 상황에 맞지 않는 전혀 다른 말, 즉 고문을 받을 때 했던 말을 하고 있다.

4 ㉔에서 한혜자는 자신의 아버지 한영덕에 대한 기억을 털어놓고 있을 뿐, 한영덕과 갈등하는 내용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또한 한영덕과 강 노인의 대화가 갈등 해결 방안을 다루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답 해설 ① ㉔의 극 중 시간은 현재이고, ㉕의 극 중 시간은 과거이다. ② ㉔와 ㉕는 서로 다른 공간과 시간에서 벌어지는 사건임에도 병렬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③ ㉔에서 한혜자는 일방적인 말하기를 통해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기억을 털어놓고 있다. 반면에 ㉕에서는 강 노인과 한영덕의 대화를 통해 장면을 보여 주고 있다. ④ ㉔에서 아버지 한영덕에 대한 한혜자의 기억을 통해 한영덕이 가출하여 염을 하며 살아가기까지의 상황을 관객들이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5 한영덕이 휴전이 되었다는 윤미경의 말을 듣고 허탈해하는 것은 피난민인 자신이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의사로 살아갈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것과 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한영덕은 박가에게 고발당한 후 징역형에 처해지는데, 이로 인해 이후 가족들과도 떨어져 살게 되고 의사로서의 삶이 아닌 염하는 삶을 살게 된다. 따라서 이는 한영덕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② 한영덕을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세우며 고문한 것을 통해 한영덕이 이념의 희생양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녹슨 기관차’는 더 이상 남북을 오가지 못하고 폐허가 된 곳에 방치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을 잘 보여 주는 소재라 할 수 있다. ④ 한영덕은 염을 하는 삶을 살다가 죽게 되는데, 이는 그가 당시의 시대 현실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가 아닌 염하는 삶을 살다가 죽은 한영덕의 모습은 시대 현실에 휘말려 고통받던 한영덕의 삶의 아픔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6 ‘아무 일도 아니’라는 윤미경의 말로 보아 ㉔에는 한영덕이 곧 풀려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담겼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한영덕은 동생인 한영숙을 알아보지 못하고 ㉔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한영덕이 간첩죄로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㉔은 한영덕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㉔은 무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한영덕에 대한 판결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④ ‘망치 소리’는 한영덕에 대한 판결을 확정 짓는 판사의 판사봉 소리로, 한영덕의 안타까운 운명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한영덕은 딸이 있음에도 ㉔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이는 한영덕의 비참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03 북어 대가리

본문 111~118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3 자양이나 기림을 시련을 겪으며 성장해 가는 인물로 보기 어렵다.
- 05 윤전수를 현실에 대해 냉철한 시각을 지닌 인물로 볼 수도 있지만, 윤전수의 시선으로 사건을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07 기림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기림의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지는 않다.
- 13 윤전수는 딸기코와 외눈같이 서로 얼굴을 볼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자양에게 전달할 뿐, 그들이 만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다.

19 기림은 살림을 다 가져가자는 다령의 말에, 절반만 자기 것이라고 하며 다령이 트렁크에 담은 것들을 다시 꺼내 놓는다.

#### 내신 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③ 3 ⑤ 4 ⑤ 5 ⑤ 6 ③ 7 참고 8 ‘북어 대가리’는 몸뚱이를 잃어버린 채 딱딱하게 굳은 머리만 남아 있다는 점에서, 판단력과 주체성의 부재로 방향성을 잃고 살아가는 현대인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1 같은 창고이지만, 성실한 원칙주의자인 자양과 적당히 일하며 창고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기림의 모습을 통해 분업화되고 획일화된 산업 사회에서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비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이 교차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자양과 기림이 성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자양은 주어진 현실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기림은 창고 밖 세상에 대한 인식도 없이 창고를 떠날 뿐이다. ④ 배경인 창고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공간이 아니라, 획일화되고 분업화된 산업 사회를 상징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⑤ ‘북어 대가리’라는 상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 시대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 기림은 자양과 자신이 함께 쓰던 물건들을 모두 챙기려는 다령을 만류하고 있는데, 이는 자양을 배려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다령은 홀로 남은 자양에 대한 배려 없이, 자양과 기림이 함께 쓰던 물건까지 모두 챙겨 가져간다. ② ‘빌어먹을, 이 창고 속을 보라구! ~ 먹고 자는 생활도 이 창고 속에서 하고 있잖아!’라는 기림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난 말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싣고 왔다가 그냥 실어 가는 거라구.’라는 윤전수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상자를 싣고 가는 곳에 내 편지를 갖다주면서,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면 되거든요.’, ‘영똥하게 바뀌어진 상자 하나 때문에 뭔가 잘못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로 볼 때, 자양은 자신이 보낸 상자가 어디로 가는 지, 그것으로 무엇이 만들어지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기림이 자신이 만나는 여자의 이름이 다령이라고 한 것은 모두들 그 여자를 보면 마이 다령이라고 부른다고 해서이다. 이는 바람둥이라는 인물의 특성을 이름으로 드러낸 것으로 서로 가까워지기를 꺼리는 현대 사회의 각박한 세태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④ 성(姓)을 길게 늘여서 부르는 자양과 기림이라는 명칭, 이를 대신 부르는 노름꾼이라는 별명 등은 현대인의 익명성을 보여 준다. ② 직업으로 사람을 부르는 윤전수라는 명칭은 인간을 도구처럼 여기는 현대 사회의 인식을 보여 준다. ③ ‘딸기코와 외눈같은 내가 붙인 별명인데, 물론 진짜 이름이야 있겠지.’라는 윤전수의 말로 볼 때, 그는 동료들의 이름조차 알지 못한 채 별명으로 부르는 것을 알 수 있다.

4 ㉔에서는 서류를 상자가 잘못된 것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근거로 여기며 항변하고 있을 뿐, 호기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㉔에는 “그건 본명이 아니라 별명 같은데?”라는 자양의 반응에 대한 기림의 불쾌함이 드러난다. ② ㉔ 앞에서 기림은 “상자들을 운반하고 보관하는 일이 지겨워 죽겠는데, 먹고 자는 생활도 이 창고 속에서 하고 있잖아!”라고 말하는데, 자양은 이에 대해 “일하는 것과 사는 것은 같은 거”라고 하고 있다. 이로 볼 때 ㉔에서는 이러한 자양의 말이 못마땅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 것이 적절하다. ③ ㉔에는 편지를 전달하려는 자양의 간절함이 드러난다. ④ 윤전수는 편지를 전해 달라는 자양의 부탁을 수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㉔에서 거침없는 태도로 편지를 찢는 것은 적절하다.

5 ‘편지’는 자양과 윤전수 사이의 언쟁을 유발하지만, 이를 통해 자양이 윤전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서류'는 지양이 상자의 주인(자신이 하는 일의 실체)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로 생각하는 것으로, 지양은 '서류'를 판단과 행위의 기준으로 여긴다. ② "내 아내는 옛날에 죽었는데 사망 신고를 안 했거든. 그래서 구청에서 호적을 떼어 보면 지금도 서류상으로는 버젓하게 살아 있는 것으로 나온다구."라는 운전수의 말로 볼 때, 운전수가 '서류'를 신뢰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③ '편지'를 전달해 달라는 지양과 이를 거부하는 운전수 사이에 언쟁이 일어나고 있다. ④ 지양은 '편지'를 통해 상자가 잘못 전달된 것을 바로잡으려 하고 있다.

**6** 창고 안의 성실함이 창고 밖에서는 큰 잘못이 될 수도 있다는 운전수의 말은, 현대 사회가 거대한 조직이 되고 그 조직의 각 부분들이 자신의 역할만 수행하는 상황에서, 부분에 불과한 개인의 성실함이 반드시 전체 사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이름을 모른 채 딸기코, 외눈깔, 노름꾼과 같이 별명만으로 부르는 것을 통해 현대 사회의 익명성을 알 수 있다. ② 운전수는 상자들의 전체적인 이동 경로를 알지 못한 채 지시에 따라 운반만 하는데, 이는 기계의 부품처럼 단순하고 반복되는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④ 상자의 운송을 맡고 있으면서도 상자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은 일의 진행 과정에서 주체가 되지 못하고 소외된 현대인의 모습을 뜻하며, 이를 통해 파편화된 현대 사회의 모습을 알 수 있다. ⑤ 같은 정거장에서 일하는 접수 반장과 분배 반장이 서로 얼굴 한번 볼 수 없다는 것은 소통이 단절된 현대 사회의 모습을 보여 준다.

**04 언어 공주**

분문 119~126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5 공간적 배경이 자세하게 묘사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 07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두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
- 12 나영이 첨마울로 간 것은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였다.
- 15 나영이 해녀 2 대신 전보를 보내 주겠다고 하자 해녀 2는 매우 고마워하며 어쩔 줄을 몰라 한다.
- 17 연순이 진국을 만날 생각에 설레는 것은 맞지만, 나영은 서운함이 아니라 뿌듯함을 느낀다.

내신 수능 대비 문제

1 ⑤ 2 ③ 3 ③ 4 ① 5 ① 6 서랍장 7 나영이 훔칠 자신의 아버지가 되는 진국에 대한 엄마 연순의 짝사랑을 알게 됨으로써 두 사람이 만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1** 시간이 현재에서 과거로 이동하고 있을 뿐, 다른 장소에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서랍장'이라는 소재를 두고 나영과 엄마 연순이 갈등하고 있다. ② 나영이 연순과 진국을 만날 수 있도록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③, ④ 나영은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통해 순수했던 젊은 날의 엄마를 만나 엄마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다. 따라서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는 시간 여행이라는 환상적 요소를 통해 엄마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임으로써 엄마와의 갈등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얻는다고 볼 수 있다.

**2** 과거(S# 53.~S# 56.) 연순이 나영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잘 드러나 있지 않다. 따라서 전보가 나영에 대한 연순의 책임감을 암시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연순은 우체부 진국을 만나기 위해 전보 내용을 암기한 후 쪽지를 들고 급하게 뛰어간다. 따라서 전보는 진국에 대한 연순의 호감과 관심을 보여 주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② 나영은 연순이 진국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해녀 2로부터 쪽지를 받아 연순에게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전보는 연순과 진국을 만나게 하는 조력자로서의 나영의 역할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④ 해녀 2는 관씨네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내용의 전보를 보내기 위해 큰일 났다고 말하며 급하게 서두르고 있으므로, 전보는 이웃에 대한 해녀 2의 걱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⑤ 연순은 전보를 보낸다는 구실로 진국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

**3** 나영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엄마의 가난하고 힘든 젊은 시절에 대해 연민을 느끼면서 엄마도 자신처럼 풋풋한 첫사랑의 경험이 있었음을 깨닫고 동질감을 느끼는 것이다. 나영이 도현과의 관계에서 엄마와 동일한 경험을 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 시간 여행을 통해 갈등 해소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영과 엄마 연순은 서랍장을 사이에 두고 갈등하는데, 나영은 버려진 서랍장을 주워 오는 억척스러운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연순은 진국을 생각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전보를 구실로 그를 보기 위해 우체국으로 뛰어가고 있는데, 이는 진국을 짝사랑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⑤ 도현이 젊은 시절 엄마 연순의 사진을 보며 나영과 똑같다고 말하는 것은, <보기>에서 젊은 시절 엄마 연순과 딸 나영을 동일한 배우가 연기하여 설득력을 높인다고 한 내용과 관련된다.

**4** <보기>를 통해 [A]는 나영이 엄마에게 미소 짓게 되는 계기가 드러나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S# 53.~S# 56.을 통해 나영이 현실의 억척스러운 모습과는 달리 연순의 순수한 모습을 보며 엄마에 대해 새롭게 이해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는 나영이 몰랐던 엄마의 순수함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는 에피소드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A]에 해당하는 부분은 나영이 태어나기 전의 일이므로, 나영이 그리워하던 과거의 추억을 다시 경험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현실의 엄마는 억척스러운 반면, [A]의 연순은 순수하고 풋풋한 모습이다. 그러나 [A]에 엄마가 현실 속의 모습처럼 억척스럽게 바뀐 이유가 나타나 있지는 않다. ④ 나영은 연순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엄마를 이해하고 진국과 만날 수 있도록 도움 뿐, 엄마와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지는 않다. ⑤ 나영이 현실에서 짜증스러워하는 태도나 엄마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보아 현실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A]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지는 않다.

**5** 엄마 연순과 전화 통화를 하는 나영의 대사만 나타나 있으며, 엄마 연순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긴 상황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엄마 연순과 나영의 모습을 각각 촬영하여 하나로 이어 붙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엄마 연순이 나영을 가로등 빛이 있는 쪽으로 이동시켜 나영의 얼굴을 보려 하고 있으므로, 나영의 얼굴이 잘 드러나도록 조명을 배치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나영이 주위를 둘러보며 연순을 찾고 있는데 멀리 진국의 자전거가 오는 것이 보이는 상황이므로, 두 장면을 한 화면에 담는 것은 적절하다. ④ 화면 가득 주소가 쓰인 종이가 보이고 그 위로 나영의 목소리가 들리는 장면이므로, 화면에는 종이만 클로즈업하여 담고 나영은 목소리만 들리게 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뛰어가는 연순의 뒷모습을 나영이 보고 있으므로, 달리는 연순의 뒷모습을 나영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촬영하는 것은 적절하다.

05 웰컴 투 동막골

본문 127~134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5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을 삽입하고 있지 않다.
- 12 현철이 인민군에게 마을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한 것은 마을 주민들을 위협에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촌장이 마을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다.
- 15 치성이 수류탄을 꺼내 든 것은 자신들이 빈총을 가지고 있음을 국군에게 들켜지 않기 위해서이다. 또한 치성이 속한 인민군이 국군보다 한 명 더 많으므로 수적으로 열세인 것도 아니다.
- 18 현철의 조롱에 영희는 화를 낸다기보다 무안해하고 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④ 3 ④ 4 ③ 5 ④ 6 수류탄 7 동막골은 전쟁과 대립이 없는 평화로운 이상적 공간이다.

- 1 대치하고 있던 군인들이 모두 잠드는 장면을 통해 두 집단 간의 긴장 관계가 변화될 것을 암시하고 있으므로, 대립과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적으로 보여 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6·25 전쟁이라는 실제 사건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② SF 280에서 빗방이 날리는 것 같은 ‘팍팍 비’를 통해 환상적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동막골이라는 공간의 신비로움을 부각하고 있다. ③ 남북 분단과 이념의 대립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동막골 사람들이 지닌 순수함과 인간애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해결 방안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⑤ 소총 가능지로 적군의 얼굴을 보는 장면, 바닥에 떨어지는 팍팍이 점점 흐릿하게 보이면서 페이드아웃되는 장면 등 다양한 영상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 2 달수 처가 현철에게 말을 전해 주겠다고 한 것은 국군과 인민군 간의 대립을 이해하지 못한 채 순수한 의도에서 한 말이다. 따라서 말을 전해 주겠다면서 위협에서 벗어나려 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촌장은 국군과 인민군 사이의 대립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눈치 없이 끼어들어 말하고 있는 석용의 이름을 지긋이 부르며 그를 제지하고 있다. ② 달수는 인민군에게 “안 들려요? 부르는 거 같은데...”라며 국군이 부르는 말에 대답하라 하고 있다. 이는 국군과 인민군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말이다. ③ 상상은 수적으로 밀린다는 이유로 인민군과의 대적을 피하고 싶어 한다. “그냥 지나쳐 가지니까... 왜 여기까지 와 가지구...”라는 말을 통해 인민군과 대적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의 진심을 알 수 있다. ⑤ 현철은 “죄 없는 부락 사람들 피해 주지 말고 일단 나가자...”라고 하면서 마을 밖으로 나갈 것을 치성에게 제안하고 있다.
- 3 현철이 수류탄을 몸으로 막은 것은 국군과 인민군이 적대시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그의 희생정신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가 동막골 사람들의 인정 넘치는 삶에 감화된 이후 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마을 사람들은 전쟁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군인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② 강원도의 산골 마을인 동막골을 배경으로 하여 외부와 단절되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③ 국군과 인민군이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수류탄을 꺼내 드는 것은 상

대방을 적대시하는 모습에 해당한다. ⑤ 팍팍 비가 내리는 환상적 장면을 통해 동화적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동막골이라는 공간이 지닌 순수하고 신비로운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 4 이 글은 이념의 대립을 넘어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적 세계를 지향해야 함을 전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전쟁으로 인해 힘겨운 서민들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④ 진실을 호도하는 권력층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초월적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 5 ㉠은 당장 목숨이 달린 심각한 대치 상황임을 알지 못하고 뗏목으로 인한 피해를 더 걱정하는 동막골 사람들의 순수한 모습을 부각하는 것으로, 집단적 무지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자기들은 셋이고 저쪽은 둘이므로 먼저 행동하여 국군을 없앨 것을 제안하고 있다. ② 총알이 없는 상황임을 근거로 하여 치성에게 국군을 도발하지 말라며 만류하고 있다. ③ 국군과 인민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함으로써 인물의 순박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⑤ 신비로운 음악과 이념의 춤을 통해 묘한 기운으로 출렁이며 정신이 혼미해지고 환각에 휩싸이는 환상적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다.

06 규정기

본문 135~141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5 해바라기와 소나무 등을 대조하고 있지만, 자연과 인간의 삶을 대조하여 올바른 삶의 자세를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 07 중국의 인물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상대방인 손님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 08 글쓴이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지만, 부정적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은 드러나지 않는다.
- 09 글을 집필하게 된 동기나 의도를 짐작할 수는 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다.
- 10 글쓴이는 귀양살이 중 세 든 집이 낮고 좁아 답고 답답함을 참을 수가 없어서 정자를 지은 것이다.
- 13 글쓴이는 소나무나 대나무, 매화 등에 대해 특별한 풍치가 있거나 향기를 지닌 것들이라 하고 있으므로, 그것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다. 또한 해바라기가 이들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기지도 않는다.
- 18 “나는 하나는 알고 ~ 더할 것이 없어졌소이다.”라는 손님의 말을 통해, 손님이 글쓴이의 말에 깨달음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① 3 ③ 4 ⑤ 5 ① 6 해 7 글쓴이는 해바라기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그 속성인 지혜와 충성을 지향함을 드러내고 있다.

1 “내가 소나무나 대나무 ~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두 가지의 ~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해바라기로 나의 정자의 ~ 근거도 없다 하겠습니까?”와 같이 해바라기로 정자의 이름을 지은 의미를 설의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명령적 어조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상대방인 손님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도 않다. ③ “어저귀나 살비귀, 무나 배추 같은 하찮은 것들도 옛사람들은 모두 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와 같이 옛사람들의 말을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글쓴이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지는 않다. ④ 심후문, 사마군실 같은 역사적 인물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들과 글쓴이의 생각을 대조하여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역사적 인물을 통해 글쓴이의 충성심을 드러내고 있다. ⑤ 글쓴이의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은 드러나 있지만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은 찾아볼 수 없으며, 이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2 “버림받은 사람으로서 친한 식물로 작하고,”를 통해, 글쓴이는 해바라기처럼 자신도 친하다고 여김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내가 의주로 귀양 간’, ‘내가 지금 황량하고 ~ 사람대접을 하지 않고,’를 통해, 글쓴이가 귀양살이 중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③ ‘내가 의주로 귀양 간 ~ 대역섯 사람은 앓을 만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사들이 한결같지 않은 것은 ~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소나무, 대나무, 매화 ~ 향기를 지닌 것들입니다.’를 통해, 글쓴이는 손님과 마찬가지로 소나무, 대나무 등을 긍정적으로 생각함을 알 수 있다.

3 ㉠은 “지금 내가 비록 ~ 은혜가 아님이 없습니다.”라고 하며 임금님에 대한 감사를 표면적으로 드러내면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 ~ 근거도 없다 하겠습니까?”를 통해 임금에 대한 충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은 벼슬을 그만두고 속세를 떠나 자연으로 돌아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임금에 대한 감사나 충정을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②, ⑤ ㉠은 임금님에 대한 충성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임금님을 원망하거나 임금님과 갈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보기>의 ‘성상(聖上)이 바라시니’는 ㉡이 벼슬을 그만두고 자연 속에 사는 것을 임금이 버렸다고 겸손하게 표현한 것으로, ㉠ 역시 성상을 원망하거나 성상과 갈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은 심후문(沈休文)이나 사마군실(司馬君實)과 같이 중국의 인물을 언급하고 있지만, ㉠은 고사를 인용하거나 중국의 인물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4 손님은 글쓴이가 정자 이름을 ‘규정’이라고 지은 이유를 듣고, “나는 하나는 알고 ~ 터할 것이 없어졌소이다.”라고 말하며 ‘배를 잡고 웃으며’ 돌아가고 있다. 이는 손님이 글쓴이의 대답을 듣고 공감하며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 속으로 비웃는 태도를 보였다고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A의 ‘세 든 집이 낮고 ~ 대역섯 사람은 앓을 만했다.’를 통해 글쓴이가 정자를 지은 이유를, 글쓴이의 대답이 드러난 C와 D를 통해 글쓴이가 정자 이름을 ‘규정’이라고 지은 이유를 알 수 있다. ② B에서 ‘손님’은 “저 해바라기는 식물 가운데 ~ 아직까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라며 해바라기에 대한 통념을 드러낸 다음, “당신은 해바라기에서 무엇을 ~ 대한 말씀이 있으십니까?”라며 정자 이름을 ‘규정’이라고 지은 것에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③ C의 “내가 지금 황량하고 머나먼 ~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를 통해 글쓴이가 정자 이름을 해바라기로 정한 이유를 알 수 있다. ④ D의 “거기다 해바라기는 두 가지 ~ 내가 옛날부터 흠모해 오던 덕목입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5 ㉠은 글쓴이가 충성과 지혜의 속성을 지녔다고 여기는 것이고, ㉡에 대해서 글쓴이는 특별한 풍치가 있거나 향기를 지닌 것들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과 ㉡ 모두 글쓴이가 가치 있는 자연물로 여김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은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은 손님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람들에게 가치 없는 식물로 인식된다. ㉢ 글쓴이는 ㉡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평소에 ㉡를 닦고 싶어 했는지는 알 수 없다. ㉣ 글쓴이는 ㉡를 자신과 같은 처지로 인식하고 있지만, ㉡에게서 글쓴이가 위로를 받고 있지는 않다. ㉤ 손님은 ㉡로 정자 이름을 지은 것에 의문을 드러내고 있지만, ㉡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지는 않다.

## 07 참새

본문 142~149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5 글쓴이가 대상인 참새와 교감하고 있지는 않다.
- 08 회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은 맞지만, 주로 현재형의 문장으로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 10 참새는 공작같이 화려하지도, 학같이 고귀하지도 않다고 하였다.
- 13 글쓴이가 목단이를 누나라고 부르지 않은 이유는 목단이에겐 호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목단이는 글쓴이의 집 앞 눈에 새를 보러 매일 왔었다.
- 15 천연기념물로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였을 뿐, 참새가 현재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 2 ㉡ 3 ㉢ 4 ㉣ 5 ㉤ 6 ㉥ 7 악취미, 실풍경 8 ‘참새’와 ‘참꽃’은 모두 ‘참’이라는 표현이 공통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우리나라 어디에서든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대상들이다.

1 참새가 사라져 가는 현재 상황과 자연을 대하는 현대인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전체적으로 현재형의 문장으로 서술하고 있다. ② 대상인 참새에 대한 글쓴이의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태도가 글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③ 공작, 학과 비교하여 참새의 외양이 특별하지 않음을, 꿩꼬리, 접동새와 비교하여 참새의 소리가 아름답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글쓴이는 후덕한 정서와 풍요로운 마음을 지니고 살았던 전통 사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자연의 생태를 거스르며 매마르고 삭막한 현대 사회에 대해서는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 만일 민요 시인이 새를 노래한다면 당연히 참새를 소재로 할 것이라는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나 있을 뿐, 실제로 참새를 소재로 지은 시가 있다고 하지는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참새는 반드시 추녀 끝에 서식하기 때문에 참새를 없애는 일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였다. ② 우리 민족은 참새에게 너그럽고 부드러운 태도를 보였으며, 참새를 한집안 식구같이 여기며 살아왔다고 하였다. ③ 참새는 공작의 화려함이나 학의 고귀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김소하면서도 조촐하다고 하였다. ④ 참새의 씨가 저서 천연기념물로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3 참새가 ‘어린 소녀들처럼 모이면 조잘’댄다고 했지만, 이는 꼭 여럿이 떼를 지어야 소리를 낸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그 조그만 몸매는 귀엽고도 매끈하고, 색깔은 검소하면서도 조촐하다.’에서 알 수 있다. ③ ‘우리나라 방방곡곡, 마을마다 집집마다 없는 곳이 없다.’에서 알 수 있다. ④ ‘아무 기교 없이 솔직하고 가벼운 몸성으로 재갈재갈 조잘댄다.’에서 알 수 있다. ⑤ ‘쫓으면 후루룩 날아갔다가 금방 다시 온다.’에서 알 수 있다.

**4** 나락 먹는 것은 금하였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①, ④ “새를 쫓는다.”가 아니라 “새를 본다.”라고 하는 것도 애기같이 귀엽게 여긴 부드러운 말씨라고 하였다. ② 저녁때 다 같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참새를 식구처럼 여기는 것이다. ⑤ 참새에게 매몰하지도 않았고, 이삭이나 북대끼까지, 겨 속의 낱알과 수체의 밥풀에까지 인색하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5** 이 글의 ‘참새’는 글쓴이에게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대상인 반면, <보기>의 ‘참새’는 화자에게 일 년 동안 농사 지은 양식을 없애는 부정적 대상이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의 ‘참새’와 <보기>의 ‘참새’ 모두 교감의 대상이 아니다. ② 이 글의 ‘참새’만이 과거 화상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④ <보기>의 화자가 ‘참새’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나타나지만 화자와 ‘참새’가 대화를 나누고 있지는 않다. 이 글에는 대화체가 사용되지 않았다. ⑤ 이 글의 ‘참새’도 ‘들곡식을 축내’므로 ‘우리에게 해로운 새일지 모른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6** ㉠은 과거 추억 속 어린 소녀가 지금은 할머니가 되었을 나이가 되었다는 것으로, 그만큼 많은 세월이 흘렀음을 의미한다. 소녀가 할머니가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은 인간이 더욱 친밀하게 느끼는 새가 따로 있음을 뜻한다. ③ ㉠ 바로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예에 해당한다. ⑤ ㉠은 꿈결에 들린 참새 소리가 글쓴이로 하여금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게 했음을 의미한다.

**08** 두물머리

본문 149~155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2 물을 통해 깨달은 삶의 이치를 전달하고 있지만, 자연물인 물과 인간을 대조하고 있지는 않다.
- 05 글쓴이는 두물머리가 아름답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를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 06 ‘인품의 향기’라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물이 지닌 덕성을 표현하고 있지만, 중국 고사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 08 ‘만나서 큰 하나가 되는 것이 어디 이곳의 물뿐이랴.’ 등에서 의문형 문장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 12 물은 만나고 만나서 줄기가 커지지만 물의 흐름은 느려지게 된다.
- 14 ‘다만 사람의 경우엔 이 계절의 틀이 무용이다.’를 통해, 사람의 만남은 네 계절의 틀에서 벗어남을 알 수 있다.

**17** 물은 바다에 이르기까지 오랜 인고의 시간을 가짐에도 상선약수의 본을 잃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물이 상선약수의 본을 잃지 않기 위해 오랜 인고의 시간을 갖는 것은 아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① 2 ④ 3 ⑤ 4 ④ 5 ④ 6 유연성(유연함) 7 물이 지닌 포용력은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한 감동을 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1** 글쓴이는 운길산에서 바라본, 두물머리에서 두 물줄기가 만나는 모습에 주목하여 만남의 의미와 물이 지닌 덕성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물의 만남을 인간에까지 확장하고 있지만, 물과 인간을 대비하고 있지는 않다. ③ 노자의 사상이 담긴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이는 물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부각하기 위해 제시한 것은 아니다. ④ 이 글은 기행 수필이지만,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의 이동에 따라 여행에서의 견문과 감상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물에 대한 글쓴이의 예찬적 태도를 알 수 있지만, 물과 관련된 구체적인 일화를 나열하고 있지는 않다.

**2** ‘바다에 이르려면 엄청난 힘을 지닌 승천이 가능해진다.’를 통해, 승천이 가능해지는 곳은 두물머리가 아닌 바다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1, 2문단의 내용을 통해 두물머리가 정이 가며 우리말의 혼을 전해 주는 이름임을 알 수 있다. ② ‘두 물줄기가 만나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두 물줄기가 만나 큰 흐름이 되는 모습을 내려다보노라면.’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만나도 격정이 없는 다소곳한 흐름. 서로가 서로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두물머리를 시원스럽게 볼 수 ~ 눈앞에 두물머리가 좌익 펼쳐진다.’를 통해 알 수 있다.

**3** ㉠은 두 물줄기가 만나는 곳으로, 글쓴이에게 만남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는 임이 배를 타고 건너감으로써 화자와 임을 갈라놓는 이별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을 보며 글쓴이는 만남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있으므로 ㉡는 긍정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는 임과의 만남을 저해하는 공간이므로 부정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② 글쓴이는 ㉠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는 이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현실적인 공간이다. ㉡는 화자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공간이므로, 이상적인 공간과는 거리가 멀다. ③ ㉠을 보면서 글쓴이가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는 화자와 임을 갈라놓는 공간이므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워 가는 공간이라 할 수 없다. ④ 글쓴이는 ㉠을 통해 인간의 외로움에 대해 생각하면서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인간은 반성과 성찰, 명상을 반복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글쓴이가 ㉠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4** 물은 바다에 이르기까지 오랜 인고의 시간에도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본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물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속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즉, ‘상선약수(上善若水)’는 물의 긍정적 속성을 부각하기 위해 언급한 말이지, 글쓴이가 얻은 깨달음을 압축하여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두물머리의 위치와 함께 두물머리 주변의 구체적인 명소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는 글쓴이가 체험한 두물머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남양주 운길산에 이르는 산길’은 두물머리를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글쓴이는 이곳에서 두물머리를 보며 물의 만남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③ 글쓴이는 두물머리에서의 물의 만남과 그 의미를 언급한 뒤 그에 대한 인식을 우주 만물로 확장하고 있다. ⑤ ‘이 흐름이 그 위의 모든 것 다 받아 안을 수 있는 넉넉한 품까지 여니.’를 통해, 하늘의 별의 쉼터가 되는 두물머리의 모습은 물이 지닌 포용력이라는 덕성을 보여 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5** 외로움은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짚어 보는 기회와 만나게 하여 정신적 성숙에 이르게 한다. 즉,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반성과 성찰, 명상을 반복하게 되면 정신적 성숙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외로움이 정신적 성숙을 완성할 수 있는 인고의 과정 그 자체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이 외로움을 견디면서 참아 내느라 ~ 기회가 오며, 명상도 따르게 마련이다.'에서 알 수 있다. ②, ③ '하나가 다른 하나를 만나서 새로운 ~ 없는 이치가 거기 잠재해 있다.'에서 알 수 있다. ⑤ '명상은 해답을 찾는 노력의 사색이다.'에서 알 수 있다.

## PART 3 | 갈래 복합

### 01 벌의 줄 잡은 것 / 착빙행

본문 158~163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4 감정 이입은 드러나지 않는다.
- 06 간절하고 다급한 백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을 뿐 우스꽝스럽게 그린 것은 아니다.
- 12 '그 누가 말해 주랴'라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화자의 의지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14 현실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을 뿐 극복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① 2 ⑤ 3 ⑤ 4 ② 5 ⑤ 6 쌓인 응기 싸늘히 뱃속까지 스며드네, 세찬 강바람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갈 듯하네 7 백성이 관리들의 고압적 태도에 놀라 할 말을 못하는 상황으로, 인과적 순서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1** 「벌의 줄 잡은 것」에서는 대상인 백성의 외양을 '벌의 줄 잡은 것을 쓰고 흰 옷 입은' 것으로 묘사하여 초라하고 궁색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착빙행」에서는 얼음을 깨는 백성의 외양을 '정강이 가린 짧은 홰옷에 짚신도 없'는 것으로 묘사하여 초라하고 고통스러운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설의적 표현은 「착빙행」의 '그 누가 말해 주랴'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③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암시하는 것은 「벌의 줄 잡은 것」에만 해당한다. '쥐 같은 형방 놀과 범 같은 나졸들'에서 관리들을 간사한 쥐와 위험적인 범에 비유하여 그들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④ 과장법이 사용된 것은 「착빙행」이다. '은은한 그 소리가 용궁까지 울리누나 / 깎아 낸 층층 얼음 흡사 설산과도 같아'에서 백성들이 노동하는 현장의 모습을 과장법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⑤ 「착빙행」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정치(「그대」)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집중 및 강조의 효과를 얻고 있으나, 친근감과 거리가 멀다.

**2** 「벌의 줄 잡은 것」의 화자는 평이근민(平易近民)해야 도달민정(道達民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착빙행」에서 '강에서 얼음 깨던 사람'은 백성에 해당하므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평이근민(平易近民)이고, 이를 통해 도달민정(道達民情)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착빙행」에서 '천 사람 만 사람'은 고통을 겪는 백성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구체적 정원(情願)을 전하려는 이들로는 볼 수 없다. ② 「착빙행」에서 '밤마다 망치 꼴을 들고 강에 모이'는 사람들은 백성에 해당한다. 백성을 흔히 백산하게 만드는 주체는 '쥐 같은 형방 놀과 범 같은 나졸들', 즉 관리들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착빙행」에서 '정강이 가린 짧은 홰옷에 짚신도 없'이 일하는 모습은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것은 송리(訟理)가 굽어지는, 즉 옳은 송사를 방해하는 상황과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④ 「착빙행」에서 '미인'이 전해 준 얼음을 '좌중에 고루 나'누는 것은 백성들의 고통과 괴리된 양반들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평이근민(平易近民)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3 백성의 고통을 못 보는 '그대'는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대상이지만 '미인'이 이와 대비되는 대상으로 그려진 것은 아니다. 또한 미인이 얼음을 전해 주는 대상은 '죄중(그대)'이지 백성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③ '섬달'의 '한강'에서 '고통스럽게 얼음을 깨는 백성들'의 모습과 '유월'의 '고당 위'에서 '얼음을 즐기는 양반들'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다. ④ 같은 여름의 풍경 속에서도 '더운 줄 모르는 고당 위 양반들의 모습과 '더위 먹고 길에서 죽어 가는' 백성들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다.

4 「착빙행」의 화자는 겨울에 얼음을 채취하는 백성과 여름에 얼음을 즐기는 양반의 모습을 대비하여 현실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현실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을 뿐 극복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②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내용도, 태도 변화를 다짐하는 내용도 나타나지 않는다. ④ 얼음을 채취하는 백성들에게 연민의 정서를 느끼고 있지만, 그들과 화자 자신이 같은 처지에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병상련으로 볼 수는 없다. ⑤ 고통스러운 처지에 처한 것은 화자가 아니라 백성들이다.

5 「착빙행」의 작가는 '강에서 얼음 깨던 사람'의 수고로움을 '고당 위'에서 얼음을 즐기는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강에서 얼음 깨던 사람'이 '고당 위'에서 얼음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쥐 같은 험방'과 '범 같은 나졸들'이 옳은 송사를 방해하는 것이 작가가 인식하는 현실의 모습이다. ② 얼음 덕에 '더운 줄 모르고 즐거워하'면서도 '얼음 깨는 수고로움'을 모르는 양반들의 모습이 작가가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현실의 모습이다. ③ '강에서 얼음 깨던 사람'이 '더위 먹고 길에서 죽어 가는 백성'이 되는 것이 작가가 인식하는 현실의 부조리한 모습이다. ④ 작가는 '도달민정'을 지향하면서 그 방법으로 '평인근민', 즉 '벌의 줄 잡은 것'을 쓴 백성의 사정에 관심을 기울이는 자세를 제시하고 있다.

02 유광역전

본문 164~170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4 광역의 일화를 통해 이익만을 추구하는 당대 현실을 비판하고 있을 뿐, 백성들을 착취하는 지배 계층을 풍자하고 있지 않다.
- 07 부정적 세태의 만연이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 09 광역이 과체를 잘한다고 소문난 것은 맞지만, 그의 집은 가난하고 지체 또한 미천하다 하였다.
- 15 경시관이 광역을 잡으려 한 이유는, 감사와의 내기에서 이기기 위해서이다. 즉, 감사가 자신의 글 보는 안목을 믿지 않을까 봐 광역을 잡아 증거로 삼으려고 한 것이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신 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③ 3 ② 4 ⑤ 5 ② 6 매화외사 7 부도덕하고 부조리한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부패한 사회상을 비판하고 있다.

1 광역의 글솜씨가 좋다는 특성을 보여 주기 위해 몇 가지 사건을 요약하여 진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 ③ 삽입된 시는 광역의 글솜씨를 보여 주기 위한 것으로, 광역의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④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일관되게 서술하고 있다. ⑤ 경시관과 감사 간의 대화가 드러나지만 인물 간의 갈등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경시관이 광역의 글만 일부러 골라 뽑은 것이 아니라, 장원, 이등, 삼등 모두 뽑아서 조사해 보니 그것이 광역의 글이었을 뿐이다.

오답 해설 ① '과체를 잘한다고 남쪽 지방에 소문이 났으나, 그의 집이 가난하고 지체 또한 미천하였다'에서 알 수 있다. ② '먼 시골 풍속에 과거 글을 팔아 생계를 삼는 자가 많았는데, 광역 또한 그것으로 이득을 취하였다'에서 알 수 있다. ④ '감사가 자신의 글 보는 안목을 믿지 않을 것으로 염려하여 광역의 공초를 얻어 증거로 삼기 위해'에서 알 수 있다. ⑤ '광역이 군수에게 잡혀 장차 입송되기 직전에 ~ 이내 몰래 강에 투신하여 죽었다'에서 알 수 있다.

3 [A]에서는 광역의 집안 내력과 성장 환경이 아니라, 매때 행위가 만연한 세태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A]에서 이익만을 추구하여 모든 것을 사고파는 풍조를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보기>에 제시된 전형적인 전의 구조에서 벗어난 것이다. ③ <보기>에서 '전개부에서 인물의 업적이나 잘못을 열거'한다고 했으므로, 광역의 옳지 못한 행적을 중심으로 전개된 [B]를 전개부로 볼 수 있다. ④ 과거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광역이 주인공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글은 주인공의 범위가 확장된 조선 후기의 전(傳)임을 알 수 있다. ⑤ 광역의 잘못을 통해 이익만 추구하는 세태를 비판하는 [C]가 논평부에 해당한다.

4 경시관은 감사와의 내기에서 이기기 위해 광역의 진술을 증거로 삼으려고 그를 체포하려 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매때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을 만큼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태를 보여 준다. ② '얼굴이 희고 수염이 성긴 몇 사람이' '종이를 펼쳐 놓고 필 힘을 뿜내며 글을 써 보여 그 진퇴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과거 부정행위에 동원되기 위해 대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준다. ③ 돈을 가진 자는 '이만 전을 가지고 온 사람'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는 '감사'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④ 광역이 돈의 액수에 따라 답안의 수준을 조절할 수 있었던 것은 과체에 능했기 때문이다.

5 주인은 아들의 과거 급제를 위해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는 등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를 비판할 수 있는 속담으로는, 수단이나 방법은 어찌 되었든 간에 목적인 이루면 된다는 의미의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여러 사람이 저마다 제 주장대로 배를 몰려고 하면 결국에는 배가 물로 못 가고 산으로 올라간다는 뜻으로, 주관하는 사람 없이 여러 사람이 자기주장만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뒷간에 갈 적 마음 다르고 올 적 마음 다르다: 자기 일이 아주 급한 때는 통사정하며 매달리다가 그 일을 무사히 다 마치고 나면 모른 체하고 지낸다는 말 ④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해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미리부터 다 된 일로 알고 행동한다는 말 ⑤ 안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겉으로는 안전하고 아무것도 못 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딴짓을 하거나 자기 실속을 다 차리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03 늙은 소의 탄식 / 노비 반석평

본문 171~176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3 6구에서 현재와 과거를 대비된다고 볼 수 있지만, 과거에 대한 후회를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 06 ‘무거운 짐’을 끌지 못하고 ‘푸른 언덕’에 누워만 있는 현실을 탄탄하고 있다.
- 10 인물들 간의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 14 조정의 처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서술할 뿐 논평하고 있지는 않다.
- 17 반석평이 스스로 종적을 감춘 것이 아니라 재상이 그의 종적을 감추게 만들었다.
- 19 반석평은 재상의 후손들에게 극진히 예를 갖추었다.
- 20 반석평은 신분을 속인 사실을 스스로 실토하고 관작의 삭탈을 청하였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⑤ 2 ③ 3 ⑤ 4 ③ 5 ④ 6 가마 7 사회적 권력을 행사해 보지도 못하고 서예가로서 얻었던 명성만 남았다는 뜻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이름뿐인 존재가 되었음을 표현한 것이다.

- 1 재상의 후손들이 몰락하여 곤궁하고 천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자아실현 욕구를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답 해설 ① 늙은 소가 바라는 자아실현은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밭을 가는 것인데, 늙어서 쓸모없어져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좌절감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소의 모습은 비슷한 처지의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늙은 소가 자아실현을 못 하게 된 데는 ‘쓸모 다해 버려진 상황’이 외부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③ 반석평은 뛰어난 재능을 개발하여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고 성취를 이루었으므로, 자아실현을 이룩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④ 재상은 반석평의 소절과 역량을 알아보고 그의 자아실현을 자극하며 도와주고 있으므로, 조력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2 ‘푸른 언덕’은 쓸모가 없어진 늙은 소가 무료하게 하루를 보내는 공간이다. 따라서 쓸모를 지향하는 늙은 소의 이상적 삶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답 해설 ① ‘진창’과 ‘흙덩이’는 늙은 소를 빠뜨리고 넘어지게 하여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므로, 현재의 고난이나 시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② 늙은 소는 ‘무거운 짐 끌 가량은 전혀 없는’ 것을 슬퍼하고 있다. 따라서 ‘무거운 짐’은 늙은 소가 마땅히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외양간’은 쓸모가 없어진 늙은 소가 비애를 느끼며 쓸쓸히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⑤ ‘갈까미귀’는 원래 늙은 소의 등을 쪼면서 괴롭히는 적대자인데, 그 적대자마저 늙은 소의 수척한 모습에 슬퍼한다고 함으로써 늙은 소의 애처로운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3 ‘쓸모 다해 버려짐’을 ‘예부터 그러’한 일, 즉 일상사 혹은 세상의 이치로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해 쓸쓸함을 표현하고 있다.

○답 해설 ① 울기만 할 뿐 아무 대응도 못하는 처지를 그린 것으로, 현재의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 아무런 목적도 없이 시간을 보내는 무기력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③ 할 일 없이 쓸쓸하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④ 힘차게 자신의 일을 수행하던 과거(‘발 갈던 옛일’)를 회상할 뿐 회한(늪우치고 한탄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 4 ‘상징적 사물’이나 ‘인물의 미래에 대한 암시’는 드러나지 않는다.  
 ○답 해설 ① ‘그의 순수하고 명민함’, ‘겸손하고 공경하며 청렴, 근실하여’에서 반석평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서술자가 반석평에게 일어난 일들을 요약하여 보여 주고 있다. ④ 노비라는 사회적 한계를 극복한 후 재상의 반열에 오른 반석평의 성취를 그리고 있다. ⑤ 반석평의 행적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 5 반석평이 진흙탕 길에서 재상의 후손들에게 절을 하는 것은, 신분 폭로를 염려하여 비위를 맞추며 전전공공하는 모습이 아니라 극진히 예를 다하는 모습이다. 이는 반석평이, 재상이 배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를 다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답 해설 ① 재상은 신분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노비인 반석평을 자신의 아들, 조카들과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었을 것이다. ② 아들 없는 사람이라면 반석평을 쉽게 아들로 받아들일 것이므로, 재상은 반석평이 노비라는 태생을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을 것이다. ③ 주인집과 왕래하면 반석평의 원래 신분이 탄로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재상은 아예 주인집과의 관계를 끊어 반석평을 보호하려 했을 것이다. ⑤ 노비 신분인 반석평이 국법을 어기고 재상이 되었음에도 조정에서 차별하지 않은 것은, 그의 신분보다는 능력이나 성품을 더 중요하게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04 계

본문 177~183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3 글쓴이는 정소남의 예술관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자신의 예술관을 드러내고 있다.
- 05 글쓴이가 대상인 ‘계’와 교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09 한자어 등을 많이 사용한 현학적 문체로 문어체적인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 11 글쓴이는 그림이 작가의 심경을 호소하는 한 방편이 될 때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여기므로, 기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다.
- 15 ‘해공(蟹公)’을 통해 처음에는 영리한 듯 보이거나 이내 한꺼번에 덩벼들어 모조리 잡히고 마는 계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③ 2 ① 3 ④ 4 ⑤ 5 ② 6 ③ 7 ⑥: 창자, ⑥: 단장의 비애 /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8 작은 이익을 다투다가 모두가 위험에 처하는 인간의 모습

- 1 이 글의 대상인 계를 다른 대상과 비교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답 해설 ① 계를 ‘단장의 비애를 모르는 놈’, ‘어리석고 눈치 없고 꼴에 서로 싸우기 잘하는 놈’과 같이 의인화하고 있다. ② 계에 대한 글쓴이의 긍정적 시각과 부

정적 시각이 모두 드러나 있다. ④ 운우당의 한시를 삽입하여, 게를 ‘단장의 비애를 모’른다고 표현한 운우당에 더 공감이 간다며 글쓴이의 심정을 부각하고 있다. 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게를 소재로 하여 인간의 삶의 모습을 풍자하고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2 그림을 그려 달라는 청을 ‘대개는 거절하고’ 만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② 글쓴이는 ‘약고 영리하게 처세할 줄 모르는 눈치 없는’ 게를 ‘실로 나 자신이 아닌가.’라며 자신과 동일시하였다. ③, ④ 글쓴이는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 ‘사물의 형용을 방불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빌려 작가의 청고한 심경을 호소하는 한 방편’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 ‘예술가답게나 살아 보다가 죽자’는 결심을 한 지 오래되었다고 하였다. ⑤ 글쓴이는 게가 다양한 생태적 속성을 지니고 있고 좋은 화제가 된다고 하였다. 이는 곧 그림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 ‘뻔뻔스럽고 염치없는 친구’에게도 그려 보낼 수 있다고 하였지 게 자체가 뻔뻔스럽고 염치가 없다고 하지는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왕세정의 시구를 인용하여 ‘결국에는 사람의 입에 떨어질 신세’라고 하였다. ② ‘무장공자로서 단장의 비애를 모’르는 미물이라고 하였다. ③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해변에서 ‘해공’을 낚는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에서는 대상을 통해 작가의 정신이 표현되어야만 일생을 바칠 만한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보기>에서는 “수(手)에 있는 것이지, 흉중(胸中)에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솜씨를 중시하고 표현된 정신을 중시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은 작품에 담긴 마음을 중시하고, <보기>에서는 표현을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과 <보기> 모두 예술을 삶과 동일시하거나 예술의 보편성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다. ③ ㉠과 <보기> 모두 예술을 감성적 또는 이성적이라는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④ <보기>에서는 ‘솜씨가 없으면 비록 총명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것을 배울지라도 능할 수 없다.’는 부분을 통해 예술적 자질을 천부적인 것으로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에서는 예술적 자질이 길러지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지 않다.

5 글쓴이는 세상사에 얽히기를 싫어해서, 또는 그리기가 수월해서 게를 그려 선물하는 것은 아니다. 게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반성할 수 있고, 또 인간의 삶에 대한 교훈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이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 게를 화제(畫題)로 즐겨 사용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정소남과 글쓴이는 모두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 단지 사물을 형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가의 심경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청자가 없는 게의 특성을 통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기 위해 운우당의 시를 인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글쓴이는 게를 ‘약고 영리하게 처세할 줄 모르는 놈’이라고 하면서 그가 ‘실로 나 자신’이라며 스스로와 동일시하고 반성하고 있다. ⑤ 게를 즐겨 보내고 싶은 친구에게도 염치없는 친구에게도 그려 보낼 수 있는 좋은 화제라고 한 것으로 보아 자신이 깨달은 바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6 ‘어부의 이(利)’에서 ‘어부지리’라는 고사 성어를 유추할 수 있으나, 사실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활용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A]에서는 게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를 드러내어(㉠), 욕심에 눈이 멀어 한 깨번에 망하는 인간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 또한 ㉠에서는 ‘무장공자’라고 하여 게를 단장의 비애를 모르는 것으로 바라보다가 [A]에서는 ‘해공(蟹公)’이라는 다른 이름을 사용하여 어리석은 게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05 혼계자순가

본문 184~189쪽

### 기본 실력 다지기

05 고사를 인용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10 각 수는 유교적 덕목에 대한 실천 당부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⑤ 2 ⑤ 3 ⑤ 4 ④ 5 ⑤ 6 어진 사람 7 서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갈등을 겪었던 작가는 남과 싸우는 것이 많은 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를 후손들에게 일깨워 주고자 하였다.

1 대구법은 <제5수>의 증장에서 한 번 사용되었을 뿐이므로 빈번한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제1수>에서 ‘아이들’이라는 청자를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제2수>, <제3수>, <제5수>, <제8수>의 종장에서 의문형 문장, 즉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바른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③ ‘배워 스라’, ‘얻어라’, ‘잊지 마라’, ‘다시 마라’ 등 명령형 어미를 반복 사용하여 훈계라는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④ <제2수>, <제3수>, <제6수> 등에서 가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2 유교적 덕목에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교훈과 가르침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의 구체적인 경험이 드러나 있지 않으며, 이치에 대한 탐구적 자세도 찾을 수 없다. ② 성찰적 자세를 갖추도록 조언하고 있으나 스스로에 대한 성찰은 찾을 수 없다. ③ 과거 회상 및 오늘날의 문제 상황에 대한 원인 분석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부모에 대한 효도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성현의 말씀을 되새기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3 <제8수>에서는 한번 악명을 얻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비유적 표현(‘어느 물로 씻으리’)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역설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제1수>에는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가르침이, <제9수>에는 효도를 하는 구체적 실천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② <제3수>에서는 화자가 제시한 ‘착한 길로 다니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여 마음 안도 다니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착한 길로 다녀야 하는 이유를 부각하고 있다. ③ <제5수>에서는 남과 싸우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④ <제6수>에서는 그런 일을 멀리하고 위우쳐 허물을 고치면 어진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4 ㉠은 청자가 타인들로부터 평가받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모습보다 과장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효제’를 닦아 ㉠을 얻는 것이므로, ㉠은 명예나 칭송 등 타인으로부터 높이 평가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은 남의 허물이나 흉을 들어 비판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의미한다. ④ ㉠은 욕심을 내어 몹쓸 일을 했을 때 초래되는 결과를 말한다.

5 <보기>는 시집가는 딸에게 시집살이에서 주의해야 할 점과 머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에 대한 가르침을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적 성격을 가진 가사이다. 이 글과 <보기>는 모두 조선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던 유교적 가치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도록 교훈과 가르침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과 <보기>는 모두 화자가 교훈과 가르침을 전달하는 교훈적이고 계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② 이 글에서는 부모께, <보기>에서는 시부모께 효를 다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③ <보기>에 '시부모'를 잘 모실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청자는 여자로 한정되지만, 이 글은 모든 사람들을 청자로 삼을 수 있다. ④ 이 글에 비해 <보기>에는 문안 인사, 음식 여쭙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이 언급되고 있다.

## 06 옥린몽

본문 190~196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4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을 뿐,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지 않다.
- 06 공간적 배경에 대한 구체적 묘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 07 사건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재는 등장하지 않는다.
- 10 혼인 문제를 두고 황제와 경완이 갈등한다고 볼 수 있으나 결국에는 경완이 황제의 제안을 수용하고 있으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 11 공주의 딸 교란은 경문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매우 흠모하'게 된 것이지 경문의 용모를 직접 본 것은 아니다.
- 13 황제는 공주의 거듭된 요청에 '어쩔 수 없어 허락'한 것이다.
- 15 먼저 여 씨와 혼인한 후 과거에 급제를 하고 나서 정혼한 사이인 유 씨와 혼인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⑤ 2 ⑤ 3 ① 4 ⑤ 5 ⑤ 6 직접적, 완곡하게 7 '황제의 은혜'의 표면적 의미는 경문과 여 씨의 혼인을 말하며 이면적 의미는 특혼의 폐해라 할 수 있는데, 서술자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그 이면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1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전달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주인공 경문은 '아름답고 잘생긴 외모와 소년의 문장이 당대에 제일'로, 여러 면에서 뛰어난 재자가인형 인물이다. ② 공주와 황제, 황제와 경완 등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③ '어찌 감히 임금의 뜻을 감당하겠는가?'와 같이 서술자가 개인하여 논평하고 있다. ④ '정 부인이 쓸쓸하게 얼 굴빛을 바꾸고 눈썹을 찡그리'는 것을 통해 딸의 앞날에 대해 염려하는 정 부인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2 유 소저는 여 씨에 대해 '좋은 가문에서 성장하였으니 몸가짐과 어른 섬기는 법도가 반드시' 뛰어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유 소저가 여 씨의 품성을 의심하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공주의 딸 교란은 경문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매우 흠모하'게 되었다. ② 공주는 '예의에서 급하는 것을 어기고 황제'에게 직접 찾아가 혼사 문제의 해결을 부탁한다. ③ 황제는 공주의 간절한 요청에 경문과 여 씨의 혼인을 '어쩔 수 없어 허락'한다. ④ 경완은 경문이 '재질이 용렬하고 학문이 부족하'다고 겸손하게 말하면서 황제의 제안을 거절한다.

- 3 "너의 일생이 가련할 뿐이겠는가?", "어찌 한심하지 않겠는가?"와 같이 설의적 어법을 통해 딸의 앞날을 염려하는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지 않다. ③ 상대방을 설득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 벌어질 일을 염려하고 있을 뿐 이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⑤ 상대방에게 질문하여 의견을 구하고 있지 않다.

- 4 경완이 '신의 아우를 물리쳐 사사로운 정을 펴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때 '사사로운 정을 펴'는 것은 황제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혼한 대로 유 씨와 혼인을 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② 경완은 경문에 대해 경양의 표현을 통해 황제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③, ④ 황제의 명을 따를 수 없는 실질적인 이유에 해당한다.

- 5 유 소저가 자신에게 닥친 일을 운명으로 여기고 수용하려는 것은 운명론적 세계관에 따른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사대부의 배타적 신분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공주의 딸이 범생을 흠모하게 되어 그와의 혼사를 추진한 것이 혼사 장애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다. ②, ③ 사대부인 경완이 효를 중시하는 유교적 가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과 달리, 공주는 황제의 권력에 기대어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한다는 데서 도덕적으로 비난의 소지가 있는 모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④ <보기>에서 '여 부인이 유 부인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민다고 한 것을 통해 정 부인의 우려가 현실화될 것임을 알 수 있다.

## 07 관서별곡

본문 197~202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3 '황주는 전쟁터라 가시덤불 우거졌도다'는 고려 때 전쟁터였던 황주의 옛 지명에 가시나무 곡(棘)이 쓰인 것에 착안해 당시 과거를 회상한 것이지, 화자의 경험을 회상한 것은 아니다.
- 07 '사방의 군사 진영과 웅장한 경관이 팔도에 으뜸이로다'와 같이 화자가 마주한 풍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나타나 있다.
- 09 임지로 가고 싶은 기대감에 고향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하였다.
- 10 '개성은 망국이라 만월대도 보기 싫다'에서 고려의 옛 수도인 개성에 있는 만월대에도 가고 싶지 않다는 심정을 드러냈을 뿐, 인생무상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다.
- 12 평양이 예전과 마찬가지로 화려한 태평 문물을 지닌 고장임을 실감하고 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㉓ 2 ㉑ 3 ㉓ 4 ㉒ 5 ㉓ 6 개성은 망국이라 만월대도 보기 싫다  
7 '벽제 → 임진 → 천수원'이라는 여정을 제시하여 화자의 여행 경험을 속도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1 자연과 인간의 속성을 대비하여 나타내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동산에 배꽃 피고 진달래꽃 못다 핀 때' 등에서 자연물을 통해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② '백두산 내린 물이 향로봉 감돌아' 흘러가는 모습을 '굽이굽이 늙은 용이 꼬리 치'는 모습에 비유하고 있다. ④, ⑤ 화자는 왕명을 받고 임지로 가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채로운 자연의 풍경을 여정에 따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의 모습에 감탄하는 등 자연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 '석양이 지거늘'을 통해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으나, 화자가 고향을 떠나는 심경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② 십 리나 이어진 반짝이는 물결의 빛과 안개 속 버드나무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 듯'이라는 직유법을 사용하여 대동강 위에 화선이 떠 있는 풍경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 어찌하리'에서 설의법을 활용하여 왕명을 따르는 것과 풍경을 즐기는 것 사이의 내적 갈등을 표현하고 있다. ⑤ '풀'과 '꽃'이 '봄빛을 자랑한다'며 자연물을 의인화함으로써 봄날 풍경의 아름다움을 제시하고 있다.

3 [A]의 '개성은 망국이라 ~ 가시덤불 우거졌도다'와 <보기>의 '궁예 왕 대궐터에 까막까지 지저귀니'는 모두 화자가 방문한 지역의 현재 모습을 제시하고 있지만,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A]의 '임지로 가고픈 마음에 고향을 생각하라'에는 부임할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급하여 고향을 생각하겠느냐는 화자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보기>에서도 '어와 성은이야 갈수록 망국하다'를 통해 임금에 대한 감사함을 드러내고 있다. ② [A]의 '왕명(王命)으로 보내심에'와 <보기>의 '관찰사를 맡기시니'를 통해, [A]와 <보기>의 화자 모두 임금의 명을 받고 부임하는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A]의 '행장을 꾸리니 칼 하나뿐이로다'를 통해 화자가 간소하게 짐을 꾸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기>의 '백발도 많고 많다'는 화자의 흰 머리가 많음을 나타낸 표현으로, 늦은 나이에 임지로 떠나는 화자의 외양을 나타내고 있다. ⑤ <보기>의 '삼각산 제일봉이 웬만하면 보이겠네'는 임금이 계신 곳(북한산 제일봉)이 보일 것 같다는 뜻으로,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반면 [A]에는 임금에 대한 그리움은 드러나 있지 않다.

4 화자가 '슬프다'고 한 것은 나랏일이 신경 쓰이지만 풍경이 아름다워 어찌할 수 없는 처지에서 나랏일과 자연을 즐기는 것 사이의 내적 갈등을 드러낸 것이지, '화선'에 대한 심정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십 리의 물빛과 안개 속 버들가지는 위아래에 엮기었다'는 대동강의 풍경을 묘사한 것으로, 경(景)만 제시되어 있다. ③ 부벽루에서 바라본 풀과 꽃을 묘사하며 그것이 봄빛을 자랑한다고 평가한 것은, 경치를 제시한 경(景)과 그에 대한 평가인 의(議)에 해당한다. ④ '정하기도 끝이 없다'는 백상루에서 내려다본 청천강이 모습이 매우 훌륭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아름다운 경관에 대한 화자의 평가인 의(議)를 드러낸 것이다. ⑤ 견고한 군사 진영과 웅장한 경관이 팔도에서 으뜸가는 경지라는 화자의 평가인 의(議)가 드러나 있다.

5 동적인 자연물인 '백두산 내린 물'을 '늙은 용이 꼬리 치'는 모습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B]는 자연의 모습을 예찬하고 있으며, 화자가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② 자연의 광활함과 대비되는 인간의 유한성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자연물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약산동대 위에서 눈 아래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며 다채로운 자연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지만,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고 있지 않다.

08 선정무한

본문 203~208쪽

기본 실력 다지기

04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한 긴 문장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글쓴이의 태도 또한 의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07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지 않다.

10 글쓴이는, 진달래는 꽃보다 단풍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12 비로봉 절정에 있는 찻집에서 난로 옆자리를 양보받은 것은 등산객들이 아니라 글쓴이 일행이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㉓ 2 ㉒ 3 ㉒ 4 ㉓ 5 ㉑ 6 ㉒: 연무, ㉓: 붉은 진달래 단풍, ㉔: 자작나무 7 ㉒로 인해 심금강을 굽어 살필 수 없는 점을 안타까워하였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 만학천봉을 발밑에 꿰어 엮드리게 했다는 점에서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여기며, 비로봉 정상에 오른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1 '소복한 백화(白樺)는 한결같이 슬프게 서 있고 눈물 머금은 초저녁 달이 증천에 서럽다.'에서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글쓴이의 슬픔과 서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② '젓빛 같은 연무(煙霧)', '붉은 진달래 단풍' 등에 색채어가 드러나지만 색채가 대비되고 있지는 않다. ③ 붉은 진달래 단풍의 모습에서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자연과 인간사를 비교하고 있지 않다. ④ '용호(龍虎)가 싸우는 것일까? 산신령이 대로하신 것일까?'에서 질문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2 비와 우박이 그치고 날이 갠 시점은 비로봉 절정에 있는 찻집에서이다. 비로봉 최고점에서는 운해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오답 해설 ① '은하수같이 정다운 은제와 ~ 사이로 나타나 보인다.'와 '진달래는 꽃보다 단풍이 배승(倍勝)함을 이제야 깨달았다.'에서 알 수 있다. ② '산마루가 가까울수록 비는 ~ 변해 버리는 것일까?'에서 알 수 있다. ③ '벌겋게 티오른 장독 ~ 다시롭기 온실 같은데.'에서 알 수 있다. ⑤ '비로봉 동쪽은 아늑네의 ~ 살지 않는 자작나무'에서 알 수 있다.

3 [A]에서 글쓴이는 비로봉 최고점에 올라 사방을 조망하고 있으나, <보기>에서 화자는 비로봉에 오르지 않고 그 아래에서 느낀 점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A]는 운해가 태평양보다도 깊을 것 같다고 하였고, 글쓴이의 마음이 '쾌승장군(快勝將軍)보다도' 교만해진다고 하였다. <보기>에서는 '노국(魯國)과 '턴하(天下)를 비교하고 있다. ③ [A]는 '더 바랄 것이 무엇이라'에, <보기>는 '넓거나 넓은 턴하(天下) 엇찌하야 적닷 말고 ~ 오르디 못헝거니 느려가미 고이힐가'에 설의적 표현이 활용되었다. ④ [A]에서는 '만학천봉'을 의인화하여 글쓴이의 '발밑에 꿰어 엮드'렸다고 표현하고 있는 반면, <보기>에는 의인화가 사용되지 않았다. ⑤ <보기>에서는 '어와'라는 감탄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A]에는 감탄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4 마의 태자의 무덤에 철책과 상석이 없는 것은 글쓴이의 감상이 아닌 견문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진달래 단풍을 보며 꽃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글쓴이의 감상에 해당한다. ② 비와 우박이 요란스럽게 내리는 것은 견문이지만, 그것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 같다는 것은 글쓴이의 감상이다. ㉓ 글쓴이는 비로봉 최고점에서 보이는 운해에 대해 아쉽다는 감상을 드러내고 있다. ㉔ 백화, 즉 흰 자작나무가 슬프게 서 있다는 것은 글쓴이의 감상에 해당한다.

**5** ㉔은 금강산이 바다로 변해 버린다고 생각할 만큼 비가 많이 쏟아짐을 나타내는 것이다.

**오답 해설** ㉒ 비로봉 절정에 있는 찻집에서 기다리고 있지, 비와 우박이 금방 그친 후 날씨가 개였음을 표현한 것이다. ㉓ 글쓴이는 구름으로 인해 삼금강을 볼 수 없는 점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㉔ 마의 태자의 무덤은 능이라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철책과 상석도 없어서 글쓴이는 이에 대해 처량함과 슬픔을 느끼고 있다. ㉕ 백화와 초송달에 글쓴이의 슬프고 서러운 감정을 이입하여 나타내고 있다.

**09** **홍무 정사년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본문 209~214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3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은 알 수 있지만, 자연의 변화 과정을 통해 화자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 04 대비적인 의미의 시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 07 대상에 인격을 부여한 의인법은 찾을 수 없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① 2 ① 3 ③ 4 ⑤ 5 ② 6 외로운 배 7 ㉔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생긴 것이다.

**1** ‘집 생각의 괴로움 어찌 견디랴’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집 생각, 즉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생긴 화자의 괴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㉒ 본래의 뜻과 반대되는 반어적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㉓ ‘외로운 배’를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객관적 상관물이라 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출할 뿐 대상과의 합일을 지향하고 있지는 않다. ㉔ 자연물을 의인화하거나 자연 친화적인 인식은 찾아볼 수 없다. ㉕ ‘풀은 천리 잇달아 푸르려 있고’, ‘흰머리’ 등에서 색채 이미지를 찾을 수 있지만, 이와 대비되는 색채는 사용되지 않았다.

**2** 섬나라(일본)에 사신으로 온 화자는 ‘고향이 그리워서 흰머리’가 날 정도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집 생각의 괴로움’을 견딜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㉒ 사신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 가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뜻이 꺾인 것에 대한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㉓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일러 주는 자연물, 즉 푸른 풀과 매화는 드러나지만, 그에 대한 예찬적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㉔ 화자가 사신으로서 임무가 끝나지 않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부정적이라 볼 수 있지만, 집에 돌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적극적인 의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㉕ 화자는 사신의 임무가 끝나지 않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지, 더 이상 고향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3** 이 글의 화자는 ㉔를 들으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즉, ㉔는 화자의 어지러운 심경, 즉 화자의 내면

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자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보기>에서 화자는 꿈에서 임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려 하지만, ㉒로 인해 잠에서 깨게 된다. 따라서 ㉔는 임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화자의 바람을 좌절시키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㉒, ㉔ ㉔는 화자의 괴로운 심경을 드러내며, ㉔는 화자의 바람을 좌절시키고 있으므로, 둘 다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교감의 대상이라 할 수 없으며, 화자로 하여금 여유로움을 갖게 해 준다고도 볼 수 없다. ㉒ ㉔는 화자 내면의 갈등을 심화시키므로 화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㉔는 화자의 바람을 좌절시키는 대상일 뿐, 화자에게 깨달음을 준다고 볼 수 없다. ㉕ ㉔는 화자 내면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시키는 대상이다.

**4** 화자는 ‘마음먹은 일은 자꾸 빛나가도다’에서 사신으로서의 임무가 마음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괴로움 어찌 견디랴’는 ‘집 생각’, 즉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오답 해설** ㉒ ‘섬나라’는 ‘일본’을, ‘하늘가의 길손’은 화자가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황을 드러내므로,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화자의 처지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㉒ 화자는 봄이 되어 푸르러지는 풀과 창가에 핀 매화를 바라보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간절히 느끼고 있다. 따라서 ‘풀’과 ‘매화’는 화자로 하여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더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㉓ 화자는 타향에서 바라보는 ‘달’이 고향도 비추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므로, ‘달’은 화자와 고향을 이어 주는 매개물이라 할 수 있다. ㉔ <보기>에서 작가가 사신으로서의 임무를 신하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여기는 것을 통해 나라와 임금에 대한 충심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따라서 화자가 ‘사나이가 사방에 뜻 두는 것이’ ‘공명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는 이러한 작가의 충심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㉔은 화자가 나라를 위해 바쁘게 살아왔음을 짐작하게 하는 것으로, 평생 동안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 애썼음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㉒ 풀이라는 구체적인 자연물과 푸른색이라는 색채 이미지를 통해 봄이라는 계절감을 형상화하고 있다. ㉓ ‘마음먹은 일’은 사신으로서 해야 하는 일로, 그것이 빛나간다는 것은 사신으로서의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㉔ 고국이 ‘바다 서편 언덕’에 있다는 것은 고향이 화자가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나타낸다. ㉕ ‘출로 앉아 긴 해를 보’낸다는 것을 통해 화자의 타지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확인할 수 있다.

**10** **봄비**

본문 215~220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5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 06 ‘종달새’와 ‘꽃밭’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정서와 대비시킨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08 화자의 애상적 정서와 봄의 생동감이 대비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인생무상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10 봄의 아름다운 정경을 묘사하고 있으나 이를 예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소망도 나타나 있지 않다.

내신 수능 대비 문제

1 ㉠ 2 ㉢ 3 ㉣ 4 ㉠ 5 ㉤ 6 입 앞에 타오르는 / 향연(香煙) 7 4연을 통해 입이 죽음으로 인해 부재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화자는 입을 그리워하며 애상적 정서를 보이고 있다.

1 감탄사는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이 비 그치면'이라는 상황을 가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이 비 그치면'이라는 시구가 1연과 3연에서 반복되고 있다. ④ '내 마음▽강나루▽긴 언덕에'와 같이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사용하여 죽은 입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전통적인 한의 정서를 담고 있다. ⑤ 화자의 애상적 정서를 나타내는 '비', '서러운 풀빛', '향연(香煙)'과, 봄의 생명력과 생동감을 나타내는 '푸르른 보리밭길', '종달새', '꽃밭', '처녀애들'을 대비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2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소망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⑤ 화자는 죽은 입을 그리워하며 슬퍼하고 있는데, 이러한 애상적 정서는 봄의 생동감과 대비되고 있다. ② '-것다'와 같이 담담한 어조를 사용함으로써 애상적 정서를 절제하여 표현하고 있다. ④ '이 비 그치면'이라고 상황을 가정하여 봄비가 그치고 난 뒤 봄의 정경을 상상하고 있다.

3 3연에서 '처녀애들'이 '짝하여' 서는 것은 화자가 상상한 모습으로, 화자의 애상적 정서와 대비되는 생명력 넘치는 봄의 풍경이다. 이러한 봄의 생동감은 죽은 입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애상적 정서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므로, 화자가 '처녀애들'이 '짝하여' 서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1연의 '서러운 풀빛'은 화자가 자신의 서러운 감정을 '풀빛'에 이입하여 표현한 것이다. ② 2연의 '푸르른 보리밭길'과 '종달새'는 생명력 넘치는 봄의 풍경으로, 애상적인 화자의 정서와 대비되고 있다. ③ 1연의 '비'는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반면, 2연의 '맑은 하늘'은 아름다운 봄의 풍경을 보여 준다. ④ 4연의 '향연(香煙)'은 '입'의 앞에서 타오르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입'의 죽음을 암시한다. '입'은 그리움의 대상으로, 죽음으로 인해 부재하는 상태이다.

4 이 글에서는 봄의 생명력 넘치는 배경과 대조되는 화자의 애상적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보기>에서는 '풀빛이 질'은 '강둑'이라는 배경과 대비되는 화자의 애상적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종달새'와 '꽃밭'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정서와 대비시킨다고 볼 수는 있으나, 현실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② <보기>는 단정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며, 화자의 의지 또한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보기>의 1~2구는 서경, 3~4구는 서정으로 선경후정의 방식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이 글은 1, 4연은 화자의 정서, 2, 3연은 봄의 정경 묘사로, 선경후정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⑤ 이 글과 <보기>는 모두 아름다운 자연과 화자의 슬픈 정서가 대비되고 있으나, 인생무상의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5 ㉠은 '서러운'이라는 시어를 통해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은 비에 씻겨 푸른빛이 질어진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그대'와 이별하는 화자의 슬픈 심정과 대비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과 ㉡ 모두 화자가 자신과 동화되기를 바란다고 볼 수 없다. ② ㉠과 ㉡이 비가 그친 후 질어지는 것은 맞지만 정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이 존재하는 '강나루'는 화자의 마음이라는 관념적 공간이다. 반면 ㉡은 현재 화자가 있는 '강둑'이라는 공간적 배경에 존재하는 자연물이다. ④ ㉠과 ㉡ 모두 색이 질어진다는 점에서 시각적 이미지가 드러나 있을 뿐 청각적 이미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11 다락

본문 221 ~ 227쪽

기본 실력 다지기

03 한옥이 사라지면서 다락도 사라졌음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8 역설적 표현은 드러나지 않는다.

13 글쓴이는 다락의 음습함을 음식은 것들에게서만 풍기는 향내로 인식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18 글쓴이는 다용도실이 다락의 의미와 가치를 대체할 수 없다고 본다.

내신 수능 대비 문제

1 ㉣ 2 ㉣ 3 ㉡ 4 ㉣ 5 ㉡ 6 안온함 7 다락은 힘든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때 도피처가 되어 주는 공간이다.

1 '자궁' 등의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다락의 의미와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다락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은 나타나 있지만,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②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건을 서술하고 있지 않다. ③ 집에 다락이 있었던 과거와 다락이 사라진 현재가 대비되지만, 과거에 대한 회한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⑤ 특정 인물이 아니라 공간(다락)과 관련된 일화를 제시하고 있다.

2 4문단에서 다락의 냄새를 악취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그들이 다락의 유용성을 폄하한다고 본 것은 아니며, 그들을 비판하고 있지도 않다.

오답 해설 ① 5~6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③ 이 글 전체에서 드러나는 태도이다. ⑤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자연물이 회상의 매개체로 작용하는 것은 <보기>뿐이다. <보기>에서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서 '반가운 그 옛날의 것', 즉 자연물인 눈을 본 것이 계기가 되어 눈과 관련된 어린 시절의 기억을 회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다락과 관련하여 글쓴이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지만, 자연물을 매개체로 회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다락이 있던 과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보기>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화자의 어린 시절(과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이 글은 다락이 사라져 가는 현실이, <보기>는 아버지, 혹은 아버지가 보여준 사랑이 부재한 현실이 창작의 계기가 되고 있다. ④ 이 글은 다락이라는 공간, <보기>는 성탄제라는 시간과 아버지라는 사람에 대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⑤ 이 글은 냄새라는 후각적 표현을 동원하여 글쓴이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보기>는 '어두운 방 안엔 / 바깥길 숲불이 피고, /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등에서 시각적 표현을, '젊은 아버지의 서드런 옷자락에 / 열(熱)로 상기한 불을 맡았어 부비는 것이었다.', '불현듯 아버지의 서드런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등에서 촉각적 표현을 동원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4 글쓴이가 그 집 사람들의 삶을 한 치의 가림도 없이 보여 준다고 생각하는 공간은 아파트이다.

오답 해설 ① '다락 속의 어둠에선 향내가 났었다. ~ '품던 공간'의 향내이기도 했다.'에서 알 수 있다. ② '거기서부터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느 곳에선가 ~ 생명이



품어지는 자궁과도 같다'고나 할는지'에서 알 수 있다. ㉓ '거기엔 꿈삭은 것들에게서만 풍기는 향내, ~ 것같은 냄새와도 같은 향기를 풍긴다.'에서 알 수 있다. ㉔ '사람들에게 간혹 자기의 삶을 숨기고 ~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에서 알 수 있다.

**5** 복숭아 껍질을 너무 먹고 싶었지만 귀해서 그럴 수 없었던 유년 시절의 경험을 '거부의 경험'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㉔은 이를 수 없었던 어린 시절의 갈망을 상기시킬 뿐 공포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㉑ 부재하는 대상, 곧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그리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㉒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도 젊은 시절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하고 있다. ㉓ 어린 글쓴이를 찾은 어머니가 다락에서 끌어내려 줌은 힘으로, 글쓴이에 대한 염려와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힘'으로 인식되고 있다. ㉔ "구석"이라는 것이 없이 온몸을 일시에 노출하기 마련인 아파트의 다용도 실과 다락을 어떻게 비견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2 낙지가

본문 228~233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3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고 있지 않다.
- 04 감탄사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 07 청각적 이미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㉓ 2 ㉑ 3 ㉔ 4 ㉔ 5 ㉑ 6 뜯구름, (날아다니는) 새 7 '고해'는 화자가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공간으로 멀리하고자 하는 반면, '누항'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공간으로 현재 유희자적하게 살아가면서 머물고 있는 곳이다.

**1** 인간과 자연의 대비는 나타나지만, 계절의 변화를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㉑ '뜯구름, 날아다니는 새' 등을 통해 '시비 없'이 '한가하'게 살고자 하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㉒ '공명이 무엇이라고 일생에 골몰할까', '남은 생이 얼 마련고 이 아니 즐거운가' 등의 설의적 표현을 통해 속세를 멀리하고 자연에 묻혀 살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㉓ '남가(南柯)의 한 꿈이라 황량(黃梁)이 덜 익었네.'에서 고사를 통해 인생의 덧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㉔ '욕심의 거센 물결', '탐욕의 샘물' 등에서 비유를 활용하여 경계하고자 하는 속세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2** 탐욕이 가득하고 다름, 시비가 있는 세태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 있다.

**오답 해설** ㉒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이 드러날 뿐 자연 현상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고 있지는 않다. ㉓ '남가(南柯)의 한 꿈이라 황량(黃梁)이 덜 익었네.'에서 인생의 덧없음을 드러내고 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는 않다. ㉔ '낮은 벼슬을 두루 거치고 부귀에 늪어서도'를 지나온 삶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를 반성하는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㉔ 탐욕으로 가득 찬 속세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를 경계하는 것은 아니다.

**3** <보기>에서는 비가 옴과 개는 자연 현상, 공명을 피하고 구하는 것이 대비되며, 이 글에서는 '여파'와 '고해', '속인'과 '신선' 등이 대비되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㉑ <보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는 대화 형식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글에는 대화 형식이 나타나 있지 않다. ㉒ 도치를 통한 사상의 마무리는 <보기>에만 나타난다. ㉓, ㉔ 점층적 표현이나 의인화는 이 글과 <보기> 모두 드러나지 않는다.

**4** '고해'는 인간 세상을 의미하므로 ㉓에 해당하고, '강산'은 화자가 한가롭고 편안하게 지내는 공간이므로 ㉔에 해당하며, '연못'은 화자가 바라보면서 평정심을 찾고 있는 대상이므로 ㉔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뜯구름'과 '새'는 세속에서 벗어나 자연에 머물러 한가하게 살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투영된 자연물이다.

**5** ㉑은 '남가일몽(南柯一夢)'과 '황량몽(黃梁夢)'이라는 고사를 활용하여 인생의 덧없음과 함께 부귀영화가 헛되고 부질없는 것임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㉒ '누항'과 '단표'는 화자의 소박한 삶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화자가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㉓ 몸은 속세의 사람이지만 마음은 신선과 같다는 것으로, 세속적 가치를 초월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차과감은 드러나 있지 않다. ㉔ 속세와의 물리적 거리는 가깝지만 정서적 거리는 멀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속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를 탄식하는 것은 아니다. ㉔ 다름과 시기가 없는 자연의 모습이 화자가 기대했던 바와 다른지는 알 수 없다.

## 13 청산행

본문 234~239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4 청산에서 내려다본 속세의 풍경이 제시되어 있지만, 청각적 이미지는 사용되지 않았다.
- 09 화자는 속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뿐, 속세에서의 삶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것은 아니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㉒ 2 ㉒ 3 ㉓ 4 ㉑ 5 ㉔ 6 들거미줄, 돌들 7 ㉔는 마을에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를 비유한 것으로, 속세의 고단한 삶을 의미한다.

**1** 화자는 청산에서 자연에 동화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㉑ 마음의 지향을 찾지 못해 고뇌했던 지난 삶의 모습(서른 번 다져 두고 서른 번 포기했던 관습(慣習)들)이 드러나지만, 일상적 삶을 반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㉒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은 찾을 수 없다. ㉓ 화자는 속세에서 고뇌하고 번뇌하는 삶을 살았었으며 속세를 떠나 청산에 들어왔지만, 자연에 동화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 방향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㉔ 청산에서 속세를 내려다보며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있지만, 과거가 갖는 의미를 성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실로 이 세상을 알아 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 잠들고 싶다'를 통해 자연에 동화되고 싶은 마음, 즉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소망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⑤ 화자는 현재 속세를 떠나 청산에서 머물고 있으며, 마음의 지향을 찾지 못해 고뇌했던 것은 화자가 속세에서 살 때의 일이다. 현실 극복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좌절이나 절망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3** ‘때까치들’은 속세, 즉 ‘산 아래’에서 ‘순결’하게 된다. 이는 화자와 달리 속세에 순응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때까치들’은 ‘야성(野性)을 버리고’ 있으므로 자연을 떠난 것이다. ② 화자는 ‘때까치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지 않다. ④ 화자는 속세에서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으나, ‘때까치들’이 과거 회상의 매개체가 되고 있지는 않다. ⑤ 화자가 외로워하고 있지는 않으며, ‘때까치들’이 화자를 도와주는 대상도 아니다.

**4** ㉠은 청산에서 생활하는 화자가 일상적 삶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모습으로, 속세에서 살 때와 인식이 완전히 변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② ‘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은 일상적인 소재들로 이것들을 생각하는 모습을 통해 속세에 대한 미련을 엿볼 수 있다. ③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는 것은 속세에 대한 미련을 드러낸 것으로, 화자가 지나온 삶을 성찰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④ ㉠은 속세에서의 화자의 지난 삶을 나타낸 것으로, 마음의 지향을 찾지 못해 고뇌했던 모습에 해당한다. ⑤ 화자는 ‘들거미줄’, ‘물들’과 함께 잠들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자연에 동화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 <보기>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자신의 내적 고뇌를 견디어 내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을 뿐, 번뇌를 극복한 상태에 이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의 화자는 속세를 떠나 청산에서 머물고 있다. ② <보기>의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를 통해 화자가 적막 속에서 내적 고뇌를 느낌을 알 수 있다. ③ 이 글의 화자는 청산에서 자연에 동화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지만, 속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⑤ ‘실로 이 세상을 알아 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 잠들고 싶다.’를 통해 자연에 동화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14 서울 사람들

본문 240~245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1** 작품 안의 서술자인 ‘나’가 자신의 내면을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에 해당한다.
- 05**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가 있는 액자식 구성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 07** 장면 전환이 잦다고 볼 수는 없으며, 사건이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지도 않다.
- 11** “우리끼리 이렇게 만나면서도 한 번도 여행을 해 본 적이 없군그래.”라는 말을 통해 ‘나’와 친구들이 그전에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 13** ‘나’ 역시 여행을 가자는 제안에 ‘언젠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자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었다.
- 15** ‘나’와 친구들은 삼 박 사 일을 채우지 못하고 하루 일찍 서울로 돌아왔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① 2 ⑤ 3 ④ 4 ④ 5 ④ 6 “인제 살 것 같군.” 7. 시골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떠난 것에 대한 부끄러움 2. 익숙한 도시(서울)로 돌아온 것에 대한 안도감

**1** ‘나’가 친구들과 함께 서울을 벗어나 시골로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체험과 그에 대한 ‘나’의 심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장면 전환이 잦다고 볼 수는 없으며, 사건이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지도 않다. ③ 액자식 구성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인물들이 서울을 떠나 시골로 여행한 하나의 사건만 나타나 있다. ⑤ 시대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2** ‘나’가 시골 출신인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숨이 퉁퉁 막히는 지점에서 쉽게 빠져나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안도감을 느끼는 자신들을 발견하고 있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다만 며칠을 견디어 내지 못하고 도망하듯 그 마을을 떠나는 데 대한 부끄러움 같은 것이 있었는지도 몰랐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④ ‘무고동이나 종로 바닥에서 맥주를 마시며 산촌의 정경을 얘기하던 자신들이 얼마나 일찍하고, 배부른 여담이었던가를 느끼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통해, 도시인의 소시민적 속성과 속물적인 허위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3** ‘나’와 친구들은 작가처럼 시골 출신으로 서울에 올라와 자리를 잡았으나 그들이 극적인 긴장을 느끼면서 살아가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보기>에서 작가의 작품에는 극적인 긴장을 요구하는 사건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으며, 작가의 삶에서 극적 긴장감이 느껴진다고 언급하지도 않았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 이 글은 시골 출신 서울 사람들의 허위의식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시골 출신 서울 사람들 ‘나’와 친구들의 허위의식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② <보기>에서 작가는 자기가 직접 체험하거나 관찰한 것을 주로 쓴다고 하였으며, 이 글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작가 자신이 시골 출신으로서 서울에서 성공한 언론인 겸 작가였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글 속 ‘나’와 친구들의 모습은 사실상 작가 자신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우리를 벗어 모두 산골 촌놈을 아니니.”를 통해 ‘나’와 친구들이 모두 시골 출신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맨날 서울 바닥에서 비비적거리고 살다 보니까 고단해 죽겠어.”를 통해 그들이 도시 서민들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⑤ <보기>에서 ‘그의 작품에는 대부분의 경우 극적인 긴장을 요구하는 사건이나 거창한 사건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며, 이 글 역시 비슷한 맥락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글의 ‘나’와 친구들이 시골로 여행을 떠나서 경험한 사건 역시 거창한 사건은 아니라고 추측할 수 있으며 인물들의 반응으로 보아 실제로도 그러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4** 삼 박 사 일의 일정으로 서울을 떠났으나 하루를 앞당겨 도망하듯 마을을 떠나왔다고 했으므로, ㉠은 서울에서 계획한 대로 실행된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에서 시골을 떠난 것은 먹고살기 위해 서울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에서 시골을 떠난 것은 답답한 시골 생활에 적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② ㉠에서는 시골을 동경하며 낭만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에서는 답답하고 불편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③ ‘나’와 친구들이 시골로 떠나기로 한 것(㉠)은 각박한 서울 생활(㉡)에 고단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⑤ 서울로 돌아온(㉠) ‘나’와 친구들은 시골(㉡)에서 겪은 답답함과 불편함 때문에 그동안의 서울 생활(㉡)을 고단하고 각박한 것에서 익숙하고 편안한 것으로 재인식하고 있다.

**5** ㉠은 시골로 여행을 떠나서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서둘러 서울로 돌아온 자신들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 것이지만, 시골에서의 생활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나'와 친구들은 삼 박 사 일을 채우지 못하고 서울로 돌아왔는데, 이는 여행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작정 여행을 떠나기로 한 것은 그러한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고 세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나'와 친구들은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는 삭막한 서울을 떠나 자연이 있는 시골로 가고자 하므로 ㉠은 여행을 추진하게 된 이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 ③ '돌소금'으로 이를 닦는 것을 시골에서 느낄 수 있는 낭만으로 여기는 것을 통해 여행에 대한 들뜬 기대감을 엿볼 수 있다. ⑤ '나'와 친구들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시골에 대해 막연한 동경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여행을 떠난 시골에서 숨이 막히는 답답함과 불편함을 느낀다. 따라서 ㉡은 기대와 달랐던 여행지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15 필레

본문 246~251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4 '그대'를 청자로 설정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05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과 '흰 찔레꽃'에서 각각 푸른색과 흰색의 색채 이미지가 확인되지만, 이를 통해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 06 '찔레꽃'이라는 자연물이 나타나지만, 인격을 부여해서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지는 않다.
- 07 과거와 현재가 대비적으로 그려지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드러나 있지 않다.
- 10 과거의 사랑을 '먼 여행'이라 표현하며 거기에서 '돌아와' 성숙한 사랑을 소망하게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즉, '돌아'온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④ 3 ④ 4 ⑤ 5 ③ 6 ② 7 예쁘고 뾰족한 가시로 / 꽃 속에 매달고 8 과거와 다른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따라 달라졌을 결과를 추측의 표현으로 제시하여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 1 수미상관은 작품의 시작과 끝에서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는 방식인데, 이 글에서는 '꿈결처럼 /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 서 있고 싶다'를 1연과 7연에서 반복하면서 수미상관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 오답 해설** ① 속마음과 반대되게 표현하는 반어적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③ 4~5연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지만 사상이 반전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④ '찔레꽃'이라는 자연물이 나타나지만 인격을 부여해서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지는 않다. ⑤ 대상에 대한 시선의 이동은 드러나지 않는다.
- 2 화자는 '오늘은 그 아픔조차 / 예쁘고 뾰족한 가시로 / 꽃 속에 매달고' '찔레로 서 있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는 가시를 뜯고 피어나는 찔레꽃처럼 사랑의 아픔(대상의 부재로 인한 고통)을 풍용·승화하는 성숙한 경지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대상으로 인한 괴로움은 과거의 일이고, 현재 화자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 성숙한 경지에 이르러 하고 있다. ② '사랑하던 그 사람'이 부재하는 대상 이긴 하지만, 그와의 재회를 소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대상이 부재하게 된 원인에 대한 언급은 없다. ⑤ 대상에 대한 원망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과거에 자신이 느꼈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3 ㉠에서는 '아픔이 출렁거'렸지만, ㉡에서는 '추억을 털며 / 초록 속에 가득히 서 있고 싶다'고 하였다. 여기서 '추억을 털며'는 ㉠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의 기억과 아픔을 털어 내는 것이므로, 이를 예전에 대한 그리움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며 아픔을 느꼈던 화자는 ㉡에서 그 아픔마저 포용한 '무성한 사랑'을 꿈꾸고 있다. ② ㉠에서 화자는 아픔 속에서 '우는 날이 많았'지만, ㉡에서는 '슬퍼하지 말'고 아픔까지 승화한 '무성한 사랑'으로 설 것을 다짐하고 있다. ③ '조금만 더 다가서면 / 서로 꽃이 되었을'에서 알 수 있듯이 ㉠에서 화자가 소망한 사랑의 완성은 '꽃'이었다. 하지만 그 '꽃'은 아픔과 슬픔, 고뇌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었다. 반면 ㉡에서 화자가 소망하는 것은 '찔레꽃'인데, 그것은 ㉠의 '꽃'과는 달리 아픔까지도 포용·승화한 것이다. ⑤ ㉡는 '많았었다, 잃어 갔다'와 같은 과거 시제의 서술을 통해, ㉠는 '~고 싶다'와 같은 현재의 소망을 표현하는 문장 종결 방식을 통해 서술되고 있다.

- 4 [C]의 '말을 잃어 갔다'는 과거의 아픔을 표현한 것이고, [D]의 '무성한 사랑'은 '예쁘고 뾰족한 가시'를 매달고 있는 현재의 성숙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무성한 사랑'으로 인해 슬퍼하는 화자의 모습이 '말을 잃어 갔다'에 나타난다고 설명하는 것은 선후 관계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무성한 사랑으로 인해 슬퍼하는 것이 아니었던 화자의 실제 모습과도 거리가 있다.

**오답 해설** ① '~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하는 방식이고, 반복은 정서를 강조·부각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서 있고 싶다'가 [A], [B], [D]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남으로써 소망의 간절함을 부각하게 된다. ② [A]의 '그리운 가슴'은 '찔레'로 서기 위해 여는 것이므로 과거의 정서에 해당하고, [D]의 '꿈결'은 '찔레'로 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느낌에 해당한다. ③ [B]에는 '꽃'이 되지 못한 과거의 사랑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난다. 그런데 [D]를 보면 이제 화자의 마음은 '아픔조차 / 예쁘고 뾰족한 가시로 / 꽃 속에 매달고' 서 있는 찔레꽃이 되기를 소망하게 된다. 꽃이 되지 못한 아쉬움이 내적으로 성숙한 모습이 꽃이 되고자 하는 소망으로 변모한 것이다. ④ [C]의 '우는 날이 많았었다'는 과거의 '그대 사랑하는 동안'에 일어난 일이므로, [B]의 '추억' 속에 있는 과거 화자의 모습에 해당한다.

- 5 ㉠은 '추억'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털 수 있는 구체적 이미지로, ㉡은 '아픔'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출렁거릴 수 있는 구체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추억'이나 '아픔'은 화자의 감정이 이입될 만한 구체적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감정 이입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털며', '출렁거리'를 역동적 이미지로 볼 수도 있지만, 생동감과는 거리가 멀다. ④ 모순된 표현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역설적 표현으로는 볼 수 없다. ⑤ ㉠은 촉각이 시각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에는 감각의 전이, 곧 공감각적 이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 6 이 글에서는 '서 있고 싶다'를, <보기>에서는 '피지 못했다'를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서는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이나 '흰 찔레꽃'과 같은 색채 이미지가 나타나지만, 이들이 대비되고 있지 않으며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지도 않는다. <보기>에서도 '하얀 것도 붉은 것도' 등에 쓰인 색채가 대비되고 있지 않다. ② 이 글과 <보기> 모두 공간의 이동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보기>는 대상인 '교향'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글은 화자의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다. ⑤ 대상의 이름을 부르는 돈호법이 쓰인 것은 <보기>뿐이다.

기본 실력 다지기

- 02 이별의 상황은 나타나지만 화자의 슬픔이 심화되지는 않는다.
- 06 영탄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 11 화자는 이별의 상황을 겪으며 사랑의 본질을 깨닫고 있지만, 희망의 의지를 다지고 있지는 않다.
- 16 화자가 새로운 사랑을 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⑤ 3 ④ 4 ② 5 ④ 6 ③ 7 화자와 이별하려는 그대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대와의 사랑의 추억만을 온전히 간직하겠다는 의미이다.

- 1 ‘추락하는 그대의 속도’ 등에서 하강의 이미지가 형성되지만, 지난 일에 대해 후회하는 심리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강보에 아기를 받듯’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정성스럽고 소중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② ‘나’라는 화자가 작품의 표면에 직접 드러나 여성적이고 독백적인 어조로 자신의 내면을 보여 주고 있다. ④ ‘그대가 아찔한 절벽 끝에 서 / 바람의 얼굴로 서성인다면’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그대가 처한 부정적 상태를 형상화하고 있다. ⑤ ‘-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술 표현을 반복하여 이별의 상황을 수용하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2 대조적 의미를 지닌 소재는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1연에서 화자는 이별의 상황을 가정한 뒤에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②, ③ ‘-습니다’라는 높임의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부드럽고 담담한 여성적 어조를 활용하여 이별의 상황을 대하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3 ㉠(절벽 끝)은 현재 그대가 ‘바람의 얼굴로 서성’이고 있는 공간으로, ‘그대에게 무슨 연유가 있겠거니’라고 그대의 행위를 이해하려 하는 화자의 태도를 볼 때 그대가 화자와의 결별을 결심하고 시행하는 곳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바닥)은 화자가 그대보다 빨리 떨어져 먼저 닿고자 하는 공간으로, 화자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곳이다. 따라서 ㉠은 화자와의 이별을 결심한 그대의 주체적 의지가 투영된 공간으로 볼 수 있고, ㉡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사랑하겠다는 화자의 주체적 의지가 투영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과 ㉡ 모두 희생적 태도가 드러나지 않는다. ② ㉠은 이별을 선택한 그대에 대한 화자의 이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에서 그대에 대한 실적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③ ㉡에서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겠다는 화자의 일관된 심리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지만, ㉠에서 그대의 가변적인 심리는 나타나지 않는다. ⑤ ㉡은 화자와 그대의 이별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볼 수 있지만, ㉠에서 화자와 그대의 재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 4 화자가 그대와의 이별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화자는 그대와의 이별을 담담하게 수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1연에서 화자는 그대의 선택을 존중하며 이별을 수용하고 있다. ③ ‘손 내밀지 않고 그대를 다 가지겠습니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다. ④ ‘내 생을

사랑하지 않고는 / 다른 생을 사랑할 수 없음을 늦게 일었습니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다. ⑤ ‘온몸으로 나를 받겠습니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다.

- 5 ‘그대의 뒷모습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겠습니다’는 화자와의 이별을 선택한 그대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화자가 ‘그대보다 먼저 바닥에 닿’으려 하는 것은 이별을 겪은 화자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사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지, 그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보기>의 ‘첫사랑과의 결별을 꽃이 떨어지는 현상과 대응시’켰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화자는 ‘수선스럽지 않’고 담담하게 이별을 수용하고 있다. ③, ⑤ <보기>에서 ‘첫사랑이 끝나 버린 이유에 대한 성찰을 거쳐 도출된 화자의 깨달음은 정신적 성숙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내 생을 사랑하지 않고는 / 다른 생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화자의 깨달음으로 볼 수 있으며, ‘강보에 아기를 받듯 온몸으로 나를 받겠’다는 것은 이러한 깨달음에 대한 실천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6 <보기>의 1연의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 님 한번 생각할 틈 없이 / 아주 잠깐이더군.’을 통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이별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이 드러난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이별에 대한 아쉬움이 나 안타까움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1연의 ‘아찔한 절벽 끝’에서 2연의 ‘바닥’으로의 공간적 배경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지만 화자의 태도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이 글의 화자와 <보기>의 화자는 모두 그대를 향한 마음을 독백적 어조로 토로하고 있다. 즉 두 작품 모두 그대를 청자로 상징하여 그대에 대한 화자의 심리를 독백적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 ④ <보기>는 꽃이 피고 지는 현상을 각각 그대와의 만남과 이별이라는 인간사와 대응시키고 있다. 하지만 자연 현상과 인간사를 대조하지는 않았다. ⑤ 이 글과 <보기> 모두 자연물을 의인화하거나 화자의 정서를 자연물에 입입하여 나타내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 7 ‘손 내밀지 않고’는 화자와 이별하겠다는 그대의 뜻을 존중하여 그대에게 짐착하거나 속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그대를 다 가지겠습니다’는 그대와의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을 기억하여 간직하겠다는 의미이다.

기본 실력 다지기

- 03 글쓴이와 아내와의 대화, 글쓴이가 가정한 ‘누군가’와의 대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주제 의식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 05 아내가 살아 있는 과거와 아내가 죽은 현재가 대비된다고 볼 수는 있으나, 변화된 사회의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 10 아내는 고향에 새로 집을 짓겠다는 글쓴이의 계획에 웃으며 즐거워하였다.
- 12 아내는 파주로 이사 오기 전에 죽음을 맞았다.
- 14 글쓴이는 자신이 죽기 전까지 봄가을에 나무 심는 일을 관례로 할 것이라고 하였을 뿐 자신이 죽은 후 후손들에게 계속 나무를 심을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 2 ㉡ 3 ㉢ 4 ㉣ 5 ㉤ 6 나무 7 글쓴이가 아내의 무덤에 나무를 심는 이유는 이승에서는 짧았던 아내와의 인연이 저승에서는 영원하기를 바라는 때문이다.

1 ‘앞으로 살아갈 방법은 피하지 않고 사후의 일반 계획한다’는 누군가의 말로 보아, 글쓴이가 미래에 살아갈 방법을 계획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② ‘오호라’라는 김탄사를 제시하여 글쓴이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③ ‘인간이 구구하게 살기를 도모하여 장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미혹이 아닌가’에서 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글쓴이의 깨달음을 나타내고 있다. ④ 글쓴이와 아내와의 대화, 글쓴이가 가정하 ‘누군가’와의 대화를 제시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2 ‘우리 산에는 아름답디나무가 많아 ~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었다.’로 볼 때, 글쓴이의 선산에는 원래 나무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집이 낡아서 집 안의 꽃나무까지 가꾸기가 싫어서’에서 알 수 있다. ② “늬기 전에 당신과 고향에 돌아가 ~ 머리가 세도록 함께 즐길 생각이요.”에서 알 수 있다. ③ ‘온 집안이 파주로 이사 오던 날, 내내는 관에 실려서 왔다.’에서 알 수 있다. ⑤ ‘살아서는 파주의 집에서 살지를 못했지만 ~ 살 수 있기에 그 즐거움이 그자없다.’에서 알 수 있다.

3 [A]와 [B] 모두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A]는 “꽃나무를 잘 가꾸면 우리 집의 좋은 구경거리가 될 거예요.”에서, [B]는 “꽃나무를 가꾸려 한다면 집도 손을 봐야 할 게요.”에서 알 수 있다. ② [A]에서는 다른 집 남자와 글쓴이를 비교하며 글쓴이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그러나 [B]에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드러나지 않는다. ④ [B]에서 글쓴이는 고향에 돌아가 집을 새로 짓고 아내와 함께 지내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A]에는 아내의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나지 않는다. ⑤ [B]의 “신경 쓸 필요가 굳이 있겠소?”는 실의적 표현으로 아내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A]의 “당신은 어쩌서 그와 반대로 집이 낡았다고 꽃나무까지 팽개쳐 두니요?”는 글쓴이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에 해당한다.

4 ㉠은 이승에서는 짧았던 아내와의 인연이 저승에서는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내내는 자신이 곧 죽을 것임을 예감하고 파주 집 옆에 묻어 달라고 한 것이다. ② 아내가 관에 실려서 왔다는 것은 파주로 이사 오기 전에 아내가 이미 죽었음을 의미한다. ③ 글쓴이가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아내의 무덤 근처에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으로, 선산을 무성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글쓴이는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 오래 살지 못하는 인간이 장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허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 그러나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은 아니다.

5 공간적 거리감을 제시하여 사별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글이 아니라 <보기>('은하물 동쪽 서쪽 그 멀고 먼 거리가 / 하늘과 땅의 거리인 걸 알게 하네')이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의 글쓴이와 <보기>의 화자 모두 아내가 죽어서 슬퍼하고 있다. ② <보기>는 당시 죽어 처음으로 베풀 한 벌 해 입혔네'에서 '베풀'이라는 소재를 통해 아내가 죽은 상황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 글은 '내내는 관에 실려서 왔다.'에서 '관'이라는 소재를 통해 아내가 죽은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④ 이 글은 '아내와 하루도 함께하지 못하고 뒤에 남은 자에게 슬픔만을 더하는 꼴'에서는 '슬픔'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어 글쓴이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지만, <보기>에서는 화자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보기>는 '견우직녀 설화'를 차용하여, 화자와 아내가 언젠가는 견우와 직녀처럼 다시 만날 것이라는 염원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는 설화가 차용되지 않았다.

18 무의도 기행

본문 265~272쪽

기본 실력 다지기

03 인물의 대사를 통해 과거의 일을 알 수 있는 부분은 나타나 있으나,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고 있지는 않다.

09 초월적 인물이 등장하고 있지 않다.

13 ‘때무리서 사공은 되지 말라’는 말을 통해 천명의 누나는 천명이 어부가 되지 않기를 바랐음을 알 수 있다.

14 천명은 두 형이 바다에서 죽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천명이 두 형이 바다에서 어부로서 죽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볼 수는 없다.

18 공주학은 발이 시렵지 않게 장화를 신을 것을 천명에게 당부할 뿐, 자신을 잘 따를 것을 당부하고 있지는 않다.

19 천명이 탄 배가 파선하여 천명이 바다에서 죽은 것은 맞지만, 공주학과 낙경이 천명의 시체를 찾아왔다고 하였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 2 ㉡ 3 ㉢ 4 ㉣ 5 ㉤ 6 보통이 7 천명에게 닥친 비극적 사건을 요약하여 들려줌으로써 비극성을 강화하며, 천명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관객도 공감하도록 유도한다.

1 “또 항구로 도망가서 외상 밥 치머구,”라는 공주학의 아내의 대사와 “항구에 가서 벌면 되지 않아요?”라는 천명의 대사를 통해 공간적 배경이 항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서 파선하여 천명이 죽은 것을 고려할 때 만선이 되어 돌아오는 어부들의 만족한 모습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어렸을 때부터 밤새 조개를 잡고 겨우내 고기를 절었다는 천명의 말로 볼 때, 고단한 삶이 드러나도록 남루한 옷과 어구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마지막 부분에 파선과 천명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사건이 제시된 것을 고려할 때, 조명은 어두운 분위기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어촌이 배경이므로 그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파도치는 소리를 준비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큰성, 작은성’ 등과 같이 향토적인 말씨를 구사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다.

2 천명은 자신을 배에 태우려는 공 씨, 공주학의 아내와 갈등한다. 공 씨는 가난한 집안 살림 때문에 천명이 배에 타기를 바라고 있으며, 공주학의 내내는 천명이 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잡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천명은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두 형으로 인해 배를 타는 것이 두려워 이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간의 갈등이 첨예해지는 것은 서로 자신들의 욕망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지, 서로 욕망이 같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올며)라는 지시문과 “아눔아, 에미 애비하구 살아갈라는데, 어디 수월한 게 있는 줄 아니?” 등의 공 씨의 대사로 보아, 공 씨는 천명이 배를 타기 싫어하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생활 형편 때문에 그것을 허락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② 천명은 공 씨가 자신을 배에 태우려는 바람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두 형의 죽음으로 인해 바다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므로 공 씨의 바람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흐느껴 우는 듯한 소리’로 말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

다. ㉓ “우리가 그 밥값 정만하느라구 ~ 미리 팔아서 변통을 했었소.”를 통해 알 수 있다. ㉔ 천명의 빛을 감아 주느라 변통을 한 공주학의 아내와, 두 아들을 잃고도 먹고살기 위해 막내아들마저 바다로 내보내려는 공 씨,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어릴 때부터 일을 한 천명은 모두 결핍을 경험하는 인물들로, 이들은 이러한 결핍으로 인해 각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3** 공주학이 천명에게 장화를 주는 것은 천명을 챙기는 것에 해당한다. 천명은 이미 배를 타기로 결정했으므로 그를 회유하기 위해 장화를 주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공주학의 아내는 천명을 고생하게 하여 그를 숙련된 어부로 만들고 싶어 한다. ② 공 씨는 아들을 바다에 내보내고 날씨가 안 좋으면 아들의 인위를 걱정하며 불안에 떨 것이면서도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바다에 내보내려 한다. ③ 공 씨는 두 아들을 잃고 막내아들인 천명마저 바다로 내보내려 하는데, 천명이 이를 거부하자 모진 말을 하면서도 눈물을 쏟고 있다. 이는 실상 아들을 바다에 보내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도 생계를 위해 보낼 수밖에 없는 공 씨의 내면적 갈등을 드러낸다. ④ 천명이 자신을 바다에 내보내려는 공 씨와 공주학의 아내의 말을 거부하면서 물에서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다와 배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4** <보기>에서 작가는, 인간은 현실 속에서 비극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는 시대적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을 이해한다면, 생존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배를 탈 수밖에 없었던 1930년대의 궁핍한 시대상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공 씨가 “이놈아, 네가 지금 물에서 버느니, 물에서 버느니 하구 있게 됐니? 긴긴 겨울을 떨 먹구살구, 할 때가 아니냐?”라고 하며 집안의 어려운 처지를 들어 천명을 설득하고, 천명은 처음에는 이를 거부하지만 결국 집안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천명이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나약한 젊은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작품이 창작된 1930년대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었느냐는 학생의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②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갈등은 나타나 있지는 않다. ④ 섬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천명이 용기를 잃지 않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인물은 아니며, 학생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⑤ 천명이 ‘물’을 동경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학생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하지 않다.

**5** ‘바다’는 두 형의 죽음으로 인해 천명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다.

**오답 해설** ② 공 씨가 배를 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 씨는 천명이 배를 타기를 바라고 있다. ③ 천명과 주변 인물 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공간은 바다가 아니라 섬이다. 바다에서는 천명의 죽음으로 인해 천명과 주변 인물 간의 갈등이 비극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④ 천명은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 바다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나가게 된 것이다. 이는 운명의 순응에 해당한다. ⑤ 공주학의 아내는 천명의 빛을 이미 감아 주었으며, 천명을 바다에 내보내려 하고 있다.

**19** 모래톱 이야기

본문 273~279쪽

기본 실력 다지기

**01** 작품 안의 서술자인 ‘나’가 인물들의 행동과 모습을 서술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05** 서술자는 ‘나’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08** 윤춘삼의 말을 통해 과거 회상이 드러나지만, 과거와 현재 사건을 병치하여 갈등 해결 방안을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13** 유력자가 만든 엉터리 독은 섬사람들에 의해 허물어졌다.

**16** ‘나’는 조마이섬 사람들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는 않는다.

**17** 건우는 학교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나’가 건우를 통해 조마이섬에 군대가 들어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볼 수는 없다.

**18** 각골통한(刻骨痛恨): 뼈에 사무질 만큼 원통하고 한스러움. 또는 그런 일

**오답 해설** 노심초사(勞心焦思):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 / 전전반측(顛轉反側):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 / 풍수지탄(風樹之嘆):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여읜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 / 후회막급(後悔莫及): 이미 잘못된 뒤에 아무리 후회하여도 다시 어찌할 수가 없음.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㉓ 2 ㉔ 3 ㉒ 4 ㉓ 5 ㉒ 6 홍수 7 부당한 유력자의 횡포와 이로 인한 섬사람들의 고통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고발한다.

**1** 조마이섬의 내력과 홍수로 인해 갈등이 고조된 섬의 상황에 대해 서술자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1인칭 관찰자인 ‘나’가 건우 할아버지나 윤춘삼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조마이섬을 묘사한 부분은 찾을 수 없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낭만적이지도 않다. ② 의식의 흐름 기법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처음부터 끝까지 1인칭 관찰자에 의해 사건이 전달되고 있으며, 장면의 전환에 따른 시점의 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 ⑤ 앞부분은 조마이섬의 내력을 전해 듣는 부분이고, 뒷부분은 건우 할아버지와 유력자의 하수인들이 충돌했던 사건에 대해 전해 듣는 부분이다. 뒷부분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 두 사건이 동일한 시간대에 펼쳐진 것은 아니다.

**2** ‘증오의 빛’은 일제에 대한 윤춘삼의 적개심을 드러낸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일제 강점기 이전 조마이섬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섬사람들의 땅이었다. ③ ‘국회 의원’과 ‘유력자’는 섬을 개척한 섬사람들을 소위시키고 조마이섬의 소유권을 빼앗은 권력자들이다. ④ 섬사람들은 선조 때부터 독을 만들어 물과 싸워 가며 섬을 개척해 왔다. ‘독’은 그러한 섬사람들의 삶의 내력이 담긴 소재이다. ⑤ 건우 할아버지가 권력자들에게 삶의 터전을 부당하게 빼앗긴 것에 분노하는 말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저주하듯 한 감정을 쏟아내는 것은, 부당하게 빼앗긴 땅에 대한 원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보기>에서 ‘손에 권 종이(토지 문서)’를 움켜쥐고 부르르 떠는 건우 증조부(S#98)와, ‘종이 조각(토지 문서)’을 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맞서는 건우 할아버지(S#99)는 조마이섬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빼앗긴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데, 조마이섬의 소유권 이전에 찬동하는 인물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S#98 시작 부분에서 ‘길게 펼쳐진 조마이섬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섬의 전체적인 지형을 카메라에 담은 E.L.S.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② 일제 때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를 수탈한 사실이 [A]에서는 서술자의 요약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S#99에서는 대사로 제시되어 있다. ③ 섬에서 나가라는 ‘시커먼 놈들’

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우 할아버지의 대사를 통해, 관객들은 이후에 벌 어질 갈등 상황에 긴장감을 느낄 수 있다. ㉔ S#98에서는 건우 증조부가 “대명천 지에 이룰 수는 없는 기대!”라는 대사를 외치고, S#99에서는 건우 할아버지가 역시 같은 대사를 외치며 억울함을 표출하고 있다.

**4**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이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건우가 썼던 ‘섬 얘기’에 몇 가지 일화가 붙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이야기가 건우의 ‘섬 얘기’를 원천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보기>에서 등장인물들이 저항적 주체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건우가 그 중심이라고 볼 근거는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 작가는 공동체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나’의 이야기를 창조하였다고 했는데, 이 글의 ‘나’는 상대방의 말에서 연관된 역사적 사실을 떠올리거나, 원한과 저주의 깊은 감정을 읽어 내는 등 적극적으로 공감적인 태도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② 건우가 쓴 ‘섬 얘기’가 땅의 소유권에 관한 어른들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으로 볼 때, 건우는 섬의 억울한 현실을 기록하고 증언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④ ‘기막히는 일화’의 ‘기막히는’은 어처구니없는 현실의 부조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의 이야기에서 그런 일화를 다루는 것은 부조리한 실상을 드러내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⑤ <보기>에 언급된 권력의 횡포에 의해 ‘뿌리 뽑힌 사람들’은 권력자들에게 땅을 빼앗긴 심사람들로, 이를 통해 작가가 권력의 횡포를 비판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5** ㉔은 공평하지 못한 법 앞에 다수의 민중들이 회생당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현실을 접하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한 모습을 ‘이방인처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나’는 심사람들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을 뿐, 자신에게도 닥칠지 모를 위협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다. ② ‘유력자의 배짱과 선량한 다수의 목숨’을 통해 ‘나’가 부조리한 현실의 모순을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 ③, ⑤ 유력자와 심사람들 사이에서 누구 편을 들지에 대해 갈등하거나, 심사람들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심리는 나타나지 않는다.

## 20 제3 인간형

본문 280~287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6** 조운이 석에게 미이를 만났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과거 회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를 통해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 08**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한 조운의 반성적 고백이 나타나 있지만, 이것이 인물 간의 새로운 외적 갈등을 예고하고 있지는 않다.
- 10** 사변 전 석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다.
- 11** 조운이 미이에게 검정 벡타이를 받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삼 년 동안 정신적으로 타락의 길을 걸었다는 것에서, 조운이 자신의 현재 삶을 부정적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 14** 미이는 경제적 이유가 아닌 시대적 요구에 따른 사명에 의해 간호장교가 되기로 선택한 것이며, 조운이 이를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㉔ 2 ㉔ 3 ㉔ 4 ㉔ 5 ㉔ 6 검정 벡타이 7 조운에게 ‘사명’이란, 문학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창작을 통해 문학적 신념을 펼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 사건의 전개보다는 인물의 심리 변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 서사 흐름이 미미하며, 사건이 속도감 있게 전개된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조운의 반성적인 어조를 통해 전쟁 이후의 지식인의 방황이라는 주제 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② 6·25 전쟁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사실성을 획득하고 있다. ③ <중략 부분 줄거리> 이전 부분에서 석을 초점 화자로 설정하여 조운의 과거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중략 부분 줄거리> 이후 부분에서는 조운이 초점 화자로 설정되어 있다. ④ 조운과 미이라는 인물의 삶을 비교함으로써 6·25 전쟁과 피란 상황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변모해 가는지 를 조망하고 있다.

**2** 미이는 조운이 과거의 바람직한 모습을 찾기를 바라며 그에게 검정 벡타이를 선물했지만 그를 비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중략 부분 줄거리>와 ‘삼 년 동안 내가 정신적으로 ~ 자네를 찾은 것은 이 때문일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조운이 ‘문학에 대한 결백성을 굳게 지켰다는 것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문(賈文)을 하지 않았다는 것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삼 년 동안 내가 정신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을 뼈아프게 느끼었네.’라는 조운의 말을 통해, 그가 자신의 현재 삶을 부정적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⑤ ‘구르면서 걸어잡으려고 한 것이 친구의 구원이었네. 자네를 찾은 것은 이 때문일세……’라는 조운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검정 벡타이는’ ‘미이가 속세에 초연했던 당시의 조운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물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조운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조운은 검정 벡타이를 본 후 낭떠러지를 굴러떨어지는 느낌을 받았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석을 찾았다고 하였다. ②, ③, ⑤ ‘검정 벡타이’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 문학에 대해 높은 신념을 가지고 있던 조운이 매고 있던 것으로서, 미이는 과거 조운이 지녔던 문학적 신념을 떠올리며 조운이 그것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검정 벡타이’를 선물하고, 조운은 미이로부터 ‘검정 벡타이’를 선물 받았음으로써 현재 자신의 속물적인 삶을 각성하며 반성하게 된다.

**4** [A]에서 조운은 석에게 자신과 미이 사이에 있었던 그간의 일을 요약하여 차례대로 설명한 뒤, 그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조운이 미이와 있었던 일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을 뿐, 자신의 삶이 변모한 이유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미이가 남기고 간 꾸러미 속 검정 벡타이를 본 뒤 자신이 겪게 된 내적 갈등을 밝히고 있을 뿐, 미이와의 외적 갈등에 대해 밝히고 있지는 않다. ④ 미이의 처지에 공감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미이가 조운에 대해 평가한 내용이나 조운이 논박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5** 조운이 석을 찾아온 것은 같은 문학청년이었던 석을 만나 잊고 지냈던 사명을 되찾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 석을 찾아온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 따르면 전쟁 전 조운을 비롯한 세 인물들은 모두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가던 인물들이었다. ② 미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장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사명을 찾아간 것으로, 이는 전쟁 후 변모된 삶으로 볼 수 있다. ③ 조운은 <보기>의 ‘전쟁 후 문학에 대한 신념을 완전히 버린 채 속물적 인간으로 전락’한 인물에 해당한다. ④ <보기>에서 두 남성(조운, 석)에게 한 여성(미이)이 현재의 삶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였다.

## 21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본문 288~293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4 인물의 부재나 그에 대한 그리움을 다루고 있지 않다.
- 12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남의 이목을 끌지 않으려는 태도를 표현한 것으로, 억압적 사회 분위기와 현실에 순응하는 태도를 추리할 수 있다.
- 14 '늬'는 순수와 열정을 상실한 화자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도 벗어날 수 없는 소시민적 삶의 굴레 또는 억압적 현실을 상징한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⑤ 2 ④ 3 ③ 4 ② 5 ④ 6 부끄럽지 않은가 / 부끄럽지 않은가 7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순수, 이상, 열정이 사라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 1 음성 상징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답해설 ① '4·19가 나던 해'와 '18년 후'라는 구체적인 시간, '해화동 로터리', '동송동 길'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이 드러난다. ② 18년 전 친구들의 모임, 현재의 친구들의 모임 등 일상적인 삶에서 얻은 구체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③ 18년 전과 후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대비하여 현재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④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노래를' 등과 같이 대구와 반복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면서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2 (A)에서는 '대포'를 마시던 소박한 젊은이들이, (B)에서는 '적잖은 술과 비싼 안주를 남'기는 사람들로 변모하였다. 여기서 '적잖은 술과 비싼 안주'를 남겼다는 것은 그들이 어느 정도의 부와 지위를 얻어서 더 이상 가난하지도, 소박하지도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세속적 이익만을 좇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답해설 ① (A)에서는 '열띤 토론을 벌'이던 열정적 젊은이들이, (B)에서는 혁명을 두려워하는 기성세대가 되었다. ②, ③ (A)에서는 '무엇인가를 / 위해서 살리라 믿었던' 순수한 젊은이들이, (B)에서는 '모두 무엇인가 되어', 즉 현실적인 직업과 지위를 가진 기성세대가 되어 순수와 열정, 이상을 잃어버린 채 '살기 위해 살고'는 소시민이 되었다. ⑤ (A)에서는 '저마다 목청껏' '노래를' 부르며 이상을 추구하던 젊은이들이, (B)에서는 '아무도 이전 노래를 부르지 않는', 즉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 3 ④를 부르던 '우리'가 18년 후에는 ⑤를 주고받고 있다. 이는 '우리'의 변화가 ④에서 ⑤로의 변화로 표현된 것인데, ⑤는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한 소문으로, 여기에는 ④에 답했던 이상이나 순수, 열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⑤를 ④가 현실에서 구체화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답해설 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대가가 없더라도 옳다고 느낀 것에 대해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이므로, ⑤는 젊은 날에 꿈꿨던 순수한 열정과 이상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겨울밤 하늘로 올라'간 '노래'가 '별뿔별'이 되었으므로 ⑤는 ②와 같은 함의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⑤는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 곧 젊은 날의 순수와 열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⑤는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한다. 따라서 ⑤는 우리에게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는 존재로 볼 수 있다.
- 4 '부끄럽지 않은가 / 부끄럽지 않은가'에서 현재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반성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답해설 ① '무엇인가를 / 위해서 살리라 믿었던' 과거의 '우리'에 대해 '어리석게도'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그 시절의 그러한 믿음이 기성세대가 된 화자의 눈에 어리석게 보일 정도로 순수했음을 표현한 것이다. 과거를 어리석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그것을 후회하는 것도 아니다. ③ 소식을 알 수 없는 친구에 대한 그리움은 확인할 수 없다. ④ '낮선 건물들 수상하게 들어섰고'에서 변해 버린 공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친구들과의 관계가 형식적임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 섭섭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다.

- 5 ⑤의 '바람의 속삭임'은 '부끄럽지 않은가 /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꾸짖는 내면의 소리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속삭임을 '귓전으로 흘'린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일깨우는 내면의 꾸짖음을 외면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즉, 자연의 아름다움을 외면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답해설 ① '노래를 / 저마다 목청껏 불렀'으므로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당당하게 드러내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② 세상을 진정으로 염려한다면 거기에는 즐거움이 존재하기 어렵다. 따라서 '즐겁게 세상을 개탄'한다는 것은 건성으로 세상을 비판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③ ⑤를 통해 목소리를 낮추는 상황이 익숙하다는 것을 추리할 수 있다. 이는 억압적 사회 분위기와 현실 순응의 태도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절대로 빠져 나올 수 없는 늪에 스스로 '발을 옮'기는 행위는 소시민적 인 삶, 혹은 억압적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무기력한 소시민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2 설일

본문 294~299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2 반어적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 06 '겨울나무'와 '새해'라는 시어를 통해 시간적 배경이 겨울임은 알 수 있지만, 시간의 흐름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인 겨울나무의 변화 과정도 나타나 있지 않다.
- 09 첫 연과 마지막 연이 동일한 혹은 비슷한 형태를 띠는 수미상관은 사용되지 않았다.
- 10 묻고 답하는 형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⑤ 3 ② 4 ④ 5 ③ 6 백설 7 삶이나 사랑에서 겪는 고난과 시련을 신이 마련한 은총과 섭리로 인식하고 있다.

- 1 화자는 겨울나무를 바라보며 얻은 깨달음을 통해 긍정적 삶의 자세를 다지고 있다.  
 ○답해설 ① 화자가 외톨이로 지낸 경험을 언급하고 있지만, 내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③ 화자는 삶과 사랑이 신의 은총과 섭리로 이루어졌다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긍정적 삶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대해 절망적 인식을 보인다고 할 수 없다. ④ 화자가 시적 대상인 겨울나무에 대해 연인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찾을 수 없다.



2 눈 내리는 새해 아침에 화자가 눈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너그럽고 겸허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지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4연의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1연을 통해 화자가 겨울나무와 '투명한 빨래처럼' 겨울나무에 걸린 바람을 바라볼 수 있다. ③ 3연을 통해 화자가 삶을 살고 사랑하면서 고난과 시련을 겪는 것도 신의 은총과 섭리로 여김을 알 수 있다. ④ 2연의 '혼자는 아니다 /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 나도 아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3 ㉓는 홀로 서 있는 자연물이지만, 화자는 바람이 ㉓와 함께 있음을 깨닫고 있다. 이를 통해 누구나 혼자가 아니라는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㉔는 고통을 견디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고통과 시련의 삶을 의지적 태도로 견뎌 내려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㉓와 ㉔ 모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대상은 아니다. ③ ㉓는 화자가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냉소적 태도가 투영된 자연물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이 글의 화자가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있기는 하지만, ㉓가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 ⑤ <보기>의 화자가 '외로운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㉓가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하고 있지는 않다.

4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은 화자가 과거에 살아가던 방식으로, 화자는 앞으로 이러한 모습을 고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화자가 이러한 과거의 모습을 지우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겨울나무와 바람을 바라보며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누구나 혼자가 아니라는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혼자는 아니다'의 반복은 이러한 화자의 깨달음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② '하늘 아래 외물이로 서 보는 날'은 화자가 삶에서 경험한 외로움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화자가 삶속에서 경험한 시련의 시기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삶이 '은총의 돌출계의 어디쯤'이라고 한 것은, 삶에서 겪는 고난은 신의 은총이므로 고난 또한 삶의 일부임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보기>에서 말한 성숙한 삶의 태도에 해당한다. ⑤ 화자가 '한세상'을 '황송한 축연'이라 여기는 것은 삶에 대한 화자의 겸허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돌출계'는 고난과 시련을 의미한다. 화자가 '돌출계'를 '은총'이라 표현한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도 신이 주는 은총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㉔를 절망감에 빠진 화자를 비유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겨울나무는 바람과 함께함으로써 혼자가 아닌 게 되므로, ㉓는 겨울나무가 고독하지 않은 존재임을 드러내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② 화자가 혼자가 아닌 이유는 '하늘'이 있기 때문이므로, ㉔는 화자가 혼자가 아니라고 여기는 이유와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㉔는 화자가 이제까지 하였던 타인이나 세상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화자가 지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 ⑤ ㉔는 '순수의 얼음꽃'이 '다시 땅 위에 떨어지는' 것이므로, 화자가 추구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23 상한 영혼을 위하여

본문 300~305쪽

기본 실력 다지기

04 '상한 갈대', '부평초 잎'과 같은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자연물을 의인화하고 있지는 않다.

06 어조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① 2 ① 3 ③ 4 ③ 5 ⑤ 6 상한 갈대, 부평초 잎 7 화자는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면함으로써 고통을 수용하며 그것을 견디려 하고 있다.

1 2연의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라 / 가기로 작정하면 지는 해가 문재랴' 등에서 대구를 통해 화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새순'이나 '꽃'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계절의 흐름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사물을 의인화하고 있지 않으며, 화자는 낙관적 믿음을 바탕으로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상한 영혼이여'나 '고통에게로 가지' 등에서 추상적 관념인 '영혼'이나 '고통'이 구체적인 대상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지, 이들이 공감각적인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과거 화상이나 반성적 태도는 찾을 수 없다.

2 ㉔는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㉓는 힘겨운 시련이나 고통을 상징하므로 ㉔와 ㉓는 상징하는 의미나 기능이 서로 다르다.

오답 해설 ②, ⑤ ㉓와 ㉔는 고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견뎌냄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성숙한 삶의 경지(새로운 생명)인데, 이를 위해서는 힘겨운 시련이나 고통을 상징하는 ㉓를 거쳐야 한다. ③ '물 고이던 꽃은 피거니'로 볼 때,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㉓는 ㉔가 피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조건이라 할 수 있다. ④ ㉓는 암흑과 같은 상황을 밝혀 주는 존재로, ㉔가 있으면 ㉓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3연의 '바람'은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즉 바람은 막아도 부는 것이 순리인 것처럼 세상에 영원한 것도 없는 것이 순리이다. 따라서 '영원한 눈물'과 '영원한 비탄' 즉 영원한 고난은 없다는 것이 화자의 인식이다. 따라서 ㉔를 영원한 운명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공간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1연에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존재도 '뿌리 깊이면야' '새순'이 돋는다고 했다. 그러므로 ㉓는 굳건한 이미지를 가진다. ② ㉓의 '별편'은 갈대가 뿌리를 내리고 지라는 지상의 공간으로, 초월적 공간인 '하늘'에 대응하는 현실적 삶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④ 3연에서 화자는 '밤'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㉓는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맞서야 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⑤ '손'은 '캄캄한 밤'에 '오고 있는' 희망을 암시하는 존재이다. 또한 '별편'에 서서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㉓는 희망이 예비된 공간이다.

4 [A]의 '새순'은 '밑동 잘리어도' 돋는 것이며, [B]의 '등불'은 '이 세상 어디서나' 켜지는 것이다. 갈대는 밑동이 잘리는 고난에도 '새순'이 돋는데, 이는 갈대가 고난을 이겨 낼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세상 어디에서도 '등불'이 켜진다는 것은 세상이 어두워지더라도 밝은 빛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즉, '등불' 역시 고난 극복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오답 해설 ① [B]의 '개울'은 '등불'과 마찬가지로 세상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고난 극복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② [A]에서 '상한 갈대'는 '한 계절' 동안 '넉넉히' 흔들린다고 했으므로, '한 계절'은 상한 갈대가 감내할 수 있는 시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극한 상황을 비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A]와 [B] 모두 현실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겨 낼 수 있는 자세를 강조할 뿐,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비판하고자 하는 어조는 찾을 수 없다. ⑤ [A]에서 [B]로 전개되면서 화자의 낙관적 믿음과 의지적 태도가 반복적으로 변주되면서 강화되고 있다.

5 '깜깜한 밤'은 시련과 고통이 존재하는 부정적 현실을, '마주 잡을 손'은 그러한 부정적 현실 속에서 시련과 고통을 함께할 동반자나 구원의 손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하늘 아래'는 피해 갈 수 없는 고통을 혼자 견어야 하는 암담한 현실이 아니라, 그러한 고통을 '마주 잡을 손'과 함께 견뎌 낼 수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상한 갈대'와 '부평초 잎'은 시련이나 고통을 이겨 내며 살아가는 존재로, 화자는 이들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있다. ②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지'와 '가지 고통이여 실 맞대고 가지'에는 고통에 맞서며 이를 수용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③ '고통과 실물의 땅'을 지나 서는 '뿌리 깊은 벌판'은 화자가 고통에 맞서 이를 이겨 내고 도달한 세계로, 화자가 지향하는 성숙한 삶의 경지에 해당한다. ④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는 고통을 극복한 미래에 대한 긍정적 확신을 드러낸 것이다.

## 24 아름다운 흉터

본문 306~311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4 대체로 긴 문장을 사용하여 글을 전개하고 있다.
- 06 직장 선배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제시하고 있을 뿐 대화가 사용되지 않았다.
- 10 초등학교 1학년 때 소풍을 앞둔 설렘으로 개의 목을 조르다 개에게 물려서 생긴 흉터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 14 '그렇다면, 그것은 오직 나만의 자랑이나 내세움거리로 삼을 수는 없으리라.'로 보아, 흉터를 글쓴이 자신만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② 3 ④ 4 ④ 5 ⑤ 6 ③: 부끄러움, ⑥: 고난 / 시련 / 어려움  
7 삶의 과정에서 얻은 상처의 흔적을 '떴떳하고 자랑스런 내 삶의 한 기록'이라고 한 것을 통해 독자는 고통을 겪은 경험이 있는 스스로의 삶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다.

1 흉터를 삶의 기록, 삶을 비추는 거울과 같이 비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흉터가 지닌 가치를 밝히고 있으나, 설의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어린 시절 손에 세 종류의 흉터가 생기게 된 경험을 제시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다. ③ 도회지 아이들의 손과 글쓴이 자신의 손을 비교하면서 부끄러움이라는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④ 글쓴이는 자신의 손에 있는 흉터를 부끄러워했으나 이후 이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운 삶의 흔적일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고 이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⑤ 흉터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을 변화한 직장 선배의 말을 직접 인용으로 제시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2 글쓴이가 도회지 아이들의 집안 형편을 부러워한 것은 아니다. 그들의 회고 깨끗하고 부드러운 손과 달리 상처투성이인 자신의 손에 부끄러움을 느꼈을 뿐이다.

오답 해설 ① 초등학교 5학년 때 신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가 마른 가지 끝에 손등을 찌른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직장 선배의 손등에 글쓴이보다도 '더 많은 상처 지국들이 수놓여 있'었다고 하였다. ④ 우리 누구나가 삶의 상처와 그 흔적들을 지니고 살아가게 마련이라고 하였다. ⑤ 요즘 사람들 가운데엔 남의 아픈 상처의 숨은 뜻이나 값을 읽어 주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고 하였다.

3 '눈에 보이게든 안 보이게든'은 '사람들 눈에 띄든 띄지 않든'의 의미가 아니라 '물리적인 상처이든 심리적인 상처이든'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글쓴이는 흉터 많은 자신의 손을 패개로 얻게 된 깨달음을 심리적인 면에까지 확대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초등학교생이었던 글쓴이가 남의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 도둑 톱질을 했다는 것을 통해 집이 가난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② 글쓴이의 손에 있는 흉터를 보고 '어려운 시절을 힘차게 살아' 낸 흔적이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③ 직장 선배의 손의 흉터는 어려운 삶을 깨끗하게 견디며 살아오는 과정에서 생긴 흔적이었으므로, 선배는 글쓴이의 손의 상처를 보고 그가 힘차게 살아 냈다고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⑤ 흉터가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시련을 견디며 살아온 삶의 한 기록일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흉터가 삶의 매우 단단한 마디이자 숨은 값이라는 삶의 교훈을 얻은 것이다.

4 경구를 사용하여 글을 마무리하고 있을 뿐 고사성어를 활용하지는 않았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삶의 단단한 마디이자 숨은 값인 상처의 흔적이 '나만의 자랑이나 내세움거리'가 아니라고 하며 타인에게까지 확대하여 인식하는 모습을 보인다. ② 요즘 사람들이 작은 상처나 흉터 하나 지니지 않으려 하고 남의 아픈 상처의 숨은 뜻도 읽어 주지 못한다며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상처의 흔적을 삶을 비추어 보는 거울에 비유하여 그것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⑤ 마지막 문장을 경구로 마무리함으로써 주제를 압축하여 전달하는 한편 여운을 남기고 있다.

5 '그렇다면, 그것은 오직 나만의 자랑이나 내세움거리로 삼을 수는 없으리라.'로 보아 글쓴이는 흉터를 자신만의 자랑스러운 기록이라고 생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초등학교 1학년 때 개에게 물렸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나무하러 갔다가 마른 가지 끝에 손등을 찌었다고 하였다. ② 중학교 때 시골에서 광주로 전학을 나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③ 중학교 때 도회지 아이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흉터들이 큰 부끄러움거리가 되었다고 하였다. ④ 직장의 한 나이 든 선배로 인해 흉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겪게 되면서 흉터가 떴떳하고 자랑스러운 삶의 한 기록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 25 초토의 시 8- 적군 묘지 앞에서

본문 312~317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1 동일한 시구의 반복은 나타나지 않는다.
- 02 역설적인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 07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② 3 ④ 4 ⑤ 5 ① 6 구름 7 동족상잔의 비극이 아무리 잔혹  
 했어도 한 민족이자 인간으로서 지닌 사랑과 연민의 감정을 훼손할 수는 없음을  
 보여 준다. / 이념적 증오를 초월한 화해와 포용력을 가진 마음의 표현이다.

1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부조리한 현실의 폐단을 고  
 발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너희의 / 풀지 못한 원한이 나의 / 바램 속에 깃들어 있다.’에서 적  
 군과 화자의 한을 동일시하여 화해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② 1연  
 에서 ‘오호’라는 감탄사를 통해 적군의 죽음을 애도하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③ 전체적으로 독백적 어조를 사용하여 통일을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  
 내고 있다. ⑤ 7연의 ‘목 놓아 버린다.’에서 ‘목 놓다’라는 관용 표현을 활용하여 화  
 자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 ‘나와 너희의 녀들이 / 돌아가야 할 고향 땅’은 화자가 실향민일  
 수도 있고 동족상잔의 상처를 안은 우리 민족 전체일 수도 있다는  
 <보기>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시구로 볼 수 있다. 이것이 민족 전  
 체의 아픔을 극복하고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한 계기를 마련한 것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양지바른 두메’에 적군의 묘지를 만들어 주는 것은 숭고한 동족애와  
 휴머니즘에서 나온 행동이다. ③ ‘천만근’은 적막감, 허탈함의 깊이를 나타낸 것으  
 로, ‘무인공신의 적막만이 / 천만근 나의 가슴을 억누르는데’를 통해 분단의 고통이  
 화자의 깊은 곳에 내면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너희의 / 풀지 못한 원한이 나의  
 / 바램 속에 깃들어 있다.’는 적군과 화자의 한을 동일시하여 화해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우리 민족의 아픔을 자기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목  
 놓아 버린다.’를 통해 분단 현실에 대한 통탄을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3 ③은 미움과 사랑을 초월하는 죽음을 통해 이념 대립의 허망함과  
 생명의 고귀함,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생무상과 체념의 정서  
 는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현재 적군의 묘지 앞에서 적군을 애도하며 분단 현실에 대한  
 통탄과 통일에 대한 염원을 생각하고 있다. ② 적이 되어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었  
 던 동족상잔의 비극과 전쟁의 냉혹함을 보여 주고 있다. ③ 적군의 시체를 적나라  
 하게 묘사하여 전쟁의 참혹성과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⑤ 고향 땅으로 가는 길  
 이 가로막힌 것은 분단 때문으로, 녀조차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분단의 비  
 극적 현실을 보여 준다.

4 이 글에서는 분단의 현실이 자연과 대비된다고 볼 수 있지만 6연  
 에서 통일에 대한 소망을 보이고 있으므로 미래에 대한 회의적 시  
 각을 드러낸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보기>는 ‘봄’이 ‘미움의 쇠  
 불이들’을 ‘녹여 버리’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인 시각이 드러  
 나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봄, 하늘, 구름’과 ‘방아쇠, 포성’이, <보기>는 ‘너그럽고 / 빛  
 나는’ 봄’과 ‘겨울, 매서운 눈보라, 미움의 쇠불이’ 등이 대립적으로 사용되어 의미  
 를 강조하고 있다. ② 이 글은 독백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반면, <보기>의 화자는 단정적 어조로 ‘너그러운 봄’을 맞이하겠다는 의지를 강조  
 하고 있다. ③ ‘손에 닿을 듯한 봄 하늘’은 화해로 통합된 민족의 밝은 미래를 의미  
 하고, ‘너그럽고 / 빛나는 / 봄’은 진정한 통일과 화해의 시대를 의미하므로 그 상  
 징적 의미가 유사하다. ④ 이 글의 ‘방아쇠, 포성’과 <보기>의 ‘쇠불이들’은 모두  
 금속성의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화자가 극복해야 할 대상을 의미한다.

5 화자가 적군의 냇이 눈도 감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죽어서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원한과 애통함이 있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② 전쟁에서 죽음이 불가피한 것임을 깨달았다고 볼 만한 내용은 없다.

③ 화자가 녀들에게 전쟁이 끝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아쉬움이 있다고 여기  
 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④ 분단된 조국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눈을  
 감지 못했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다. ⑤ 통일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 때문에 눈을 감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은 아니다.

26 아버지의 땅

본문 318~325쪽

기본 실력 다지기

03 유해를 수습하는 산과 ‘나’의 환영 속 모래밭이라는 두 공간이 제  
 시되어 있지만, 두 공간에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04 의식의 흐름 기법을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인물의 내적 욕망 표  
 현과도 거리가 멀다.

09 “예전에 여기서 무슨 유명한 전투가 있었다는 말은 듣지 못한 것  
 같은데.”라는 소대장의 말로 볼 때, 노인이 사는 마을에서 6·25  
 전쟁 때 유명한 전투가 벌어진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16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기다렸을 뿐 증오심은 드러내지  
 않았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① 2 ④ 3 ② 4 ③ 5 ④ 6 철삿줄 7 유해 수습 전에는 가족을 버  
 리고 떠난 아버지를 가해자라고 생각했으나, 유해 수습 후에는 아버지도 전쟁의  
 피해자라고 인식하여 그에 대한 연민을 느낀다.

1 주인공인 ‘나’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유해를 수습하는 일과, 과거  
 부모에 대한 자신의 기억을 교차하며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유해 수습 장면과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장면이 전환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빈번하게 장면이 전환되는 것도 아니고 긴박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 ③ 인물 간의 대화는 제시되어 있지만, 인물의 분열된 자의식과는 관련이  
 없다. ④ ‘나’의 내면만 서술되어 있다. ⑤ 현재와 환영을 보는 부분의 배경이 달라  
 지고 있지만 서술자는 ‘나’로 일관되게 나타나 있다.

2 ‘가슴과 팔목에 철삿줄을 동여맨’ 아버지가 ‘겹에 질려 있는’ 모습  
 은 ‘나’가 떠올린 환영으로, 과거에 ‘나’가 실제로 아버지가 겹에  
 질려 잡혀가는 모습을 목격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소대장은 유해를 빨갱이라고 규정하면서 좌익 이념에 대해 부정적 인  
 식을 드러내는 한편, 유해를 지휘봉 끝으로 쿡쿡 찌르면서 유해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② 노인이 유해를 소중하고 신중하게 다루는 모습은 희생  
 된 망자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념 대립과 분열로 인한 상처를 보듬고  
 용서와 화해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인간애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③ 어머  
 니가 아버지의 사진을 ‘밝은 반달이 깊숙한 옷가지 밑에’ 간직하거나 ‘날짐승도 때  
 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간절함 그리움이  
 표출된 행동이다. ⑤ 현재의 ‘나’는 노인이 수습하고 있는 유골의 모습처럼 차가운  
 땅에 누워 있을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에 대한 연민의 심정을 갖게 된다.

3 '아원 목졸기'는 어머니의 모습이고, '구부정하게 서 있'는 모습은 '나'가 아버지를 기억해 낸 것이 아니라 환영 속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이다.

**오답 해설** ① '살을 녹이고 뼈까지도 녹슬게 만든' '철사줄'은 전쟁의 폭력성과 비극성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 준다. ③ 어머니가 '핑주리를 머리에 인' 환영은, 아버지가 떠난 후 어머니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버지를 기다린 어머니 역시 전쟁의 희생자라고 인식하는 것과 연결 지을 수 있다. ④ '기억'과 '빛'에 해당하는 '은빛으로 반짝'이는 어머니의 표상은 '망각'과 '어둠'으로 표상되는 '어느 응달진 산기슭'의 아버지와 대척점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유해 수습 과정을 통해 망각의 대상이었던 아버지를 기억해 낸 '나'는 무덤도 모비도 없이 어딘가에서 잠들어 있을 아버지를 떠올리며 연민을 느끼고, 그도 전쟁의 희생자였음을 깨닫게 된다.

4 ㉠은 '나'가 어머니의 환영을 떠올리는 장면으로, 어머니가 살아 온 삶과 관련된다. 이를 통해 남편에 대한 어머니의 믿음이 흔들렸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은 아버지의 무사 귀환을 빌던 어머니의 간절한 기원에 해당한다. ② ㉠은 남편 없이 홀로 생계를 책임지던 어머니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나'의 마음속 어머니의 이미지에 해당한다. ④ ㉠에서 어머니가 반달이 깊숙한 옷가지 밑에 아버지의 액자를 숨겨 놨다는 것은, 남편에 대한 어머니의 그리움이 드러난 것이다. ⑤ 아버지와 함께 걸어오던 어머니의 환영에서 어느 순간 아버지는 사라지고 어머니의 발자국만 그녀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은, 어머니가 오랜 세월 아버지의 부재로 외롭게 살아왔음을 형상화한 것이다.

5 <보기>에서 진석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만년필을 통해 유해가 형의 것임을 확인하지만, 이 글의 유해는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의 것이다. 따라서 '나'가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는 장면을 촬영할 필요는 없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는 새로 발견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해 진석에게 전화를 거는 것에서 내용이 시작된다. 이 글에서도 유해 발견을 내용 전개의 실마리로 삼을 수 있다. ② <보기>의 진석이 사건의 내막을 알리듯이 이 글의 '나'는 가족의 과거사를 알릴 수 있다. ③ <보기>의 진태는 전쟁으로 인해 죽는 비극적 인물이다. 이 글의 아버지도 전쟁의 희생자로서 비극적 인물로 설정할 수 있다. ⑤ 이 글의 '나'는 노인이 유해를 수습하는 장면을 보며 그동안 증오의 대상이었던 아버지 대해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잡한 표정을 짓는 것은 적절하다.

## PART 4 | 실전 학습

### 01 그림과 시

본문 328~333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4 서로 대비되는 두 입장이나 절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08 대상을 의인화하고 있지 않다.
- 10 경물은 '객관적 물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15 경물을 통해 뜻을 전달하고 정신을 표현하는 이른바 '사의전신'은 그림뿐만이 아니라 시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 16 화가가 형상을 세워 뜻을 전달하듯이, 시인도 대상을 통한 객관적 상관물의 원리, 즉 경물의 묘사를 통해 독자와 소통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⑤ 2 ⑤ 3 ④ 4 객관적 상관물의 원리 5 ③ 6 ④

- 1 예상되는 반론이나 이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사의전신', '입상진의' 등의 개념을 풀어 가면서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고 있다. ② 그림과 시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림에 적용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시의 특성을 설명해 나가고 있다. ③ "한 글자도 덧붙이지 않았으나 풍류를 다 얻었다.", "단지 경물을 묘사했는데도 정의가 저절로 드러난다.", "산은 끊어져도 봉우리는 이어진다." 등을 인용하여 글쓰기가 말하려는 내용을 보강하고 있다. ④ 송나라 휘종 황제의 일화나 『형설총설』에 소개된 이야기를 통해 '입상진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 2 시인은 진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상을 통한 객관적 상관물의 원리로써 독자와 소통한다.
 

**오답 해설** ①, ②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③ 그림은 소리(언어)가 아니라 시각적 재료를 표현 수단으로 하여 시처럼 자신의 마음을 담아 표현하기 때문에 '소리 없는 시'라고 불린다. ④ 시는 소리(언어)를 표현 수단으로 하여 그림처럼 경물을 묘사하여 주제를 드러내기 때문에 '소리 있는 그림'이라고 불린다.
- 3 화가는 그림이라는 표현의 제약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지만, 시인은 표현상 제약으로 하고 싶은 말을 직접 건네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인은 직접적으로 진술할 수 있지만, 훌륭한 시를 쓰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을 직접 건네는 대신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대상 속에 응축시켜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시와 그림은 전통적으로 서로 연관이 ~ '소리 없는 시'란 말도 있다.'에서 알 수 있다. ② '한시는 경물의 묘사를 통한 '정의(情意)'의 ~ 마음을 담아 표현하는 것과 같다.'에서 알 수 있다. ③ '경물은 객관적 물상에 지나지 않는다. ~ '뜻을 묘사하고 정신을 전달'해야 한다.'에서 알 수 있다. ⑤ <중략> 이후에서 알 수 있다.
- 5 (나)는 전원생활의 풍류를 노래한 시조로, '누운 소'는 화자가 술을 마시러 갈 때 타는 이동 수단에 해당한다. 즉, 암울한 현실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흰 구름'은 절의 모습을 산 속에 감추어 준다. 즉, '흰 구름'은 세속과 단절된 '절'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된 소재이다. ② '손님이 와서야 비로소 (절의) 문이 열'렸다는 데서, '문'이 '절'의 실체를 표현함을 알 수 있다. ④ '다리'는 장신구의 일종으로, 여성으로 추정되는 화자가 '다리'를 팔아 '서방님'을 위해 화체 재료를 사고 있다는 데서, '서방님'을 향한 화자의 사랑과 정성을 추리할 수 있다. ⑤ 화자는 '오화당'을 잊고 사지 못하여 아쉬워하고 있으므로, '오화당'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사용된 소재라고 할 수 있다.

**6** (나)에서 화자는 '술 익단 말 어제' 들은 후 '성 권능'의 집에 급하게 찾아가고 있는데, 이를 통해 시인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정 좌수'가 '성 권능'과 함께 술을 마시며 교류를 하고 싶은 마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의 화자는 '병'이 든 '서방님'을 위하여 '다리'를 팔아서라도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는데 오화당을 깜박 잊고 사 오지 못해 아쉬워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인이 진정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서방님'에 대한 화자의 애뜻한 사랑의 마음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나)의 화자가 '누운 소'라도 타고 가겠다는 것은 시인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감춰져 있는 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에서 서방님이 병이 들었다는 것은 화자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어떤 병에 들었는가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정보가 아니다. ② (나)의 '재 너머'와 (다)의 '종루 저지'가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 말하고 있지 않다. ③ (나)에서 '성 권능'이 '정 좌수'를 초대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즉,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다)에서 화자가 탄식을 한 것은 자신의 실수 때문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 때문은 아니다. ⑤ (나)에서 '정 좌수'와 '성 권능'이 '술'을 이용하여 화해를 하게 되었다는 정보를 추리할 수 없다. 또한 (다)에서 화자가 병이 든 '서방님'을 살리지 못했다는 정보도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02** 불일암 인운 스님에게 / 재 너머 성 권능 집에 / 서방님 병들어 두고 본문 334 ~ 339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1 시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서경만 나타날 뿐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 03 화자가 아니라 스님이 자연에 은둔해 있다.
- 05 중장의 모습을 역동적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상승과 하강 이미지의 반복은 나타나 있지 않다.
- 08 설의적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다.
- 10 오화당을 깜박 잊고 사지 못한 것이지 그것을 구할 수 없는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① 3 ④ 4 ⑤ 5 ③ 6 아차아차 7 계절의 변화(시간의 경과)를 모를 정도로 스님이 참선에 매진하며 보낸 구도의 시간이 길고도 깊었음을 드러낸다.

**1** 「재 너머 성 권능 집에」는 중장과 종장 사이의 생략을 통해 화자의 집에서 성 권능 집으로의 공간 변화가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서방님 병들어 두고」는 중장의 생략을 통해 시장에서 집으로의 공간 변화가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오답 해설** ① '불일암 인운 스님에게'의 화자는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다. 반면 「재 너머 성 권능 집에」의 화자는 '정 좌수'로 직접 드러나 있다. ② '불일암 인운 스님에게' 지문지답은 드러나 있지 않으며, 「재 너머 성 권능 집에」 또한 종장에서 '아이'를 부르며 말을 건넌 뿐 지문지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불일암 인운 스님에게'의 공간인 산중의 '절'은 탈속적 성격을 지닌 공간으로 볼 수 있으나, 「서방님 병들어 두고」의 공간인 '저자'와 화자의 집은 탈속적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⑤ 「재 너머 성 권능 집에」와 「서방님 병들어 두고」 모두 설의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흰 구름 속에 묻힌 절의 모습과 여름이 다가오는 골짜기의 모습(송화꽃이 씩.)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흰 구름과 송화꽃 같은 자연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인간이 자연과 대비되고 있지는 않다. ③ 반어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화자의 의지 또한 드러나지 않는다. ④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자연물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3** '정 좌수'는 화자 자신을 가리킨다. 따라서 화자가 '정 좌수'와 함께 오느라 늦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③ 화자는 '성 권능 집'에 술이 익었다 소식에 그곳에 가서 그와 함께 술을 마시고자 한다. ②, ⑤ 화자는 '술 익단 말'을 듣고 '누운 소'를 일으켜 한시라도 빨리 '성 권능 집'에 가고자 한다.

**4** ㉠은 화자가 성 권능과 함께 즐기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은 화자가 서방님을 위해 만들하고자 하는 음식인 화체에 필요한 재료이다.

**오답 해설** ① ㉠과 ㉡ 모두 화자가 직접 만든 것은 아니다. ② ㉠이 ㉠과 달리 화자가 상대방에게 먹이기 위한 것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화자는 ㉡을 사지 못했으며 까다롭게 골랐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③ ㉠이 성 권능에게 속해 있는 것은 맞지만, ㉡은 화자가 사지 못한 것이므로 화자에게 속해 있는 것은 아니다. ④ 화자가 ㉠을 통해 성 권능을 속이려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은 화자가 화체를 만들 때 넣음으로써 서방님을 위로하려 한다고 볼 수 있다.

**5** 3구의 '손님'으로 인해 스님이 문을 열고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손님'을 스님의 참선을 방해하는 번뇌와 잡념이나 세속적 존재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스님은 '손님'으로 인해 이미 봄이 지났음을 알게 되므로 '손님'은 스님에게 시간의 흐름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절이 흰 구름 속에 묻혀 있다'는 것은 깊은 산중에 있는 절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스님이 '흰 구름을 쓸지' 않는 것은 세속에 무심하여 속세와 단절된 탈속적 삶을 사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④ '손님'이 와서야 '비로소 문이 열'린다는 것은 그동안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산사의 문을 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⑤ 송화꽃이 '벌써 쇠었'다는 것은 시간이 흘러 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변화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03** 만복사저포기 본문 340 ~ 346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3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 액자 소설의 구성을 취하고 있지 않다.
- 07 서술자가 개입하여 앞일을 예견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09 '왜구가 침입하여 난리가 났을 때' 등에서 보듯이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였다고 볼 수는 있지만, 양생과 여인의 사랑이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11 여인의 부모는 양생이 어떻게 은그릇을 지니게 된 것인지 알지 못해 양생에게 그 경위를 물어보았다.

12 양생은 보련사에 와서야 여인이 귀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5 죽은 여인의 시신이 썩 텃불 속에 버려져 있었던 것이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④ 3 ③ 4 ② 5 ⑤ 6 ④ 7 비현실적이며 환상(몽환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1 가치관이 대립되는 인물은 등장하지 않는다. 양생과 여인은 사랑을 절대시하는 유사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행적 구성 방식을 보이고 있다. ② 살아 있는 양생과 죽은 여인의 생사를 초월한 사랑을 다루고 있다. ③ 남녀 주인공이 '절'에서 만난 후 여인이 저승으로 떠남으로써 헤어지게 되는 서사 구조를 지니고 있다. ⑤ 살아 있는 양생이 죽은 여인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먹는 등 비현실적인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며, 여인이 저승으로 떠나는 장면에서는 환상적인 분위기가 드러나고 있다.

2 서술자가 개입하여 앞일을 예견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은그릇'이 여인의 부모에게 여인과 양생의 관계를 알리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②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 상태를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③ 여인이 읊은 '소리'가 삽입 시의 형태로 들어가, 저승으로 가야 하는 여인의 처지와 그로 인한 슬픈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⑤ 여인의 부모의 말을 통해 여인이 죽게 된 과거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왜구가 침입하여 난리가 났을 때에 적에게 해를 입어 죽었다네." 라는 여인의 부모의 말을 통해 여인이 죽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양생은 보련사에 와서야 여인이 귀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② 하인은 은그릇을 들고 서 있는 양생을 발견하고 그가 은그릇을 여인의 무덤에서 훔쳤다고 생각하였다. ④ 여인의 부모는 여인의 시 읊은 '소리'가 차츰 잦아들며 여인이 저승으로 떠난 후에야 양생의 말이 사실임을 알고 다시는 의심하지 않았다. ⑤ 양생은 여인의 부모를 통해 여인이 이승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여인과의 관계를 이어 가며 생사를 초월한 사랑을 나누었다.

4 여인이 왜구의 침략으로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은 맞지만, 그러한 불행과 ㉠은 특별한 관련이 없다. ㉠은 여인의 무덤에 그녀의 부모가 함께 묻어 준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여인은 양생과 자신의 부모가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양생에게 ㉠을 준 것이므로, ㉠에는 양생을 믿는 여인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양생은 ㉠을 매개로 보련사로 올라가던 여인의 부모를 만나게 된다. ④ 여인은 양생에게 ㉠을 주며 보련사로 가는 길에서 기다리라고 하였으며 양생은 그 말대로 함으로써 두 사람은 ㉠을 통해 재회하였다. 따라서 ㉠은 양생이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⑤ 양생이 들고 있던 ㉠을 통해 여인 집안의 하인이 여인을 떠올리게 되었다.

5 '절'은 '만복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양생과 여인이 만나며 인연을 얻게 되는 공간이다. 그리고 '보련사'는 여인이 저승으로 떠나며 양생과 여인이 이별하는 공간이다.

**오답 해설** ① '보련사'에서는 여인이 저승으로 떠나므로 인물의 길등이 유발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절'에서는 인물 간에 길등이 유발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절'과 '보련사' 모두 현실의 공간이다. ③ 이 글은 액자식 구성이 아니므로 내·외부 이야기로 나눌 수 없다. ④ '보련사'에서는 여인이 저승으로 떠나므로 소원이 성취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절'에서는 여인과 양생이 만나므로 여인의 소원이 성취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6 <보기>에서 현실계와 비현실계의 소통은 모든 인물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인물에게만 나타난다고 했다. 따라서 여인의 친척들이나 절의 승려들은 소통에 대한 시도가 없어서 양생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이 불가능한 인물들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양생이 여인을 만나 사랑을 나누는 것은, <보기>의 현실계의 주인공이 비현실계로 들어가 현실계에서 이루지 못한 소망을 잠시 충족하는 것에 해당된다. ② 양생이 여인의 은그릇을 들고 서 있음으로써 여인의 부모를 만나게 되고 또 두 사람의 관계를 알릴 수 있게 되었다. ③ 보련사에서 양생과 여인이 '흰 휘장 안'에서 소통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양생과 여인은 '절(만복사)'에서 처음 만나게 되므로 '절'은 현실계와 비현실계가 처음으로 소통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04 꽃을 위한 서시**

본문 347~352쪽

**기본 실력 다지기**

03 공감각적 이미지는 사용되지 않았다.

07 설의적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08 대상인 꽃이 변화하는 모습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있지는 않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① 2 ② 3 ⑤ 4 ④ 5 ③ 6 무명의 어둠 7 '너'는 '가지 끝에서', '피었다 진다.'를 통해 '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인식의 대상으로서 존재의 본질을 의미한다.

1 대상을 '너'로 의인화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대상에 대한 친밀감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② 존재의 본질이라는 관념적인 대상을 꽃(너)이라는 구체적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③ '풀에까지 스미면 금(金)이 될 것이다.'에서 미래 시제를 사용하여 존재의 본질 인식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④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여'와 같이 대상을 부르는 표현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⑤ '무명의 어둠'과 대립되는 '추억의 한 접시 불'을 통해 시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2 존재의 본질을 모르는 존재인 화자는 '너'라는 존재의 본질을 알기 위해 '한 접시 불을 밝히고 / 한밤내' 읊고 있다. 즉, 화자는 존재의 참모습을 인식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 자신의 본질을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③ 화자가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명의 어둠'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이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화자가 삶이 근본적으로 고독하다고 여기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화자는 존재의 본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존재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인 의구심을 드러낸다고는 할 수 없다.

**3** ‘신부’는 ‘얼굴’을 ‘가리운’ 존재로, 존재의 본질에 해당하는 ‘너(꽃)’를 비유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다. 그런데 ‘신부’가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을 통해 화자가 아직까지 그 본질을 규명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나’는 존재의 본질을 몰라 이를 인식하기 위해 노력하는 화자이다. ② ‘어둠’은 화자가 대상을 인식하지 못한 ‘미지’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③ ‘불’은 대상의 본질을 밝히기 위한 화자의 노력을 의미한다. ④ ‘금(金)’은 화자가 존재의 본질을 알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

**4** ‘나의 울음은 차츰 아닌 밤 둘개바람이 되어’는 존재의 본질을 알기 위한 노력이 더 치열해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존재의 본질을 은폐하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좌절을 보여 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존재의 본질을 모르는 화자가 ‘너’에게 ‘나의 손’을 달게 하려는 행위는, 존재의 본질인 ‘너’를 탐색하려는 것에 해당한다. ②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는 화자가 존재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드러내므로, 존재의 본질인 ‘너’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③ 화자는 삶의 모든 경험과 지식인 ‘추억’을 바탕으로 ‘불’을 밝히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불을 밝히’는 행위는 존재의 본질을 알기 위한 화자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⑤ ‘금(金)’은 화자가 찾고자 하는 존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금(金)이 될 것이다.’에는 존재의 본질 탐색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화자의 기대감이 담겼다고 할 수 있다.

**5** 이 글에는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드러날 뿐, ‘이름’을 통해 존재의 본질 인식이 불가능함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이 글과 <보기>의 화자 모두 ‘꽃’을 통해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 ②, ④ <보기>에서 화자는 이름을 부름으로써 꽃을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고 있다. 이는 존재의 본질을 인식한 것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글의 화자는 결국 존재의 본질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이 글의 화자는 스스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기보다는 대상의 본질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 반면 <보기>는 3, 4연을 통해 화자가 ‘꽃’, ‘하나의 눈짓’과 같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함을 알 수 있다.

**05 등산**

본문 353 ~ 359쪽

**기본 실력 다지기**

**03** ‘벼랑에 뜨는 별’, ‘피는 꽃’, ‘이슬’ 등의 시어가 나타나 있으나, 자연의 풍광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4** 특정한 계절이 배경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

**08** ‘않는다, 아니다’ 등 부정 표현이 등장하지만, 이는 삶에 대한 태도나 인식을 표현한 것일 뿐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는 거리가 멀다.

**10** ‘암벽’ 등의 자연물이 등장하지만 화자와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대상으로 그려진 것은 아니다.

**14** 가볍게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진지하고 신중한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15** ‘별, 꽃, 이슬’은 ‘세상의 모든 것’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소유하고 싶어도 소유할 수 없는 것, 화려하지만 유한한 존재, 유혹, 욕망의 대상 등의 의미를 함축한다.

**16** ‘세상의 모든 것’이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없음을 표현한 것이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 ‘암벽을 더듬는다’, ‘함부로 올라다보지 않는다. / 함부로 내려다보지도 않는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다만, / 가까이, / 가까이 갈 뿐이다.’ 등의 구절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오답 해설** ①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고 있지만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묵묵히, 쉬지 않고 노력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② 지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삶의 의미와 자세에 관한 내용으로, 부채하는 대상은 확인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그리움도 드러나지 않는다. ⑤ 화자와 교감하는 대상으로 간주할 만한 것은 찾을 수 없다.

**2** ‘걸코 쉬지 않는다’, ‘함부로 올라다보지 않는다. / 함부로 내려다보지도 않는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등에서 부정 표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삶에 대한 화자의 태도나 인식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삶을 산에 오르는 것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삶이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는 깨달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② ‘-다’라는 현재형의 문장 종결 표현을 반복하여 화자의 행동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그 행동들이 지금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는 듯한 느낌, 즉 현장감을 살리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런 표현의 반복은 리듬감을 형성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③ ‘확고(確固)한 / 가장 철저한 믿음도’, ‘벼랑에 뜨는 별이나, / 피는 꽃이나, / 이슬이나’, ‘다만, / 가까이, / 가까이 갈 뿐이다.’ 등에서 의도적 행갈이나 실패 사용을 통해 호층을 조절하고 있다. 이는 해당 구절을 천천히 음미하도록 유도하여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④ ‘다만 ~르뿐이다’라는 문장 형식을 반복하여 ‘겸허하고 진지하게 노력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것이 결국 삶’이라는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 화자가 깨달은 바, 즉 작품의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야 한다. 등산을 통해 삶을 돌아본 화자는 ‘목표에 도달하는 그 자체보다는 목표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그것이 바로 삶’이라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 그런 화자의 깨달음은 ‘다만, / 가까이, / 가까이 갈 뿐이다.’라는 구절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목표를 이루는 것 자체보다는 목표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② ‘선택’이나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한 인식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여러 사람이 서로 도와야만’ 한다는 인식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화자는 자신을 둘러싼 것들에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인식이나 위안과는 거리가 멀다.

4 ‘벼랑에 뜨는 별’, ‘피는 꽃’, ‘이슬’은 화자가 암벽을 오르는 동안 만나게 되는 존재들로서, 아름답지만 유한성을 지닌 것들이다. 이것에 대해 화자는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그런 대상들이 삶의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없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과거의 삶에 대한 미련’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1연에서는 ‘생애의 중량’과 ‘믿음’을 ‘흔들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생애의 중량’은 ‘삶의 무게’를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삶의 무게로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린다는 것은 화자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화자의 행동을 ‘더듬는다’ → ‘조금씩 움직인다’ → ‘가까이 접근한다’로 변화시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무명(암벽)’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화자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므로, 삶에 대한 화자의 대응 방식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③ 2연에서 ‘무명(無名)의 별레’는 화자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별 경우 일반적으로 ‘이름 없는’이라는 의미를 지닌 ‘무명(無名)’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이라는 의미를 지닌 ‘무명(無明)’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별레(화자)의 행위를 ‘빛을 찾는’, 즉 깨달음에 이르러 하는 행위로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3연과 4연에서는 ‘다만’, ‘가까이’라는 부사어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화자의 겸허하고 진지한 태도를 부각하는 효과가 있다.

5 ㉠은 ‘별, 꽃, 이슬’ 등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님을 깨닫는 공간이다. ‘별, 꽃, 이슬’의 의미를 자연물로만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화자가 인식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삶의 태도이므로 ‘인간 삶의 고독과 허무’와는 거리가 있다.

**오답 해설** ① 정상에 오르려 하는 화자의 앞을 가로막고 있으므로 화자가 직면한 현실로 이해할 수 있다. ② 2연을 보면 ‘빛’을 찾으려고 암벽에서 움직이고 있으므로, ‘암벽’은 ‘빛’이 없는 상태, 즉 ‘무명’의 상태와 통한다. ③ 4연을 보면 암벽은 정상에 이르기 위해 ‘발 붙일 곳을 찾고 풀포기에 매달리면서’ 가야 하는 곳이다. 따라서 목표에 이르기 위해 거쳐야 하는 힘겨운 과정이 진행되는 현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3연을 보면 암벽을 더듬는 화자는 ‘함부로 올라다보지 않는다. / 함부로 내려다보지도 않는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암벽’은 숙단하거나 한눈팔지 않는, 신중한 삶의 태도를 일깨우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06 모범 동화

본문 339~366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4 소년의 피곤하고 나른한 태도를 바탕으로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07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지는 않으며, 특정 소재를 통해 이를 암시하고 있지 않다.
- 13 소년이 급우에게 번호를 묻긴 하지만, 그 번호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도움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 15 소년은 두 개의 동전으로 열 개의 사탕을 얻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 2 ㉢ 3 ㉠ 4 ㉢ 5 ㉢ 6 ㉠: 분노, ㉡: 인도감 7 아이들이 원판 경기를 하는 두 가지 이유는 ‘가능성의 유희’와 ‘요행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다. 아이들은 확률상 자신이 선택한 번호가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다섯 번 중에 한 번이라도 맞으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1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고 있다. 작품 속 인물이 사건의 정황을 주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1인칭 시점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아이들은 손의 온기에 뜨겁게 익은 동전을 내던지고’에서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아이들이 지닌 욕망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몇몇 아이들은 큰 소리로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여자애들은 수군거렸다. 몇몇 아이들은 휘파람을 날리기도 했다.’에서 청각적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요술을 속임수로 여기고 속아서는 안 된다는 전학생의 말에 동조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③ ‘낮잠을 깬 듯한 얼굴’, ‘노파처럼 웃었다’, ‘피로하고 귀찮아하는 소리로 대답하며’ 등을 통해 소년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④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소년의 말을 반복하여 소년이 현실에 대해 지닌 부정적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2 강 씨는 한 개의 동전으로 열 개의 사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들의 욕망과 기대감을 이용하여 ‘도박에 가까운 새로운 장사’를 시작하였다.

**오답 해설** ① 소년은 아이들을 비집고 강씨에게 원판 경기 참가를 요청하나, 이것이 아이들의 권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② 소년은 동전 두 개로 스무 개의 사탕을 얻었다. ④ 소년이 요술이 속임수라고 설명한 뒤 점차 아이들이 그것을 믿게 되었다. ⑤ 소년은 다른 아이들의 도움이 아닌 스스로의 판단으로 번호를 맞춰 승리한 것이다.

3 소년은 사탕을 얻은 후 아이들에게 모조리 나눠 주며 기쁨이나 환희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로 미루어 보아, 소년이 사탕을 얻음으로써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③ 아이들은 사탕을 얻기 위해 원판 경기를 하고 있다. ② 강 씨는 돈 벌이 수단으로 아이들을 사탕으로 꾀어내고 있다. ⑤ 아이들은 요행으로 많은 사탕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4 아이들이 강 씨의 사행성 짙은 놀이를 하는 이유를, 그들의 내면 심리와 관련지어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인물 간의 대화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동전을 내던지고 침을 삼키는 아이들의 행동이 나타나 있으나 외양 묘사는 나타나지 않으며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④ 서술자가 강 씨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강 씨의 놀이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아이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후각적 이미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5 원판 경기에 나타난 소년이 첫 판을 이기고 한 번 더 하겠다고 하는 당당한 모습에 강 씨는 놀라며 당황해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소년이 영웅적 인물인 것은 아니다. ② ‘두 가지 이유를 강 씨 자신도 미리 계산에 넣지 못한 바는 아니’라고 하였다. 강 씨 역시 아이들을 이용하는 어른에 해당한다. ④ ‘매우 피로하고 지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소년이지 강 씨가 아니다. ⑤ 강 씨가 소년의 ‘활착하는 눈초리’를 떠올린 것은 아이들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다. 그가 이를 통해 세상의 불합리함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07 설홍전

본문 367~373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7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고 있지 않다.
- 09 설홍이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12 운섭이 설홍을 진 숙인에게 데려가는 것은 맞지만, 그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 14 설홍이 꿈으로 변신한 이후에는 혀가 굳어 말을 못하고 있다.
- 17 노승은 설홍에게 다른 조력자인 운담 도사를 찾아가 도업을 배운 후 왕 승상의 은혜를 잊지 말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지, 왕 승상의 은혜를 갚을 것을 채근하는 것은 아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⑤ 2 ③ 3 ⑤ 4 ③ 5 ⑤ 6 ④ 7 ⑥는 설홍을 인간에서 꿈으로 변화시켜 인간 세계로부터 소외당하게 하고, ⑥는 설홍을 꿈에서 인간으로 변화시켜 인간 세계로 돌아오게 한다.

- 1 ‘진 숙인이란 사람의 마음이 악한 일 하기를 조석으로 더하니 포악하고 잔학한 자라.’를 통해 서술자가 진 숙인이라는 인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성격 변화를 겪는 인물은 등장하지 않는다. ② 흑운산, 구화동, 복산도 등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나 장면이 빈번하게 전환되고 있지는 않다. ③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며, 서술자의 전환은 확인되지 않는다. ④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 2 설홍이 진 숙인의 독약을 먹은 후 죽지 않고 꿈으로 변한 것은 그가 선과판 먹고 살았기 때문이다. 즉, 진 숙인은 설홍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독약을 먹인 것이지 꿈으로 변하게 하는 약을 먹인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설홍을 산중에 버린 지 여러 해라.”라는 진 숙인의 말과 “죽지 아니하고 살아 있기에 데려왔나이다.”라는 운섭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운섭은 “빠나 찾아다가 제 부친 묘 아래 묻어 주라.”라는 진 숙인의 명에 따라 당월굴 아래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설홍을 만나 “부인에게서 공자를 데려오”라고 했으며 거짓말을 한다. ④ 왕 승상은 명선에게 꿈(설홍)에 대한 내력(복산도에서 귀한 물건이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을 듣고 시비에게 그를 복산도에 두고 오라고 한다. ⑤ 설홍은 꿈에서 노승을 만나 그가 준 약을 먹고 사람이 된다.
- 3 설홍이 노승과 인간의 말로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설홍이 꿈을 꾸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대추는 설홍을 ‘배부르고 정신이 썩썩하게 만드는 소재이다.
 

오답 해설 ① 진 숙인은 설홍의 원혼을 풀어 주라는 점쟁이의 조언에 따라 설홍의 뼈를 수습하기로 마음먹는다. ② 진 숙인은 설홍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데, 이는 진 숙인이 매정하고 악랄한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③ 명선은 승상이 적지 않은 돈을 주었을 뿐 아니라 승상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설홍을 왕 승상에게 넘긴다. ④ 왕 승상은 설홍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자연 슬픈 마음이 들어’ 그를 구하고자 한다.

- 4 [B]에서는 노승이 설홍에게 “왕 승상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당부 를 전하고 있으나, [A]에서는 그러한 당부를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A]의 진 숙인과 [B]의 노승 모두 자신의 심경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 ② [A]는 “어찌 노복 간에 정이 있다 하리오?”에서, [B]는 “어찌 은혜라 하오리까.”에서 의문의 형식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청자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은 [A]뿐이다. ④ [A]는 “너”, “하리오?” 등에서 하대를, [B]는 “소승”, “하오리까.” 등에서 존대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은 [A]에만 해당한다. ⑤ [A]에서는 “너로 하여금 흥을 산중에 버려 죽게 하였더니,”에서 과거의 행적을 제시하고 있으며, [B]에서는 “운담 도사 있사오니 그 도사를 만나 도업을 배”우 도록 청자에게 앞으로 할 일을 제시하고 있다.

- 5 설홍이 수족을 마음대로 놀리면서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짐승에서 사람으로 돌아온 것으로, 영웅적 능력을 얻은 결과로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설홍이 인간에서 꿈으로 변신하게 된 것은 진 숙인이 준 약 때문이다. ② 설홍은 꿈이 되어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전락하는데, 이는 주인공의 고난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주인공의 고난에 해당하는 서사의 틀을 변주한 것에 해당한다. ③ 설홍은 조력자인 왕 승상을 만나 명선의 손에서 풀려나고 있다. ④ 설홍이 조력자인 노승을 만나는 곳은 꿈속이라는 비현실적인 공간이다.

- 6 ①은 운섭이 아니라 설홍에 대한 진 숙인의 태도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⑤ 진 숙인은 설홍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①과 같은 마음을 품는데, 이는 진 숙인의 악인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것이다. ② ①은 설홍에 대한 진 숙인의 적개심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③ 진 숙인은 ①과 같은 마음으로 인해 설홍에게 독약을 주게 된다.

08 호아곡

본문 374~379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5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은 드러나지 않는다.
- 08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객관적 상관물은 나타나지 않는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② 3 ① 4 ③ 5 ③ 6 역군은(亦君恩) 7 각 수의 첫머리에서 시상을 여는 기능을 하며 작품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 1 <제2수>에서 고기를 의인화하고 있으나, 화자가 고기와 동질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또한 물아일체는 윗글의 주제 의식과도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제3수>의 ‘두어라’와 <제4수>의 ‘어즈버’를 통해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② 각 수에서 중국 고사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③ <제1수>의 ‘아니 자랐으랴’, ‘어이 이으랴’, <제3수>의 ‘마주 집을꼬’ 등에서 물음의 방식이 나타나 있다. ⑤ 각 수의 초장에 제시된 명령형 문장은 이어지는 화자의 행위와 연결되고 있다.
- 2 화자는 <제1수>에서 직접 산에 올라 고사리를 캐고 있으며, <제3수>에서 직접 논밭일을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제1수>에는 고사리를 캐며 살아가는 소박한 전원 생활이, <제2수>에는 한가롭게 고기를 낚으며 느끼는 즐거움이 드러나 있다. ③ <제2수>에 낚시를 하며 느끼는 즐거움은 드러나 있으나, 실제 고기를 잡고 있지는 않다. ④ <제3수>에서 화자는 직접 농사일을 하고 있으나, 농사일의 가치를 강조하거나 농사일을 청자에게 권유하고 있지는 않다. ⑤ <제4수>에는 술을 마시며 흥취를 느끼는 삶이 드러날 뿐, 화자가 현실을 회피하고 있지 않다.

**3** <제2수>의 종장에서 화자는 흥취를 즐기기 위해 낚시를 함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화자가 고기를 낚아서 생계를 꾸려 나가는 직업인으로서의 어부가 아님을 보여 주는 것이다. 즉, 고기를 낚아서 생계를 꾸려 나갈 것이 아니므로 고기에게 놀라지 말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고기를 속여 쉽게 낚기 위해 놀라지 말라고 말을 건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② <제2수>에서 화자가 미는 없는 낚시를 맨 것은 고기를 낚을 의도가 없음을 드러낸다. ③ <제2수>의 '내 흥(興) 겨워 하노라'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④, ⑤ 화자가 여상의 고사와 같이 고기를 낚을 의도 없이 낚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상의 삶에 자신을 대응하여 자신도 여상과 같이 관직에 등용되어 나라를 일으키기를 기다린다고 볼 수 있다.

**4** 각 수에서 계절적 배경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② <제1수>는 서산, <제2수>는 동쪽 끝짜기, <제3수>는 남쪽 논밭, <제4수>는 북쪽 마을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④ 각 수 모두 자연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⑤ <제1수>의 '서산(西山)에 날 늦겠다', <제4수>의 '달빛'에서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고 있다.

**5** ㉠은 자연물인 고기를 의인화하여 말을 건넨 것으로, 아이를 안심시키려는 의도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구력과 망태는 물건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든 그릇이므로, 고사리를 캐러 가기 위해 그릇을 챙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에 이어지는 시구('동쪽 끝짜기[東澗]에 비 내린다')와 <제2수>의 종장과 종장으로 볼 때, 비를 막기 위한 도롱이와 샅갓을 챙기는 것은 낚시를 하러 가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에 이어지는 시구('남쪽 논밭[南畝]에 일 많구나')로 볼 때, 논밭일을 하러 가기 위해 아침 일찍 죽조반을 먹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에 이어지는 시구('북쪽 마을[北郭]의 새 술 먹자')로 볼 때, 술을 마시러 북쪽 마을에 가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09 들길에 서서**

본문 380~385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1 색채어인 '푸른'을 반복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적 정서를 강조하고 있을 뿐,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 02 2연과 4연에서 '일이냐'를 반복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강조하는 것이다.

**내신 ㉠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④ 3 ② 4 ③ 5 ① 6 ㉠: 푸른 산, ㉡: 푸른 별 7 고통스러운 현실에 절망하지 않는 화자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 '푸른'이라는 색채어를 반복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사상의 전개에 따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을 뿐, 어조는 변하고 있지 않다. ③ 2연과 4연에서 '얼마나 송고한 일이냐', '얼마나 기쁜 일이냐'와 같이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강조한 것으로, 묻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 ④ 공감각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⑤ 화자의 시선의 이동은 드러나지 않는다.

**2** 화자는 '뻘에 저'린 슬픈 생활 속에서도 '푸른 별'을 바라보며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고 있을 뿐, 현재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해소된 조화로운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3~4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슬픈 생활 속에서도 '푸른 별'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자세가 드러나 있다. ③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을 송고하고 기쁜 일이라고 하면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푸른 산'을 화자 자신과 동일시하여 희망을 향한 의지를 드러내고 이를 삶에 대한 깨달음으로 연결하고 있다.

**3** ㉠은 '푸른 산'이 지니고 있는 꿈과 이상이다. 화자가 지향하는 꿈과 이상은 '푸른 하늘', '푸른 별'이다.

**오답 해설** ① ㉠은 꿈을 지니고 실며 우람하고 의지가 굳은 존재로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이다. ③ 화자가 연약한 두 다리를 굵은 산맥으로 삼아 둥근 지구를 밟는다는 것을 통해, ㉡가 희망을 향한 화자의 굳은 의지를 형상화한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④ ㉠은 암울한 현실을 나타내며 어둠과 절망의 이미지를 띤다. ⑤ ㉠은 화자가 지향하는, 미래에 대한 이상과 희망으로, 화자에게 고달픈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

**4**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희망을 향한 의지적인 모습으로, 자연으로 도피함으로써 시대적 고통을 잊고자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푸른 하늘'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으로,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다는 것은 긍정적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의미한다. ② '산림'은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으로,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드러낸 것을 통해 희망을 향한 의지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④ '저문 들길'은 암울한 현실로, <보기>의 내용으로 볼 때 일제 강점기라는 부정적인 현실에 해당한다. ⑤ 별을 바라보는 것은 꿈과 이상을 추구하는 것에 해당한다.

**5** 이 글은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산림처럼', '푸른 산처럼'을 통해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지구를 든든하게 디디고 사는 것을 송고하고 기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보기>는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 왕자처럼', '지금의 네 모습처럼'을 통해 화자가 닮고자 하는 삶의 속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질문의 형식은 이 글의 2연과 4연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보기>에서는 질문의 형식을 찾을 수 없다. ③ 이 글과 <보기> 모두 명시형으로 시행을 종결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이 글은 '푸른'이라는 색채어만 사용하고 있으며, <보기>에서는 색채어를 찾을 수 없다. ⑤ 이 글과 <보기> 모두 첫 연과 끝 연의 구조를 동일시키고 있지 않다.

기본 실력 다지기

- 02 대상인 등꽃 송이를 의인화하고 있지는 않다.
- 06 화자가 구름을 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삶의 이치를 깨달은 것은 등꽃 송이를 보면서이다.
- 11 ‘너와 내가 자주 꼬여 가는 그 속’은 조화를 이루며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에 해당하므로, 그 속에서 삶의 비애를 느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내신 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③ 3 ③ 4 ④ 5 ③ 6 유추, 등나무 7 (1) 원관념: 바람에 등꽃 송이가 흔들리는 모습, (2) 표현법: 시각을 청각으로 표현한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 1 화자의 눈물을 ‘구슬 같은 소리’로, 화자의 내면을 ‘연등 날 지등(紙燈)의 불빛이 흔들리듯’ 등과 같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처음과 끝이 같은 수미상관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대상을 청자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 ④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⑤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 2 화자는 시적 대상인 ‘등꽃 나무’가 ‘가닥가닥 꼬여 엉클쳐 뻗어’ 있는 모습과 ‘아랫도리의 두어 가닥 튼튼한 줄기가 꼬여 / 큰 등치를 이루는’ 모습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있으므로, 대상의 외양적 특징이 화자의 인식 변화의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단정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②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④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태 변화와는 관련이 없다. ⑤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한다고 볼 수 없다.
- 3 화자는 ‘등꽃 송이’를 본 뒤 ‘주걱주걱 흐르던 눈물’이 ‘구슬 같은 소리’를 내게 되었고 기쁨과 슬픔이 ‘녹아 흐르기 시작’하게 되었다. 이는 화자의 내면세계가 평정을 이루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가닥가닥 꼬여 엉클쳐 뻗어’ 있는 등나무 줄기를 보고 조화와 합일을 이루는 삶을 떠올리며 인생을 성찰하게 된다. 따라서 이것이 화자의 복잡한 심리를 표현한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화자가 ‘주걱주걱’ 눈물을 흘린 것은 등나무를 보기 전, 즉 삶의 슬픔을 승화하기 전의 모습이다. 따라서 눈물이 화자가 삶의 이치를 깨달은 이후 보인 반응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조화와 합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부분은 ‘밑뿌리’가 아닌, ‘두어 가닥 튼튼한 줄기가 꼬여’ 이룬 ‘큰 등치’이다. ⑤ ‘구름’이 ‘머리 위’를 지나 간다는 것은 바람이 불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아름다운 등꽃 송이가 날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화자의 정서가 다시 흔들림을 표현한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4 화자는 등꽃 송이를 보고 마음의 평정을 얻게 되므로, 등꽃 송이는 화자의 마음을 평정에 도달하게 한 계기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삶의 고통과 비애를 상징하는 것은 ‘철없이 주걱주걱 흐르던 눈물’이다. ② 화자의 과거 삶의 모습과는 관련이 없다. ③ ①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있을

뿐 ①이 화자가 예찬하고 동경하는 대상은 아니다. ⑤ 모순된 현실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화자가 저항이나 비판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 5 <보기>에 과거의 절망적인 상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등나무’를 의인화하고 있지 않으나, <보기>에서는 감나무의 ‘가지들’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② 이 글에는 특정한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 있지 않으나, <보기>는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다. ④, ⑤ 이 글과 <보기>는 각각 ‘등나무’와 ‘감나무’라는 자연물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관조적이고 성찰적인 태도로 드러내고 있다.

11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기본 실력 다지기

- 02 “너 커서 뭐가 될래?”와 “넌 왜 그렇게 매사에 자신감이 없냐?”에 인물의 말을 인용하고는 있지만, 이를 통해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07 꿈을 쉽게 포기했던 과거에 대한 반성은 드러나 있지만, 글쓴이가 현재 꿈에 도전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 09 글쓴이가 피아니스트의 꿈을 포기한 것은 꿈을 이루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피아노 연습을 게을리한 것은 피아니스트의 꿈을 포기한 이후이다.
- 12 글쓴이는 매사에 자신감이 없냐는 벗의 지적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적당히 돌려댔다.

내신 수능 대비 문제

1 ⑤ 2 ⑤ 3 ④ 4 ⑤ 5 ③ 6 ㉠, ㉡, ㉢ 7 진로나 미래를 생각할 때 실현 가능성부터 생각하지 말고, 직업과 연결하지 말고, 생활의 안정을 1순위로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몰두할 수 있고 가슴을 뛰게 하는 꿈을 꾸어야 한다.

- 1 통념을 반박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통해 글쓴이의 주장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진로나 미래를 생각할 때 실현 가능성, 직업, 생활의 안정을 생각하지 말고, 몰두할 수 있으며 가슴을 뛰게 하는 꿈을 꿀 것을 당부하고 있다. ②, ④ 꿈을 쉽게 포기하는 글쓴이의 경험과 버릇을 소재로 하여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③은 유법, 직유법, 풍유법, 열거법, 도치법 등을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2 ㉠은 ‘나는 달걀로 바위를 치는 ~ 삶에서 실패하는 것은 아님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도전하고 실패하는 삶의 가치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은 ‘내게 주어진 현실을 ~ 잃어버린 것 같았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포기하는 버릇의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
- 3 글쓴이가 피아노 연습을 게을리하기 시작한 것은, 피아니스트의 꿈이 부모님께 부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이다.

**오답 해설** ① ‘피아노를 포기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 안 되겠구나 싶어 지레 포기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② ‘진로를 생각할 때 곧바로 ‘직업’과 연결하지도 말았으면 한다.’에서 알 수 있다. ③ ‘멋지게 도전하고 처참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을.’에서 알 수 있다. ⑤ ‘아주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생긴 버릇이라 쉽게 고칠 수도 없었다.’에서 알 수 있다.

**4** 글쓴이는 진로나 미래를 생각할 때 ‘실현 가능성’부터 생각하지 말고 ‘직업’과도 연결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④ 이 글의 내용과 글쓴이의 당부로 볼 때 적절한 감상이다.

**5** ㉠은 어릴 때부터 글쓴이도 모르게 생긴 버릇이라 쉽게 고칠 수 없었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① 은유법을 사용하여 꿈에 대한 열정을 표현한 것이다. ② 글쓴이가 꿈을 포기하는 것을 반복해 왔음을 표현한 것이다. ④ 포기하는 버릇으로 인한 부정적인 상황을, 직유법을 사용하여 금속에 슬기 시작한 녹과 같다고 표현하였다. ⑤ 진로를 생각할 때 실현 가능성부터 생각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6** ㉡는 직유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슴에 날카로운 사금파리가 박힌 것처럼,’과 ‘그것은 금속에 슬기 시작한 ‘녹’ 같다.’에 사용되었다. ㉢는 도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그런데 그 수많은 꿈을 ~ 해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다. 포기의 ~ 삶에서 실패하는 것은 아님을,’ ‘나는 이제야 깨닫는다. 피아노를 ~ 내면 화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그것은 금속에 슬기 시작한 ~ 알 수 없게 되어 버리는.’에 사용되었다. ㉣는 열거법에 대한 설명으로, ‘때로는 성적이 모자라서, ~ 꾸는 것이 싫증 나서,’ ‘포기의 역사 보다는 실패의 역사가 ~ 삶에서 실패하는 것은 아님을.’에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는 반어법에 대한 설명으로, 이 글에는 반어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 12 장곡리 고욤나무

본문 399~406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5**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주는 소재는 나타나 있지 않다.
- 08** 효근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으나, 그는 기출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뿐 갈등을 해결하고 있지 않다.
- 09** 기출은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을 단속하지 않고 농짓값 하락만 부추기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지, 그가 부동산 투기를 하다가 실패하여 농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 13** 봉출은 기출이 평상시와 다르게 경찰관들에게 오기를 부리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할 뿐, 그를 한심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다.
- 17** 기출은 생일날 아침에 땅을 팔아 사업 자금을 해 달라는 아들에게 돈을 못 주겠다고 거절하였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⑤ 2 ⑤ 3 ④ 4 ⑤ 5 ① 6** 고욤나무 **7** 날이 발전하는 도시와 달리 농촌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개발에서 소외되고 농짓값이 하락하면서 농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었다.

**1** 인물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나, 그러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주는 소재는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인물들이 충청도 사투리를 사용함으로써 현실감을 주고 있다. ②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초점 인물인 봉출의 시선에서 주인공인 기출과 주변 인물들 사이에 벌어진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③ 봉출이 과거에 기출에게 있었던 일을 회상하며 사건의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다. ④ 기출의 행동과 표정을 통해 기출과 경찰관들의 갈등, 기출과 효근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2** 기출이 죽은 뒤 그의 자녀들은 장롱과 서랍을 뒤지며 논문서와 발문서부터 찾으려 하였는데, 이는 기출의 유산을 챙기기 위해서이다.

**오답 해설** ① 봉출은 기출이 평상시와 다르게 경찰관들에게 오기를 부리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할 뿐, 그를 한심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다. ② 기출은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을 단속하지 않고 농짓값 하락만 부추기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지, 그가 부동산 투기를 하다가 실패하여 농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기출의 아내는 기출이 죽기 얼마 전에 평소와 다르게 돈을 마구 쓰고 대출까지 하여 빚이 있다고 하였다. ④ 기출은 생일날 아침에 땅을 팔아 사업 자금을 해 달라는 아들에게 돈을 못 주겠다고 거절하였다.

**3** 기출이 경찰관을 때리며 “장곡리 농민 이기출이가 법을 친 거”라고 한 것은 앞서 “내가 아저씨를 민 게 아니라 법이 민 거”라는 경찰관의 말을 되받아 빈정대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말이다. 이를 농촌의 문제를 묵과하지 않고 정부와 투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② 기출이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는, 즉 손을 놓아야 할 나이에 이르렀음에도 땅을 팔지 못하는 것은 농지의 가치가 하락하여 땅이 팔리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농지 보호라는 명목으로 시행되어 혈값에 땅을 내놓게 한 농지 매매 증명제와 토지 거래 허가제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③ 억단위로 땅값이 오르는 도시와 달리 농촌의 땅값은 하락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이 극심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⑤ 효근은 농촌의 문제나 아버지의 어려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자녀들의 모습에 해당한다.

**4** 기출의 죽음 이전에 그와 갈등하던 자녀들은 기출이 죽자 장롱과 서랍들을 뒤지며 땅문서를 찾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기출의 죽음 이후 기출과 갈등했던 일을 후회하며 반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② 기출은 죽기 전에 경찰관들 및 효근과 갈등하였는데, 효근과 다툰 이후 그는 고욤나무를 바라보며 그것이 자신의 처지와 같다고 여기면서 한탄하고 있다. ③, ④ 봉출은 기출이 죽고 난 후 기출의 아내의 말을 통해, 기출이 근검절약하던 평소 모습과 달리 생일날 이후 돈을 마구 쓰는 행동을 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봉출은 기출의 아내가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빚을 일리고 그것을 갚아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하자 잘 생각했다며 동조하고 있다.

**5** 기출은 평소 효근이 농사일에 관심이 없고 땅을 수단으로만 여기며 농사일의 본질적 가치를 알지 못하던 것을 근거로 삼아, 땅을 팔아 사업 자금을 해 달라는 효근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땅을 팔아서 사업 자금이나 험시다……”라는 효근의 말을 인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그의 제안을 거절할 뿐 효근의 제안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

지는 않다. ㉓ “땅이 아침 먹다 팔려 줌슨 먹다 잔금을 받더래두”에서 땅이 팔릴 것을 가정한다고 볼 수 있으나, 효근에게 땅을 판 돈을 줄 수 없음을 강조할 뿐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효근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㉔ “지나가는 으렁박씨”와 비교하여 그에게 돈을 줄망정 효근에게는 줄 수 없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장점을 드러내면서 상대방을 추켜세운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㉕ 기출이 땅이 빨리 팔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임을 효근에게 피력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 Memo



A series of 20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 Memo



A series of 20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